

2024
인천국제미디어
컨퍼런스

인천국제미디어컨퍼런스 사무국 (032-426-0333)
<http://www.inmediacon.org>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2024 인천국제미디어컨퍼런스

인천광역시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자료집

2024 인천국제미디어 컨퍼런스

‘디아스포라 도시브랜드 인천’ 조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The Role of Media in Creating 'Diaspora City Brand Incheon'

2024 10.31.(목) - 11.2.(토)

갯벌타워 (10.31.)

[본행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11.1.)

인천광역시

개회사 Opening Remarks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Yoo Jeong-bok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6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Do Seong-hoon Superintenden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Education	8
	김세원 한국PD연합회 회장 Kim Se-won Chairman of Korea PD Federation	9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ee Hag-jae President & CE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10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 Lee Nam-shik President of Jaeneung University	11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제17대 회장 Yoo Je-heon 17th President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Korean Americans	13
	양향자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상임대표 Yang Hyang-ja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K Diaspora to the World	14
	김창준 前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Kim Chang-joon Former U.S. Representative (CA)	16
	스테파니 스펙 녹색기후기금 특별 이니셔티브 책임자 Stephanie Speck Head of Special Initiatives GCF	17
기조연설 Opening Ceremony	바주 엘리아시 스웨덴 린네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Barzoo Eliassi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Linnaeus Sweden	19

[세션 1]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좌장	이충환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객원교수	
발제	한국의 디아스포라: 재통합의 도전과 기회 “갈등 분석 및 해결 렌즈” 로렌드 윌슨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아시아 평화와 분쟁연구센터장	29
토론자	‘재외동포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제언 김태민 인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33
	세계한인·디아스포라의 날 시민축제 행사 제안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35
	‘노동’ 이민에서 사회통합으로 분위기 전환 필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38
	디아스포라(Diaspora) 성지(pilgrimage), 모국(母國) 대한민국 인천, 인천관광이 그 길을 만든다 손해경 재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0

[세션 2]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브랜딩 전략	
좌장	김상훈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토론자	박주성 기호일보 정치부장	
	디아스포라와 미디어	45
	나오히라 요시미츠 오사카 마이니치 방송국 본부장	
	인천시, 한국어능력시험 도입을 통한 디아스포라 도시 구축 필요	50
	이효종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PD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54
	허태윤 애드아시아2023서울 사무총장	

[세션 3]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좌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59
토론자	한국의 다문화적 전환과 재외동포의 현황 및 역할	63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센터장	
	가족의 중요성과 입양인들의 가족찾기 권리의 제한	66
	류동익 네덜란드 카톨릭방송국 특파원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현황과 발전 전략	69
	임채완 세계디아스포라학회 회장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73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	

[세션 4]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좌장	디아스포라정책의 성공과 재외동포의 U턴을 위한 몇 가지 제언	77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토론자	디아스포라의 시대,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문화를 활용한 교류	80
	이재승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미디어의 변화와 지원	82
	박병률 경향신문 콘텐츠랩부부장	
	동포 인식 개선은 그저 ‘좋은 이미지 쌓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84
	손정진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대표	
	혈통적 민족주의에서 ‘다문화 민족주의’로의 전환	86
	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	

[세션 5]	글로벌 TOP10 도시로 가기 위한 인천시와의 협력방안	
좌장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아스포라 기여 방안 - 재외동포 교육을 중심으로 - 김주훈 KDI초빙연구위원	91
토론자	인천형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남경선 인천광역시 재외동포협력기획과 과장	94
	인천을 친동포·다문화 국제도시로 만들자 이희용 재외동포 전문 칼럼니스트	97
	인천-CIS 국가 간 가교 역할로 인한 발전 방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협회장	100
Opening Ceremony	Barzoo Eliassi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Linnaeus Sweden	102
[Session 1]	'Overseas Koreans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2025-2026' - What Should We Prepare?	
Chairman	Lee Chung-hwan Gues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ig Data Innovation Convergence College	
Presentation	South Korea's Diaspora: Reintegr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Lens" Roland B. Wilson Professor Carter School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113
Discussant	Suggestions for preparing for the Year of the Diaspora Visit Kim Tae-m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7
	Proposed World Korean and Diaspora Day civic celebration events Kim Yong-phil Representative of Dongpo World Newspaper	120
	Need to shift tone from 'labor' migration to social integration Kim Song-won Secretary General of the Inche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24
	Incheon, the diaspora mecca of our home country! Incheon tourism paves the way Sohn Hae-kyung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Jaeneung University	126
[Session 2]	Global Branding Strategy for Incheon through Media	
Chairman	Kim Sang-hoo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Inha University	
Discussant	Park Joo-sung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Incheon Journalists' Club Currently Deputy Political Director Kihonews	
	Diaspora and media Naohara yoshimitsu Manager Operations Audit Division Mainichi Broadcasting System (MBS)	131
	Incheon, South Korea, a diaspora mecca, home country, and Incheon tourism paves the way Lee Hyo-jong EBS Producer	137
	Incheon, a city of diaspora, is open to diversity Heo Tae-yoon AdAsia 2023 Seoul Secretary General	140

[Session 3]	The History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Diaspora	
Chairman	Lee Jean-young Director Inha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145
Discussant	South Korea's Multicultural Transi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Overseas Koreans Jung Hyun-joo Director of the Asia Migra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Research Center	148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the Limitations on Adoptees' Right to Find Their Families You Dong-ick Netherlands Catholic Broadcasting Correspondent	150
	The State of the Global Diaspora and Strategies for Advancement Lim Chae-wan Chairman of the World Diaspora Association	153
	The Evolution of Diaspora and Global Networking Song Deok-jin Director of the Far East Future Research Institute	155
[Session 4]	Improving Domestic Awareness of Overseas Koreans	
Chairman	Some Suggestions for Diaspora Policy Success and Diaspora U-turns Choi Yeon-hyuk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Linnaeus University	159
Discussant	Cultural Exchanges in the Age of Diaspora through Diaspora Film Festivals, etc. Lee Jae-seung Secretary-General Incheon Film Commission	162
	Media Needs to be Different, Media Needs to be Supported Park Byung-ryul Head of Content Lab Kyunghyang News	164
	Improving Compatriot Awareness is a Matter of Survival Son Jung-jin Beyond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Incheon	167
	The Shift from Blood Nationalism to Multicultural Nationalism Yun Kwan-ok Editorial Writer of Incheon Ilbo	169
[Session 5]	Collaborating with Incheon to Become a Global Top 10 City	
Chairman	Kim Joo-hoon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Discussant	Creating an Incheon-style Expatriate Hub City Nam Kyeong-seon Director of the Overseas Korean Cooperation Planning Divi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173
	Make Incheon a Pro-compatriot and Multicultural International City Lee Hee-yong Columnist Specializing in Overseas Koreans	175
	Incheon's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CIS Countries Jung Yeong-sun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177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를 위해 인천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아스포라 도시 브랜드 인천' 조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의 도시, 인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재외동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디아스포라 도시 브랜드 인천'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들과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그들과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디어가 가진 강력한 힘으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 역사는 120여년 전 바로 이곳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나섰고, 이제 그 후손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며 한국과 인천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천은 그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그 위상을 더욱 높이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과 2026년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정하고 재외동포 특화사업, 재외동포 방문 주간 사업들을 추진해 인천이 재외동포들에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마음속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디아스포라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미디어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디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국인들이 고향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0여년 전 인천에서 세

계로 퍼져나간 동포들이, 한 세기가 지나 다시 인천에서 함께 만나는 드라마틱한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 친화도시로서 인천의 비전이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2024 인천국제미디어 콘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천은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으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선사시대 유적부터 스마트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168개의 섬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간직한 소중한 고장입니다.

다양성은 이제 이해의 대상이 아닌 확보해야 할 경쟁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글로벌 선도자(first mover)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아직 개발도상국 당시 강조했던 서열화된 경쟁, 지식의 양적 전달, 표준화된 평가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양성, 공정성, 상호존엄성의 가치를 교육에 담아 성장할 것입니다. 다문화-비다문화 통합학교인 (가칭)세계로국제학교를 설립하고, 매년 3천여 명의 학생과 교원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시민역량을 기르는 세계로배움학교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읽고 견고 쓰는, 읽견쓰 교육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도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4 인천국제미디어 콘퍼런스」를 축하드리며, 오늘의 행사가 700만 재외동포와 300만 인천시민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공감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원
한국PD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PD연합회장 김세원입니다. 오늘 인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인천 국제미디어 콘퍼런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을 디아스포라 도시로 브랜딩하겠다는 인천시의 야심찬 계획의 첫발로 생각됩니다.

디아스포라, 즉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살고 있지만 완전히 그 나라의 국민인 것도 아니고 한국인인 것도 아닌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질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들이 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연결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와 미디어는 디아스포라가 한국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 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특히 미디어는 한국 대중문화가 전달되고 소비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K-드라마, K-팝,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의 뿌리와 고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또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들은 각자 살고 있는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PD연합회는 여러 주요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긍지를 이어가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낼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또 인천시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문이자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2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매년 수천만 명의 여행객이 이곳을 통해 180개 도시가 넘는 세계 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정보, 그리고 기술이 인천공항을 통해 교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이 그 자체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연결의 중심에 있으며,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 인천 국제 미디어 콘퍼런스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자리입니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디어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은 수많은 글로벌 미디어가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모습을 알리고, 우리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가 미디어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깊이 있는 논의와 아이디어는 앞으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러한 변화에 함께하며, 글로벌 소통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세계 각국 주요 공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2024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가 큰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디아스포라 도시 브랜드 인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인천이 하나로 연결되고, 미디어를 통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인천은 한국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대 이민의 출발지로서, 수많은 이들이 이곳 인천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고, 그들의 후손들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각자의 이야기와 역사가,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인천은 그들의 고향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인천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광역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전 세계와 소통하며, 인천이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내년은 2025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입니다. 우리는 인천이 재외동포들에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닌, 그들의 뿌리와 연결된 고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인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전파되고, 그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는 그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천은 디아스포라와 미디어라는 강력한 자산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능대학교도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은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 학생들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콘퍼런스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실제로 인천이 글로벌 디아스포라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로 퍼져 나간 한국인들이 그들의 고향인 인천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또한 인천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의 기회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여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제17대 회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의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올해는 인천 제물포에서 121명의 한인들이 정부 공식이민으로 출항한지 122년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이주의 발걸음은 조국의 광복과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 지금은 세계 182개국에 뿌리를 내리고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뿌리를 공유하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글로벌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문화와 얼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의 힘입니다. 미디어는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 이야기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콘퍼런스가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세계 속에 새롭게 드러내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재외동포로서 우리는 각 나라에서 그 사회의 일원이자,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시민으로 서로에게 큰 자산이 되어 왔습니다. 미디어는 그 경험들을 세계와 나누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인천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출발 도시로서,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는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누는 논의들이 인천이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인천과 세계 재외동포들을 더 깊고 넓게 연결하고, 서로의 가치를 빛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19일 출범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거들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상임대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상임대표 양향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며, 국가 간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협력하며, 세계와 연결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란, 조국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정착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고, 이제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그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즉 재외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발전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나아가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를 잇는 다리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 역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글로벌한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미디어의 힘을 활용하여, 한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가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디아스포라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나누는 대화와 논의가 한국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준
前 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인천시가 디아스포라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2024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를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콘퍼런스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인천이라는 고향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재외동포사회가 인천을 기점으로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반세기 전, 혼자의 힘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나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저를 필요로 할 때마다 주저 없이 나섰던 것은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은,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국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며,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줄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가 되고, 한국인들이 세계 속으로 힘차게 첫 발걸음을 땀 곳이 인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이번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을 알리는 자리에 많은 전문가들과 재외동포들이 협력해 인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우리 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상생하며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모국과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2024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스팍
녹색기후기금 특별 이니셔티브 책임자

미디어는 아이디어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환해 온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 세기 동안 언론인들은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대 간의 도전에 맞서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은 희망의 이야기, 회복력의 사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이러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채널, 기회, 커뮤니티 등 모든 면에서 풍부한 미디어가 전례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수 있는 '초능력'을 발휘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녹색기후기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열망과 기회의 글로벌 미디어 캠페인에 초대합니다.

지금 기후 행동을 가속화합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도와 홍보를 통해 기후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와 조직들이 오늘 내리는 결정에 대해 그들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인천을 10년 이상 우리 본부로 삼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GCF는 야망, 인내, 혁신을 바탕으로 기후 금융을 확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24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수백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미디어 파트너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리의 사명에 매우 중요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GCF를 대표하여 2024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tephanie Speck
Head of Special Initiatives GCF



The media has a long and proud record of transforming ideas into positive action. Over decades – even centuries – journalists have taken on generational challenges that have threatened the fabric of society. In such daunting times, they have communicated stories of hope, examples of resilience, and pathways towards a better tomorrow.

In the face of the climate crisis – the defining issue of our time – such leadership is required more than ever.

The world needs the media – in all its richness in terms of channels, opportunities and communities – to be on message like never before and to use its ‘superpower’ to catalyze and guide dramatic and sustainable change.

Today, I invite you all to join the Green Climate Fund in a global media campaign of aspiration and opportunity that says: Let us accelerate climate action now!

I call upon you all to use your skills and networks to inspire greater engagement on climate action through your reporting and outreach. Hold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to account for the decisions they make today. Otherwise, we have no tomorrow.

Humanity can make no better investment to build a more prosperous and secure future for everyone, including the world's most vulnerable communities.

The Green Climate Fund has been proud to call the City of Incheon home for more than 10 years.

We are also proud that during this time, GCF has scaled up its climate financing to reach millions of people with more than USD15 billion invested in more than 240 projects in some of the world's most challenging contexts through a mixture of ambition, perseverance and innovation.

The active support of our media partners has been – and remains – vital to our mission.

On behalf of GCF, I wish you a successful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Thank you.

고향과 귀환의 정치: 포용적 미디어 표현과 한인 디아스포라

바주 엘리아시
스웨덴 린네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디아스포라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컨퍼런스의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이주, 정체성의 복잡하고 진화하는 교차점을 탐구하는 저명한 학자, 언론인, 사상가, 체인지메이커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주, 디아스포라, 무국적자, 그리고 “고향”이라는 미묘한 개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업해 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강박과 돌아가고 싶은 열망, 그리고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동시에 모든 곳에 소속되어 있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주, 디아스포라, 민족 국가, 미디어 표현의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다양하고 공평하며 이질적인 한국 사회를 조성하는 국내외 포용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주는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다면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 정치적 억압, 폭력, 안전과 안정의 추구 등 무수히 많은 이유로 이주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 집단은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 탄압이나 준군사적 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이주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이주는 욕망에서 비롯된 결

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이주를 둘러싼 내러티브는 문화적, 정치적 편견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구의 담론, 특히 극우 및 포퓰리즘 담론에서 비백인 이민자들은 종종 의심의 렌즈를 통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악용하고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계산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이주는 글로벌 사우스 출신 개인과 연관될 때 서구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안정한 힘, 즉 ‘위기’로 묘사됩니다. 반면, 백인의 이동은 문화와 상업을 풍요롭게 하는 세계 시민의 증거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표상으로 칭송받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백인은 ‘외국인’으로 불리며, 이는 비백인 이주민의 여정에 종종 수반되는 소외와 소외감보다는 선택과 자유, 공동체 형성이라는 의미를 미묘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에 내재된 모순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는 영원한 타자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냅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이주는 모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입니다. 강제 이주는 종종 개인과 공동체를 무국적자로 만들어 지속적인 상실감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나 아렌트는 무국적자를 자신이 태어난 “사회적 질감 전체를 잃는 것”, 즉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던 구조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어, 문화, 정체성. 에드워드 사이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망명을 자아와 진정한 고향 사이의 ‘차유할 수 없는 균열’, 즉 망명자에게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불러

넣는 해소할 수 없는 간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주민에게 이러한 상실감은 고향, 순수성, 소속감에 대한 깊은 갈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 리사 말키가 관찰한 것처럼, 전 세계의 상상력에 스며든 '국가적 질서', 즉 사람들이 특정 국가 정체성에 팔꿈치게 맞출 것을 기대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경우, 이러한 안정적인 정체성의 부재는 디아스포라 내에서 강력하고 순수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종종 디아스포라 내에서 모국에서 겪는 소외감을 상쇄할 수 있는 피난처, 즉 보금자리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집단은 고국과 해외에서 모두 불안정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은 종종 지배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피해자라는 서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소외에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의, 투명성을 옹호하며 호스트 국가와 고국의 정치 구조에 도전합니다. 정치적 포용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생존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다른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종교, 문화, 언어, 성 역할에 대한 내부 투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모든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역사, 맥락, 권력의 역학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한국은 확고한 국민국가로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아스포라를 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포용적인 국가 정체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민족국가의 상황은 무국적자 또는 분쟁 중인 집단의 불안정한 존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은 포용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지만, 쿠르드족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집단은 근본적인 존재론적 불안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민족으로서의 존재는 정체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극명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디아스포라는 상실감으로 형성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며 고국과 거주 국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주체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과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초국가적 연결을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저스 브루메이커가 지적했듯이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시간에 고정될 수 없습니다. 고국에서 살아온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젊은 세대의 경우, '고향'에 대한 연결은 새로운 세대의 경험에 따라 진화하면서 복잡하게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주와 이주로 인한 분열에 대응하여 가족, 공동체, 정체성이 끊임없이 재협상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역사적 도전, 정치적 위기, 국경이 연결되고 분열되는 세계에서 계속되는 정체성 협상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형성된 움직임의 범주입니다. 무국적과 홀리스라는 렌즈를 통해 디아스포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의식이 국민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공식적인 국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불평등에 대응하여 정치적 소속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조명합니다.

인천과 같은 디아스포라 허브의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할 때, 미디어가 단순히 수동적인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정체성을 형성하고 포용성을 증진하며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미디어는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미디어 표현을 통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 호스트 사회 사이의 문화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보다 포용적인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

습니다.

국가 기관과 미디어 기관 모두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의 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비국가 행위자로 부상하여 고국의 국가 건설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갈림길에 놓인 디아스포라는 때로는 전투적이고 원거리 민족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평화 구축의 필수적인 주제 또는 반대로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룹이 국경을 넘어 독특한 영향력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저명한 디아스포라 구성원과의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이 제공하는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고 이들을 변화의 가치 있는 주제로 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 미디어, 디아스포라 간의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포용적인 도시 정체성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유대를 강화하는 협력적 참여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와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국익을 지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특히 이러한 관계가 국가의 이익에 도전하거나 모순될 수 있는 경우,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정치적 유대와 충성심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츠와 존스가 주장하듯이,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 네트워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동원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터너와 클라이스트는 디아스포라가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나 인정뿐만 아니라 국가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에서 정치적 성격을 도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이주, 이주, 세계화로 인해 끊임없이 재정의되는 세계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고향의 가

능성을 다시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내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고향을 국경에 국한하지 않고 한인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통해 풍요롭게 하는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은 달콤한 꿀 같은 곳인가요?

하지만 집은 달콤한 꿀과 같은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국제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이 점점 더 쓸모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 대한 얇은 유대를 선택하는 반면, 강제 이주된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의 귀환이 중단되거나 증권화되는 세상에서 '집'에 대한 애착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될까요?

세계화가 실제로 이동성을 증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동성은 장소에 대한 애착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스타프슨과 같은 학자들은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장소와의 유대감이 약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맥락에서 Duyvendak은 장소 애착과 집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보편주의적 입장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나 고향에 대한 애착을 덜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특수주의적 관점은 세계화의 불확실성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게스키에르는 '세계화된' 세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뿌리 깊은 지역 정체성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포용과 배제의 상징적, 공간적 실체로서 국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훔에서 태어났다는 개념인 '오토크토니'는 이러한 소속감과 배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상황에서 유럽인들은 종종 백인이 아닌 "문명화되지 않은 원주민"을 묘사할 때 "오토크토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념은 일부 유럽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원초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누가 소속되고 누

가 외부인으로 분류되는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우펜스와 게스키에르의 논의처럼 정체성과 배타적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현대 정치 환경에서는 강력한 집단이 이질적이고 낮은 '타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원주민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속의 정치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속'을 정의하는 데 대한 이러한 집착은 서구, 유럽인을 기준으로 삼는 코스모폴리탄 소속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Ahmed와 같은 학자들은 모든 개인이 단순히 노숙자나 유목민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상화된 코스모폴리탄주의 관점을 비판합니다. 실제로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반면, 특히 글로벌 사우스 출신의 다른 사람들은 유럽과 같은 곳으로 입국하거나 이들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상당한 장벽에 직면합니다. 이는 이주 경험의 극명한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동과 유목은 특권인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평등한 시민권 제도가 있는 세계에서 고통스러운 뿌리 뽑기와 불확실한 재정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uyvendak은 고향에 대한 문제가 고도로 정치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백인 이주민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고향 감정'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배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는 종종 인종화된 위계질서와 배타적인 국가 정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특히 중동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소외된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족과 같은 무국적 집단에게 익숙하며, 이들은 서구 사회에서 복합적인 타자성과 배제의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의 디아스포라적 경험은 종종 체계적으로 배제된 지역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자생적 담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디아스포라란 본질적으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탈주와 경험에 관한 것으로, 소커펠트와 케니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주제입니다. 이 개념은 이동의 차원, 연결성, 귀환의 가능성을 통해 이주 경험을

연결하여 뿌리 뽑기와 다시 뿌리 내리기 사이의 진동을 요약합니다. 이는 이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발생하는 정체성과 소속감의 재구성에 직면하게 합니다.

고르지 않은 세상에서의 소속감과 내 집 만들기

디아스포라적 맥락에서 소속감과 고향의 미묘한 역학 관계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문헌에서 편안함, 안녕, 안정감을 위한 소속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피하는 포용적인 고향 상상 방식을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집과 향수에 대한 이상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존재합니다. 보넷이 제안한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종종 경계를 강화하고 특정 개인과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적 기억에 뿌리를 둔 소속감에 대한 비전인 "불가능한 안전과 편안함"에 대한 갈망을 구체화합니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이러한 구성을 더욱 비판하면서 통일된 정체성과 안전한 집에 대한 꿈은 종종 "여성과 타자, 낮은 사람, '집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희생으로 구매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긴장은 집이 보편적으로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부터 사회 격차를 넘어 지역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폭력과 배제에 의해 형성되는 모순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쿠르드족, 팔레스타인, 아시아/시리아, 타밀족 등 많은 무국적 디아스포라에게 집은 잠재적 안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군사화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만연한 위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이러한 집단에게 집이라는 개념이 종종 실망, 위험, 소외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호스트 사회에서의 이탈과 타자화의 경험은 수용과 포용의 장소로서 고향에 대한 갈망을 고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만 러시디의 경고처럼, 고향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은 자칫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디는 이상화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디아스포라적 집착을 비판하며, 이러한 갈망이 "위험하고 병적인" 과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고

향이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향에 집착함으로써 경직된 경계를 만들고, 이러한 단일 비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고향 개념을 물신화하고 독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디의 통찰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만 집중하고 사회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가로막는 고립된 시각을 가진 '계도적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고향과 귀환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망명자나 디아스포라에게 적합합니다. 신헌민의 정체성은 종종 상실의 서사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물리적 귀환 행위를 통해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러시디가 신랄하게 관찰했듯이,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조국]으로부터의 물리적 소외가 거의 필연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정확하게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러시디에게 귀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신적 구성물인 '허구' 또는 '상상의 고향'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국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이주민들이 종종 직면하는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수사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와 같이 인종 차별적이거나 외국인 혐오적인 표현으로 장소와 고향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개인의 고향에 대한 개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이민자들은 라다크리슈난이 '인종의 과장'이라고 부르는 대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민족주의적 구조에 저항하는 자신만의 고향과 소속감에 대한 서사를 구축합니다.

집과 소속감의 복잡한 관계는 스웨덴 출신의 쿠르드족 작가 무스타파 칸의 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스웨덴으로 이주한 칸은 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동양인"이자 "서양인"이라는 이중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는 "집은 멀리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집"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만연한 중간자 의식을 반영하는 정서라고 설명합니다. 칸의 부모님은 쿠르드족 마을을 고향으로 깊이 애착을 갖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쿠르드족 마을에 깊이 뿌리내린 동시에 그곳

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적 모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스웨덴인입니다. 저는 쿠르드족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하지만 여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집은 멀리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집입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정체성은 많은 디아스포라가 자신의 유산과 자신이 정착한 사회 사이에서 직면하는 심리적, 정서적 분열을 대변합니다.

칸의 부모님처럼 나이든 세대에 쿠르드족 마을과의 연결은 여전히 중요한 닻입니다. 이 '고향'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스웨덴에서 느끼는 타자성과 향수병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칸의 아버지는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문을 통해 그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규정짓는 노숙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쿠르드 문화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그 해체에 대한 두려움은 특히 손주들이 스웨덴 이름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때 두드러지는데, 이는 그에게 마을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열망은 동화의 압력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며, 집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 특히 디아스포라 쿠르드 여성들에게 집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 가치, 성 평등, 법치주의를 옹호하며 지역사회 내 가부장적 구조에 도전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많은 젊은 쿠르드 여성에게 가정은 문화적 협상의 장이며, 이들은 변화하는 정체성과 함께 전통적 유산의 가치를 탐색해야 합니다. 쿠르드 지역으로 돌아갈 경우, 그들이 해외에서 채택한 정치적 이상과 모순되는 사회 및 문화적 제도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ing과 Christou가 지적했듯이, 귀환은 때때로 "출신지의 사회 및 문화 제도와와의 대립으로 표시"되어 귀환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좌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종종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고국으

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쿠르드족 이주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쿠르드 지역의 지속적인 탄압과 군사화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는 “고향”이라는 개념의 안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 이주자들은 영국이나 스웨덴을 ‘고향’으로 여기는 양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이들 국가의 민주적 자유와 안전이 유럽 내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 따라서 영구적인 귀향의 가능성은 종종 연기되고, 많은 디아스포라가 맥시가 설명한 것처럼 존재가 정지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쿠르드 및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자신의 출신 국가를 최종 목적지가 아닌 상징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쿠르드나 팔레스타인과의 연결은 물리적인 귀환보다는 문화적,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젊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게 ‘고향’은 개인의 정체성, 문화 유산, 현실적인 현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형성된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블라치니카-시아체과 엘리아시아가 관찰한 것처럼, ‘중간’이라는 느낌은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하는 비소속의 한 형태이자 특징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쿠르드나 팔레스타인을 최종 고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귀환 서사에서 벗어나 국경을 초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더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소속감을 수용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 집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은 편안함과 갈등의 장소이자 정체성을 다두고 재정의하며 협상하는 장소입니다. 개인, 가족 또는 더 넓은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모든 집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공간으로, 유산의 지속적인 유대와 디아스포라 생활의 변화하는 경험을 모두 반영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디아스포라의 미디어 표현, 국가의 책임, 그리고 고향의 개념

‘집’이란 무엇인가요? 집은 흔히 안전과 편안함, 따

뜻함이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집은 가족 내에서도 더 넓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위협, 심지어 젠더적 또는 정치적 폭력이 가해지는 장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고향’은 인종, 종교 또는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고향은 소속감을 의미하며 집단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한 문화적, 정치적, 상징적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 고국은 흔히 마법과 이상주의의 장소로 상상됩니다. 그러나 고국은 개인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우에도 강요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외국인 혐오 공격을 받을 때 종종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으며 이러한 강요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고국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와 현실이 충돌할 때, 그 경험은 깊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고국과의 연결이 배제나 소외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러한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포용적인 한국 사회를 향해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와 정부 당국은 어떻게 하면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외부인’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 본토 밖에서 살면서 얻은 차이점을 상기시키지 않고 고국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력에는 세대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계급, 성별, 이주 역사의 교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구성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 차이가 불평등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아스포라 집단이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구조, 태도, 행동으로 인해 편안한 ‘집’을 찾지 못한다면 당국,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이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아스포라의 생생한 경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들의 평등한 포용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파악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포용을 위한 노력은 디아스포라를 ‘고국’의 품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과 실천의 구체적인 단계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그룹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시스템 개발, 차별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디아스포라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으며, 더 큰 한국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 미디어는 어떻게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용할 수 있을까요?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포용적인 고국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한국 미디어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로, 해로운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이를 해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과소대표되거나 잘못 표현되면 배타적인 감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국 미디어 소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이주민들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 정치 관련 뉴스를 통해 고향, 안전, 소속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모국 미디어의 영향력은 현재 800만 명에 육박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내에서 성별과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진아, 이광호가 캐나다 한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모국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문화유산, 가치관, 언어를 보존하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국적보다 한국 유산을 우선시하며, 실질적으로는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상징적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길수가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모국의 동화 압력에 저항하며 언어, 가치, 문화 유산에 대한 강한 유대

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고, 지나치게 경쟁적이며, 엘리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녀의 논문 ‘디지털 미디어와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 구축의 여정’에서 이호정 씨는 디아스포라가 미디어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듯, 재한 한국인도 디아스포라 미디어에 주목해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미묘한 관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인 이민자들은 자녀에게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물리적 고국을 초월한 ‘한국인다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미국계 미국인 등 다양한 정체성, 양면성, 혼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LA 폭동과 같은 사건은 한인 커뮤니티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인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유지연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한국이나 모국을 유일한 소속의 중심지로 삼지 않고 디아스포라의 다른 한인들과 동일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진짜’ 한국인으로 여기며, 때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통성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 언론은 디아스포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문화적 쇠퇴, 동화 과정의 어려움, 모국 사회의 적대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서술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고르부노바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언론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묘사 변화를 분석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즈, 중앙일보와 같은 매체는 한국 디아스포라의 성공과 헌신, 근면한 정신을 강조합니다. 한국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 운동선수, 작가,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문화적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점점 더 디아스포라를 정체성의 일부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와 미디어는 디아스포라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에 한국 디아스포라를 등장시켜 한국 사회의 진정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한국 사회 내에서 디아스포라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서로 다른 문화적, 정치적 환경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종종 의문을 제기하는 '한국인'에 대한 편협한 정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표현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인간화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게 하며, '본토' 한국인과 글로벌 커뮤니티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여줍니다.

뉴스와 미디어 매체는 디아스포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디어는 인터뷰, 오피니언 기사, 디아스포라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를 통해 포용성, 이주, 정체성에 대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술, 비즈니스, 학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아스포라의 성공 사례를 조명하면 출생지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책임감 있게 대변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완전히 수용되고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감과 개방성, 글로벌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고르부노바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미디어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것은 한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 커뮤니티에

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모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디아스포라와 한국 본토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력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한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한국인을 연결하는 디아스포라 친화적인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포용적이고 환영하는 공간을 구축하려면 정책 개혁, 연구, 교육,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디어 표현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는 민족 의식을 형성하는 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내의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다름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경 너머에서 살며 성장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확장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조국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세션 1

[세션 1]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좌장



이충환

발제



로랜드 윌슨

패널



김태민



김용필



김송원



손혜경

좌장	이충환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객원교수
발제	한국의 디아스포라: 재통합의 도전과 기회 “갈등 분석 및 해결 렌즈” 로랜드 윌슨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아시아 평화와 분쟁연구센터장
토론자	'재외동포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제언 김태민 인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세계한인·디아스포라의 날 시민축제 행사 제안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노동' 이민에서 사회통합으로 분위기 전환 필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디아스포라(Diaspora) 성지(pilgrimage), 모국(母國) 대한민국 인천, 인천관광이 그 길을 만든다 손혜경 재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의 디아스포라: 재통합의 도전과 기회 “갈등 분석 및 해결 렌즈”

발제자 로랜드 윌슨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아시아 평화와 분쟁연구센터장

배경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는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미 그 지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 및 비즈니스 허브와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천시는 이러한 성공의 진원지이자 지역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적은 이민으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미래 노동력,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이민 정책과 “한국인”의 의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구성원을 다시 한국으로 환영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국가 정체성은 오랫동안 민족적 순수성과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배 2007) 그러나 ‘한국인다움’에 대한 이러한 협소한 이해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그 후손, 그리고 혼합 유산을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대로 외국에서 살아온 재외동포나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국가 정체성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코리아 디아스포라(K-디아스포라)를 정의하고 환영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기반 및 법적 장벽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연구와 학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백서에서는 몇 가지 주요 과제를 다루고 몇 가지 초기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도전과 기회

1. 민족 순수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

- 한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지역 플레이어들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민족적 동질성을 채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자부심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민족주의의 근간이며, 한국을 현재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더 많은 한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외국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 입양인들이 외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이들은 혼혈 자녀와 함께 한국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완전히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혼혈인이나 비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귀화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낙인은 순수 한국 혈통, 현지 언어 구사, 한국 문화에 대한 완벽한 이해 등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것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 법적 제한 및 국적법

- 한국의 국적법은 역사적으로 ‘혈통주의’(혈통에 의한 시민권)를 강조해 왔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항상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Temple University 2024; N. H.-J. Kim 2013; H. A. Kim 2022) 특정 조건에서 이중 국적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디아스포라가 영구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귀국하는 유대인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스라엘의 귀환법과 달리 한국은 현재 디아스포라가 시민권이나 거주지를 쉽게 취득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공식화되고 일관되며 접근 가능한 경로가 부족합니다. (Ernst 2009) 이러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적 장벽과 통합 문제

- 한인 디아스포라와 그 자녀들은 종종 차별과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여겨집니다(Klein 2022; Ahn 2024).

- 한국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혼혈인과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방해하는 제도적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 직장 및 사회 기관은 이러한 인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Shin 2006).

4. 언어 및 교육 장벽

- 많은 K-디아스포라, 특히 2세 또는 3세 커뮤니티 출신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한국의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는 특히 교육과 취업 측면에서 재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K-디아스포라 재구상을 위한 초기 권장 사항

K-디아스포라 구성원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한국은 문화적, 정체성 기반, 법적, 사회적 틀을 재고하여 “한국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포용해야 합니다. 몇 가지 초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디아스포라를 위한 공식적인 ‘귀환법’ 제정

-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경로를 마련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처럼 한국도 재외동포와 그 후손이 귀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유연한 이중국적 규정: 재외동포와 그 자녀, 청소년들이 입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중국적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한국인다움”의 정의 확대

- 국가 정체성을 재정의합니다: ‘한국인’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여 한민족뿐만 아니라 혼혈인이나 해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았지만 한국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에이킵 2022; 문 2018; 송 2001) 이러한 변화는 진화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다양성을 장려하는 미디어 캠페인과 교육 이니셔티브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 문화 통합 프로그램: 귀환자와 디아스포라 자녀에게 한국의 역사, 가치, 언어에 대해 교육하는 문화 및 언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세요. 이를 통해 이들의 적응을 돕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지역이나 배경을 지우거나 축소, 비하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Ha and Jang 2016).

3. 혼혈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차별 금지 정책: 혼혈인과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차별 금지법과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여기에는 직장 정책, 학교 지원 시스템 및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기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확장하여 늘어나는 귀환자와 한국인 혼혈인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언어 지원, 법률 안내, 교육 서비스, 상담 등을 제공하여 가족이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인종, 정체성,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연구 센터 지원 및 확대: 이 주제에 대한 공동 및 협력 연구를 위한 리소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자와 실무자들은 K-디아스포라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와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중요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습니다.

4. 디아스포라 연결 강화

- K-디아스포라를 참여시키세요: K-POP과 마찬가지로 대사관, 영사관, 디아스포라 단체를 통해 해외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올리아 2004, 카터 2005) 문화 외교 프로그램,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투자, 해외 한인 정체성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국

과 글로벌 디아스포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 귀국자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세금 감면, 주택 보조금, 창업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글로벌 경험을 가진 유능한 디아스포라 인재를 유치하세요.

5. 언어 및 교육 장벽 해소

- 해외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인 인구가 많은 국가의 영사관, 대사관,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해외에 있는 외국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역사 강의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 2세대와 3세대가 자신의 유산과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한국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포용적 교육 정책: 한국 학교와 대학에서 귀환자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더 잘 수용하고, 이들이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혼란된 배경 때문에 배척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세요.

6. 다양한 K-디아스포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의 수를 줄이거나 삭제합니다.

- 재외동포/해외동포, 한인/한국계 미국인, 교포/교포, 조선족/한국화교/조선족 중국인 등의 용어를 없애고 K-디아스포라를 재정의하여 새로운 위너십을 만들 어렵다, 북한 조선족/새터민, 구 소련계 고려인/고려인 등 다양한 부정적 의미가 숨겨져 있고 온전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코와 백 2020; 장과 손 2024)

결론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는 디아스포라와 국적에 대한 역사적 입장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상세한 연구와 장학 사업을 수행하고 귀환자에게 명확한 법적 경로를 제공하면서 ‘한국인다움’을 보다 포용적이고 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의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K-디아스포라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문화적 정체성 보존과 다양성을 포용하고 해외 한인 커뮤니티를 국내로 재통합하는 미래지

향적 다문화 접근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디아스포라를 활용할 잠재력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정책 변화와 문화 및 정체성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에서 교훈을 얻고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통합 문제에서 배움으로써 한국은 귀환자들을 더욱 포용하고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경로, 문화 및 경제적 지원, 반차별 노력을 제공하는 정책은 21세기 한국인이라는 의미를 재정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아스포라 귀환자와 다문화 가정의 유입은 한국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한국 사회의 구성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 언어, 기술, 문화적 영향을 가져온 이들이 유입됨에 따라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정체성 관점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한국 전통과 한국인의 피가 희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한다면 한국 사회를 크게 풍요롭게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귀환자들은 기술, 비즈니스, 교육, 예술 등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벌 관점, 전문 지식,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국제적 경험은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한 대한민국은 문화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강점으로 포용함으로써 한국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동시에 세계를 선도할 준비가 된 보다 역동적이고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사적 경험,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 식민지배의 트라우마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였던 ‘위안부’ 문제는 많은 한국인이 외부인과 외국의 영향을 바라보는 시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된 고통에 대한 집단적 기억인 이 선택된 트라우마는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순수성,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보호 의식을 키웠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긴 아픔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같은 현대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은 이러한 역사적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귀환자와 다문화 가정의 유입에 대비하고 포용성과 함께 치유를 촉진함으로써 한국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글로벌 관점을 포용한다고 해서 한국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회복력, 혁신,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안지현. 2024. "인종차별의 변화하는 얼굴: 한국의 혼혈 범주를 통한 인종 국가 추적." 아시아 사회과학 저널 52 (3): 128-35. <https://doi.org/10.1016/j.ajss.2024.05.003>.

배지숙. 2007. "한국인, 혈액 순도 개념 재평가.". Koreatimes, September 2, 2007, sec. 내셔널.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10/113_9419.html.

카터, 손. 2005. "디아스포라의 지정학." 지역 37 (1): 54-63. <https://doi.org/10.1111/j.1475-4762.2005.00601.x>.

에른스트, 댄. 2009. "이스라엘 귀환법의 의미와 자유주의적 정당화." 이스라엘 법률 검토 42 (3): 564-602. <https://doi.org/10.1017/S0021223700000728>.

하상 E., 장승진. 2016. "분단국가의 국가 정체성: 탈북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남북한 통일." 국제 이문화 관계 저널 55 (11월): 109-19.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6.10.003>.

장규은, 손지영. 2024. "한류: 한국 디아스포라 정체성 재정의." 언더우드 국제 대학. October 10, 2024.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uic.yonsei.ac.kr/main/downloadfile.asp%3Fgid%3D37%26mid%3Dm03%255F05%255F04%26cmid%3Dm03%255F05%255F04&ved=2ahUKEwju85zgxaijAXXLUWcHHRICC_YQFnoECBIQAQ&usq=AOvVaw2-

BLRG5uoEGcENZn1Cf8dl.

김혜인 앰버. 2022. "‘한국인성’의 이해: 한국의 인종 계층화와 색채주의, 그리고 한국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시사점." 국제다문화교육학회지 22 (1). <file:///C:/Users/rolan/Downloads/admin,+1834-11393-1-PB-1.pdf>.

김 노라희정. 2013. "유연하면서도 융통성 없는: 한국에서의 이중국적의 발전.". 한국학연구 (1979-) 18 (1): 7-28.

클라인, 피터 D. 2022. "한국의 인종 차별: 한국 학자들은 해결책을 제안하지만, 그 해결책이 한국 헌법에 내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공학, 기술 및 과학을위한 미국 과학 연구 저널 86 (1): 174-91.

고호윤, 백경민. 2020. "케이팝 소비의 맥락에서 본 한국 디아스포라 정체성: 카자흐스탄의 젊은 여성 디아스포라 회원의 사례." 아시아 사회학 저널 49 (1): 1-28.

문현진. 2018. "우리-집단적 자아의 한국적 개념." 문현진 프레스턴 (블로그). September 24, 2018. <https://www.hyunjinmoon.com/uri-the-korean-notion-of-the-collective-self/>.

신기욱. 2006. "한국의 민족 민족주의는 자부심과 편견의 원천이다." 월터 H. 쇼렌스타인 아시아-퍼시픽 리서치 센터. August 2, 2006. http://aparc.fsi.stanford.edu/news/koreas_ethnic_nationalism_is_a_source_of_both_pride_and_prejudice_according_to_giwook_shin_20060802.

송창주. 2001. "민족주의와 한국 정체성의 구성 (검토)." 한국학연구 25 (1): 143-47.

템플 대학교. 2024. "한국 유산 학생과 한국 국제." 해외 교육 및 해외 캠퍼스. 2024 년 10 월 21 일. <https://studyabroad.temple.edu/programs/temple-exchange-programs/temple-exchanges-south-korea/korean-heritage-students-korean-nationality>.

율리아, 손. 2004. "세계화로 가는 디아스포라 정착: 한국의 사례." KDI 공공정책 및 경영대학원.

'재외동포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제언

토론자 김태민

인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들어가며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102명의 노동자로 시작한 재외동포들의 숫자는 현재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2세와 3세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 인구수는 세계 5위 수준이며, 모국 인구대비 재외동포 비율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또한 해마다 재외동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3년 인천 송도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의 인식과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고 재외동포들도 모국의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2025년 재외동포 방문의 해를 앞두고 각 분야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내국인 및 재외동포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제언도 하려 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 지원 필요성 소통

내국인들은 재외동포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나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심도도 낮은 편이다. 내국인들의 경우 모국이 싫어서 떠난 사람을 왜 지원해 주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주체인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동포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소통이 필요하다. 즉, 재외동포 방문의 해는 재외동포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해 지정은 왜 필요하고 왜 우

리는 재외동포를 지원해야 하는가?

첫째,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유지와 세대간 연결을 위해 필요하다. 많은 재외동포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모국과의 유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 방문의 해 지정을 통해 전 세계의 한국 동포들이 모국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며 생활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재외동포 방문의 해 지정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 정치적 참여, 경제적 기회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동포들은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산이다. 재외동포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은 동포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한인 사회와 한국 간의 연결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넷째, 해외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인천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모국의 중심지가 되면 해외 자본 유입과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외동포 관련 국제행사, 투자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관광, 숙박, 교통 등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가 증대할 수 있다. 재외동포나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 유학생 유치, 한류 확산 등이 촉진되어 인천이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및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의 역할

해외 동포들이 재외동포 방문의 해나 인천을 재외동포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

각국의 한인회, 교포 언론 매체, 재외동포 커뮤니티, 종교단체 등을 통해 재외동포 방문의 해와 재외동포청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캠페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SNS, 온라인 뉴스레터,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동포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2. 해외 동포 대상 프로그램 개발

재외동포 방문의 해 기념 행사를 추진하여 전 세계 동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나 글로벌 이벤트를 기획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재외동포 청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인천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3. 문화적 공감대 형성

재외동포들은 한국과 관련된 문화, 역사, 음식 등 고향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 크다. 이에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녹여낸 광고 및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캠페인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 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케이팝이나 케이컬쳐와 같은 문화적인 측면을 이용하여 접근하면 젊은 동포 세대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 제작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재외동포들이 자신과 관련있는 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한인 기업가, 학자, 예술가들의 사례를 통해 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모국의 한국인들도 이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외동포청과 인천시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광고나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참여형 캠페인

은 재외동포 커뮤니티 내에서 입소문을 통해 더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재외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챌린지를 기획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 방문의 해를 기념해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한국 음식, 역사적인 장소, 한글 쓰기 등)를 올리는 챌린지를 만들어 재외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5. 현지 이벤트와 연계

재외동포 사회에서 개최되는 한인 축제,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한 이벤트를 통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재외동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6. 공식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혜택 홍보

외교부나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재외동포들이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가 모국 귀국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법적 지원, 교육 기회 등을 소개하는 광고나 홍보를 통해 그들이 모국과 연결되는 데 실질적인 이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동포 자녀와 내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인 및 문화 습득을 위한 교환학생 제도나 홈스테이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7.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한인 기업, 현지 한인회, 교포 관련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광고와 홍보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넓은 한인 네트워크에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현지의 한인회나 문화 단체들과 협력해 캠페인을 전개하면, 지역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현지 한인 매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치며

재외동포 방문의 해 지정을 앞두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동포들의 문화적 정체성, 감정적 연결, 실질적 혜택 등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한인·디아스포라의 날 시민축제 행사 제안

토론자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들어가며

올해 처음 열리는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최의 성공을 기원한다. 본 행사의 주제와 목적을 보았을 때, 역동성을 느꼈다. 디아스포라 도시브랜드 인천이라는 용어가 그렇고 국제미디어컨퍼런스라는 말도 그런 것 같다. '디아스포라'와 '국제'라는 용어는 아픈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흩어진 힘을 한 데 모아 '국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원대한 도전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 두 용어를 함축해 담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전문가들이 인천을 재조명하고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려 2025년 인천 방문의 해를 맞아 인천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고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각인 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바로 이번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가 아닌가 생각하며, 제1섹션 주제에 맞춰 필자는 결론적으로 "세계한인·디아스포라의 날 시민축제 행사를 멋지게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며 이야기를 풀고자 한다.

제안배경

이번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행사 방향을 보면 "근대 이민사 출발지,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1천만명 글로벌 허브도시' 인천만의 특색을 미디어의 강한 파급력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디아스포라 도시브랜드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기 전 재외동포청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컸다.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 곳이 인천시였다고 생각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되었다. 인천시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상징성'이었다. 재외동포들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가 인천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면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강조했다. 여기에 인천시민들도 상당히 호응하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합쳐 '1000만 시민' 지지 속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자평하고 나왔다. 또한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전달기구를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3.12.29.)해 '재외동포 친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의 이런 노력과 인천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 기관인 재외동포청과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이것은 곧 인천시가 활력 넘치는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가 모국에서 중심점을 이루고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5년 인천 방문의 해는 바로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뭔가 달라진 인천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재외동포들도 참여하는 축제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축제의 장을 만들 것인가?

먼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한 주최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조성 기본계획(2024~2028)'과 '기본계획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를 살

퍼보았다. 주요하게 인천시만의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궁금했다. 기본계획은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착지원, 소통화합, 인권존중, 정책참여'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4개 영역 56개 세부과제 (신규 15개, 확대 5개)를 5년간 총예산 663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관심이 간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기획과에서 주관하는 'IFEZ 글로벌센터' 운영과 인천시 디아스포라유산과에서 주관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운영이었다. 두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인천시만의 특성을 살린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외국인친화도시TF추진단 운영을 신규로 진행하는 계획과 2024년 5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때 외국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갖는 행사도 눈에 띄었다. 또한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최도 신규로 추진되어 이번에 개최되었다.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에는 그래도 축제만한 것이 없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5월 달 열리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고, 고려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가 눈에 띄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통상적인 비슷비슷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천시의 경우도 사업비 3천5백만원 정도 규모였다. 인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2025년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5일 재외동포와 시민, 외국인이 함께 하는 대규모 '세계한인-디아스포라의 날 시민축제'를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개최해 봄이 어떨까 제안하는 것이다. 인천시에 걸맞는 축제가 아닐까.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도 잘 조화를 시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면서 효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안을?

먼저, 세계한인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세계한인의 날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20만 재외동포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키고 한민족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10월 5일로 지정되었다. 세계한인의 날은 지금까지 줄곧 4일 저녁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치러오고 있다. 국내에서 시민과 재외동포,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의 마당은 열리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사회에서 10월달은 '재외동포의 달'이라고 부른다.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이고 그 사이에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해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단체 인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 때를 기해 동포단체, 동포연인단체들도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천절을 기점으로 10월 9일 한글날까지 기간을 '세계한인 주간' 또는 '재외동포 주간'으로 정하고 K-콘텐츠를 결하여 재외동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계획하고 시민사회, 국내외 재외동포단체,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계문화가 어울리는 축제 마당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지 않나 반문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 행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열고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 역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날을 기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크고작은 세계인의 날 기념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우리 전통문화가 중심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출신 국가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함께 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세계인의 날 문화행사를 보면서 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중국동포의 경우이다. 중국동포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중국에서는 '조선족'으로 불린다. 중국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유지해 온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 통한다. 전통복장에서부터 노래, 춤, 악기 등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선족 전통문화'라며 문화유산 지정은 하고 나와 한중 국민 간에 문화충동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에서 다문화 관련 활동과 행사에 가보면, 중국동포들이 중국의 전통복장이라고 하는 '치파오'를 입고 무대에 서야하고 중국춤을 추고 중국노래를 불러야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사 주최측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동포들이다. 역시 각 지역 행사장에 가보면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다. 지금은 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다소 다른 분위기일 수 있지만, 아직도 중국동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본다.

중국동포들은 다문화 행사장 등에서 중국 조선족으로서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중국인으로 보여지다보니 정체성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조선족은 동포가 아닌 중국인이다 하는 반정서가 한국사회에 팽배해지고, 한국에서 중국동포들의 처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에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한때 우리가 왜 다문화인가? 하며 반발하며 동포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한국사회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동포는 80만에 이른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 외국인은 127,545명(등록외국인 85,049, 거소신고자 42,496) 이중 중국동포는 47,471명(등록외국인 19,417, 거소신고자 28,054)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37%를 차지한다.

중국동포는 동포 배우자가 아닌 중국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동포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중국국적 등록외국인 12,443명을 포함해 생각해야 된다. 그럴 경우, 중국동포 커뮤니티는 59,914명으로 인천시 체류 외국인 전체의 46.9%를 차지한다. 참고로 중국동포의 경우 거소신고자가 아닌 등록외국인의 경우는 영주자격(F-5)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가 대부분이다.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부평구이다. 이 지역의 중국동포는 2만명 정도(등록외국인 8천여명, 거소신고자 1만1천명) 되며 중국인 배우자 등 동반가족과 중국인까지 포함하면 2만3,500명 이상 될 것이다. 반면 연수구는 고려인동포들이 8천여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동반 가족까지 합하면 2만명 정도의 고려인동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체류

자격의 특징을 알고, 동포 집거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인천시의 중국동포 집거지는, 고려인동포가 집거지하고 있는 함박마을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부평역-백운역-동암역 부근(부평구), 주안역 부근(미추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동포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해 있고, 대표적 인 차이타운이 있는 인천시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때 과연 인천시민들이 중국동포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도록 하느냐 하는 점이 인천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세계한인-디아스포라 축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대효과

1. 외국인친화도시, 재외동포 친화도시를 천명하고 나온 인천시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2. 세계인의 날 축제와는 달리, 우리의 전통문화 K-문화를 알리고 세계 각국의 문화와 공존하는 문화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인천시민들과 재외동포의 동질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한민족, 동포라는 공감대가 문화축제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한데 어우르는 것이다. 관련 기업체의 참여유도와 관심으로 홍보효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이 되리라 본다.

법적 근거

재외동포기본법 제15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천절부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글날까지 1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 이민에서 사회통합으로 분위기 전환 필요

토론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들어가며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제기됐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중국-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했고, 그래서 인천시민들은 재외동포청 소재지에서 해답을 찾았다. 수도 '서울'이란 상징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증폭될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할 대안적 소재지로 '인천'을 제안한 것이다.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란 역사성 등을 알려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의 유치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고, 지난 4월에 수립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2024~2028)'을 실행하기 위해 2025~26년 2년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이 780만 명의 재외동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역할에 대해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행히도 인천은 디아스포라의 역사성과 지경학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등 공공외교 정책 실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25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선 인천시가 발표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2024~2028)'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요 지

□ 수립근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 「사회혁신과제 관리계획 통보」(사회혁신담당관-4376(2022.12.7.))

□ 외국인 친화도시 개념 정립

- 외국인과 내국인이 화목하게 어울리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 비전 및 정책목표

- ▷ 비 전 :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인천
- ▷ 정책목표
 -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상호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 외국인 인권까지 존중사회
 - 정책참여 활동기반 강화

□ 정책영역별 추진과제

- ▷ 4개영역 56개 세부과제 (신규 15개, 확대 5개)

정책지원	21개 사업 [신규 5, 확대 2]	지역사회적응 필수역량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17개 사업 [신규 7, 확대 1]	내-외국인 어울림의 장,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등
인권존중	11개사업 [신규 1, 확대 2]	외국인 인권존중, 이주배경 아동 성장 지원 등
정책참여	7개 사업 [신규 2]	소통하는 외국인행정체계구축, 외국인 참여 활성화

□ 재정계획 : 5년간 총예산 663억원

인도별 예산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액	66,347	17,695	11,232	11,508	12,802	13,110
정책지원	14,425	2,323	2,461	2,501	3,545	3,595
사회통합	25,805	10,503	3,704	3,785	3,866	3,947
인권존중	25,284	4,737	4,899	5,049	5,213	5,386
정책참여	833	132	168	173	178	182

인천시 기본계획에는 발제자가 제안한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별 추진계획과 재정계획 등으로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인천시의 의지로,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발

제자의 결론처럼 '한국의 다문화 민족국가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소통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지향적 비전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2025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몇 가지 의견을 제안코자 한다.

(1) '노동' 이민에서 사회통합으로 분위기 전환 시급

- 국적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자격을 갖춘 체류 외국인은 지역 내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 전환

- 노동이민자의 생계유지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리·의무 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기본 단위는 지방자치단체 이기에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함.

(2) 인천이 재외동포의 교류 장(場)이자 동북아의 허브 소임을 수행을 여건 조성

-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인천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함.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및 폐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대체입법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함.

(3) 디아스포라 도시브랜드 인천 조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 정부 차원의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공영방송은 KBS 월드 라디오(대한민국 유일의 대외홍보 외국어 전문방송), KBS 월드(국제위성방송서비스 채널), KBS 한민족방송(대북방송이자 한국어 국제방송) 등 있음.

- 재외동포청이 개칭한 만큼 한국의 다문화 민족국가 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와 재외동포 사회 간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화돼야 하고, 인천의 역할도 찾아야 함.

(4) 외국계 한국인, 한국계 외국인 대상 '디지털 인천 시민권' 전략 (시민 제안)

- 인천을 알 수 있도록, 원하는 재외동포에게 멤버십 개념의 '디지털 인천시민권'을 주는 전략. 실제 시민권과는 상관없는 멤버십 개념의 마케팅 전략.

- 디지털 인천시민권을 통해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통해 디아스포라 참여 유도, 특별한 소속감 제공 통해 인천 인식 재고, 수익 창출 통한 프로그램 운영비 조달, 감성적 마케팅 가능성 개척 등의 효과를 기대함.

디아스포라(Diaspora) 성지(pilgrimage), 모국(母國) 대한민국 인천, 인천관광이 그 길을 만들다

토론자 손해경
재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디아스포라 시작, 모국 대한민국 인천

인천은 근대 이민의 출발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세계 각지로 나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약 730만(21년 외교부 통계) 재외동포의 뿌리와 같고 심장과 같은 고향 도시다. 또한, 재외 동포청이 위치한 300만 명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국제적으로 디아스포라와 깊이 연결된 상징적인 장소이기도하다. 한편, 디아스포라 인천이민자는 경기도,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인천전체 인구의 4.9%에 해당된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외국인친화도시 인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공고히 하였고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디아스포라 행보를 시작하였다.

특히, 인천은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2024~2028)' 수립(24년 4월)의 실행의 일환으로, 2025~2026년 2년간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디아스포라 '외국인 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2028년까지 약 660여 억 원을 들여 외국인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한인 타운에서는 아무도 샘을 한국인으로 보지 않았다. 맨해튼에서는 아무도 샘을 백인으로 보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샘은 '백인 사촌'이었다. 뉴욕에서는 '중국인 꼬마'였다. 그래도 K타운에서 샘은 난생처음 자신이 한국인임을 실감했다. 아니 좀 더 꼭 집어 얘기하자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꼭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중립적인 사실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다. 그 깨달음이 샘에게 진지한 자의식을 심어주었다. 웃기게 생긴 혼혈 꼬마는 세상의 언저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존재할 수도 있었다.(134~135p)

위는 개브리얼 제빈의 소설『내일 또 내일 또 내일(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2022) 속 인용이다. 샘이 한인타운에서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경험하는 일은 그의 정체성에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 다행히 소설 속 '샘'은 뿌리(Roots)에 대한 자의식이 자기비하나 상실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게임 제작을 통한 멋진 결과를 얻는 것으로 디아스포라 제빈은 소설의 끝은 맺는다. 이처럼 다수의 디아스포라 해외한국인은 정체성(Identity)과 소속감(Belonging)에 대한 깊은 고민 또는 혼란을 경험할 것이다.

작 가: 개브리얼 제빈(한국인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_하버드 영문학과 출신)
주인공: 샘(한인타운에서 피자 가게 운영하는 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한편,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인 1902년, 생계의 수단으로 또는 이미 중산층 이상의 교육과 풍요로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나 하와이로 이민을 가야 했던 이주노동자들부터, 개인의 사정에 의해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이민 간 수백만의 재외 동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늘 고국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타국의 국적을 갖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2대, 3대로 내려갈수록 대한민국에는 아무 연고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다.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재외 동포들과 그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뿌리를 잊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자랑스러움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며, 해외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고향에 나의 존재를 남겨 두었다'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지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절실하다.

디아스포라 성지 인천, 관광(觀光)으로 빛나다

"물을 보면 보여. 빛에서도 보이고, 어디서나 보여.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면."(284p)

개브리얼 제빈『내일 또 내일 또 내일(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2022)

관광(觀光)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성덕(盛德)과 광휘(光輝)를 보는 것 또는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이다. 즉, 찬란하고 훌륭한 타국의 문화와 문명을 통하여 그 나라 임금(리더)의 덕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여행이나 관광을 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재외동포들의 혼과 뿌리(조상) 찾기와 정체성 체험

을 위한 관광활동 일환으로, 먼저, '디아스포라 인천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전략적 방안으로,

첫째, 한국 내, 친. 인천을 찾기 어렵고 조상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성공한 이민 3, 4세대들의 'WHO AM I'에 대한 혼란한 정체성에 의미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바이오적인 관점에서의 DNA 확인의 관광소비활동 공간으로서 인천을 디아스포라 성지로 인지도시킨다. DNA에는 유전자(세포>핵>염색체>DNA>유전자)가 담겨져 있고, 유전자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유전적 요인(성적, 병적) 즉, '가족력'이 남아 있다. 가족력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DNA이므로, 자신들의 DNA를 보존하기 원하는 디아스포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DNA 검사 및 보존 유무를 결정하게 한다. 이러한 체험은 디아스포라 재외동포에게 '인천은 나의 조상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 전달과 함께 모국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 '디아스포라 성지 인천'이 될 것이다.

둘째, '인천으로부터 시작된 이민의 역사'라는 스토리를 가진 인천의 중요 관광자원인 월미도 소재의 '인천 이민사 박물관'의 활용 극대화다. 단순한 관람하는 정형화된 DNA에서 탈피하여 정체성을 체험하는 의미적 관점에서의 성지DNA 공간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셋째, 인천의 과거 속 현실에서의 염원을 담은 사회적·종교적 목적의 생활 축제 '풍어제' 체계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및 일체감 향유를 통한 디아스포라 성지 명소화 전략의 병행도 중요하다.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축제 기간 중에 상상 플랫폼 공간의 문화체험, 인천의 향토음식 만들기 체험, 섬 생활체험, 개항장 일대를 배경으로 한복 입고 촬영하여 SNS 업로드 홍보 콘테스트 등 다양한 매력적인 관광활동을 통한 인천에서의 좋은 기억을 하게 한다. 축제는 인간의 유취적 본성을 문화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서 예술적, 사회 통합적, 종교적 기능을 하며 인간본연 가치의 재발견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삼바축제

유사 사례를 보면,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묻힌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출처: 인천광역시

컴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la)성당을 방문하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순례길' 여행은 여행자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성찰·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기 위하여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할 여행지로 버킷 리스트에 두는 곳이다.

영국의 인도인 디아스포라는 영국에서의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 국가적으로 겪는 이중적 혹은 다중적 정체성의 불안정에 대한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모국 인도를 방문을 한다. 이들은 영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 및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문을 같은 차별과 소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및 고유 문화 유지를 위하여 모국방문소비를 기꺼이 한다.

다음으로, 세계 최초의 “재외동포 전용 헤리티지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 뷰어(Smart View) 시스템” 및 “사진, 영상 보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인천에서의 모든 활동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향유 하게 한다. 재외동포 전용 시스템에 ‘가정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 하고, 해외 어디에서든, 재외동포 본인들이 직접,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게 한다. 올려진 사진과 영상은 영원히 보존되어, ‘재외동포 헤리티지관’ 방문 시, 언제든지 사진과 영상들을 찾아보고 추억할 수 있다.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 가정에서도 후손들에게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각 세대 조상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확인 가능하게 한다.

향후 메타버스, 3D, VR 등의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부모나 조상을 만날 수 있는 간접체험을 인천방문의 직접체험으로 연계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뿌리는 찾고 체험하는 “디아스포라 성지 인천” 인천관광 활성화를 제고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방법의 소통채널로서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떤 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를 통하여 인천은 명실공히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인천’의 긍정적 디아스포라 도시 이미지가 확립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브랜딩 전략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세션 2



[세션 2]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브랜딩 전략

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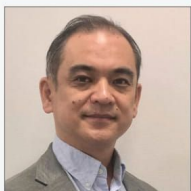


김상훈

패널



박주성



나오히라 요시미츠



이효종



히태윤

좌장	김상훈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토론자	박주성 기호일보 정치부장
	디아스포라와 미디어
	나오히라 요시미츠 오사카 마이니치 방송국 본부장
	인천시, 한국어능력시험 도입을 통한 디아스포라 도시 구축 필요
	이효종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PD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히태윤 애드아시아2023서울 사무총장

디아스포라와 미디어

토론자 나오히라 요시미츠
오사카 마이니치 방송국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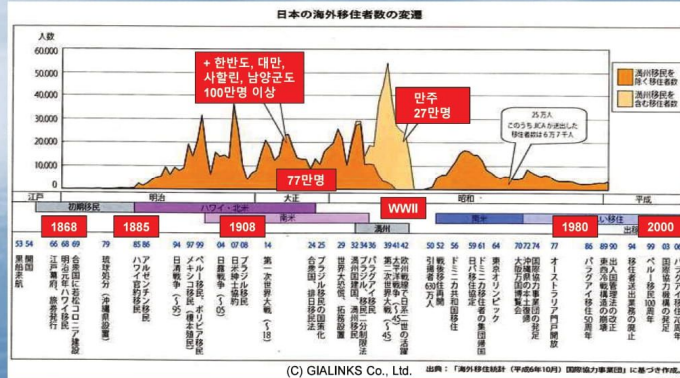
일본인 이민의 역사

•**정부알선이민기 (1868년~1924년)**: 정부의 알선에 의한 집단 이주가 중심이었습니다. 주요 이주지는 하와이, 미국 본토, 캐나다, 브라질, 페루 등이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자유이민기 (1924년~1941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일본에서의 이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민자 수는 감소했지만,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이주가 증가했습니다. 이주지는 중남미나 만주, 한반도, 대만 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후이민기 (1952년 이후)**: 전후의 혼란이 수습되고, 다시 해외로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이주지는 북미,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주의 목적도 취업, 결혼, 유학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이민의 역사



해외 이민자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1.정보 및 연결:

● **뉴스 및 시사:** 미디어는 이민자들에게 뉴스, 법률, 규정, 문화적 규범 등 **거주 국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모국과의 연결:** 미디어를 통해 이민자들은 모국의 뉴스, 문화 콘텐츠, 행사 정보에 접근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정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2.문화 및 정체성:

•문화 교육:미디어는 이민자들에게 **거주 국가의 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보존:미디어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통과 언어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 THE ASSOCIATION OF NIKKEI & JAPANESE ABROAD

해외 일본인 이민자를 위한 지원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

- 일본 지역 사회를 위한 자원 봉사
- 일본 학교 지원
- 재해 구호 및 복구 지원
- 해외 이주 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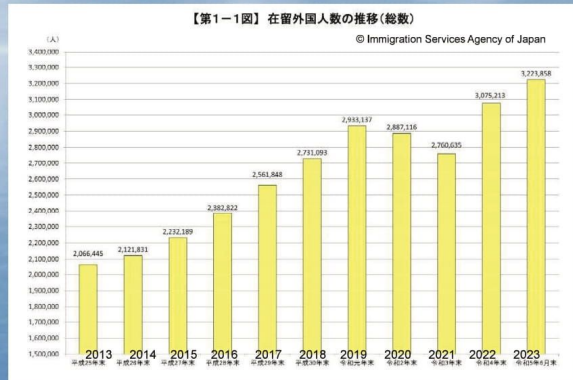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

<https://www.jpf.go.jp/e/>

-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 일본어 교육
-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구축



일본에 거주하는 이민자



일본 국내 이민자를 위한 지원

정부 지원:

외국인체류지원센터 (FRESC): FRESC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자 및 거주 문제, 취업 지원, 사회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합니다.

출입국정보센터: 이 센터들은 출입국 절차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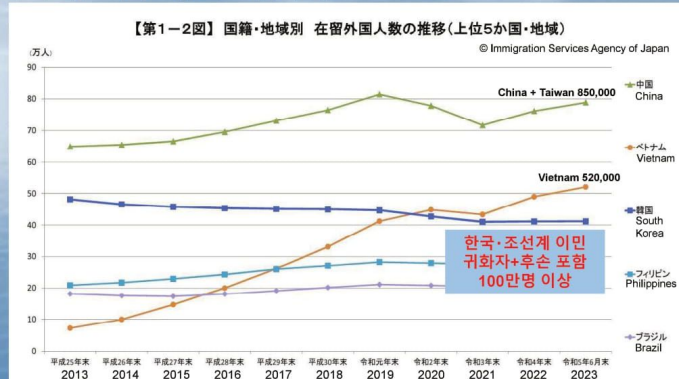
재정착지원프로그램: 정부는 난민에게 일본어 교육, 취업 알선, 일본 생활 적응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민간 단체 지원:

일본국제사회사업단 (ISSJ): ISSJ는 난민과 이주민 가족에게 의료, 교육, 사회 통합 지원 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NGOs: 다양한 NGO들이 이민자들에게 언어 수업, 법률 지원, 커뮤니티 구축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이민자



일본 국내 이민자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정보 및 인식:

-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대중 매체는 일본 사회, 문화, 법률 및 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미디어는 또한 이민자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더 넓은 일본 사회에서 공감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축 및 문화적 연결:

-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미디어는 개인의 출신 문화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미디어는 또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더 넓은 시청자/독자들에게 이민자의 기여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권 계몽:

- 미디어는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

- 미디어는 이민자와 더 넓은 일본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문화 간 이해와 상호 작용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가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고정관념을 없애고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한국어능력시험 도입을 통한 디아스포라 도시 구축 필요

토론자 이효중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PD

재외동포들과 글로벌 인재들을 인천으로 모으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그동안 한민족 이주사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많은 재외동포들이 인천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인천에 관심을 갖는 많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특히 한국어 교육과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주로 학문적 목적에 맞춰져 있으며, 유학생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어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재외동포나 글로벌 인재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시가 재외동포와 글로벌 인재들을 위해 별도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 한국어의 글로벌 위상과 교육 필요성

한류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실생활에서 필요한 회화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학문적 언어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비즈니스, 문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모국어를 배우는 데 대한 관심이 크며, 이들의 뿌리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합니다.

현재 TOPIK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TOPIK은 주로 읽기, 쓰기, 듣기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회화 중심의 120개국 780만 명의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한국어 시험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인천시 주도의 한국어 능력시험 도입 필요성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은 TOPIK이 대표적이며, 이 시험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법과 독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하거나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생활에서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회화 중심의 한국어 시험을 개발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앞장서야 합니다.

인천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 TOEIC이나 IELTS와 같이 실용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재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이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통해 비즈니스나 일상 생활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재들이 인천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은 단순한 도시 이상의 글로벌 언어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3. 회화 중심의 한국어 시험 필요성

한국어 회화 능력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

활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TOPIK은 주로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대화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TOEIC Speaking, IELTS Speaking, TOEFL Speaking과 같은 시험들은 영어 구사 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말하기 중심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회화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한다면,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 관광,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 지문과 문제은행의 지문 등은 인천시의 문화, 역사, 철학, 관광, 유적지 등이 포함된다면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4.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시험 도입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어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인천시의 글로벌 언어 교육 허브로서의 비전

인천은 이미 글로벌한 도시로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들에게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천이 글로벌 언어 교육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시험 도입뿐만 아니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교육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인천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재외동포와 글로벌 인재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단순히 재외동포들을 위한 도시를 넘어,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언어 교육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인천에 모이고,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 글로벌 한국어 도시로의 변모 필요성

이제 인천시는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도시로서 글로벌 영어도시가 아닌 글로벌 한국어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글로벌화의 시대에 많은 도시들이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글로벌 한국어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은 단순히 외국인들이 영어로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배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영어도시에서 글로벌 한국어도시로의 변모 필요성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영어에 의존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인천에 와서 영어로 모든 서비스를 받고, 인천 시민들이 영어로 대담하는 것이 과연 인천과 한국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방법일까요?

이제 인천은 글로벌 한국어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1분 내에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통해 인천에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천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외국인들이 1분 안에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인천에 도착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공항에서 내리거나,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장벽은 한국어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영어 메뉴판을 보고 주문 하지만, 이 과정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경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이 도착한지 1분 만에 한국어로 된 메뉴를 읽고 주문할 수 있도록 영문 발음 표기를 병행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스스로 한국어를 말하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어 발음기호 시스템: 한국어로 된 메뉴판, 길 안내판, 서비스 안내 등에서 영어 발음기호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식당에 들어와 불고기를 주문하려 할 때, 메뉴판에 “bulgogi”라고 발음 기호가 적혀 있다면,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어 발음을 읽어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체험: 인천시가 주도하는 1분 한국어 체험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에게 기초 한국어 발음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회화 표현이나 한국어 주문 문구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재미를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가나다라를 통해 2시간이면 금세 언어를 발음하도록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3. 한국어 발음 표기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

글로벌 한국어도시로서 인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발음 표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처음 만나는 모든 표지판, 서비스 안내 등에서 한국어 발음과 함께 영어 발음 기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직접 읽고 발음하는 경험을 하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TOEIC, TOEFL, IELTS와 같은 다양한 한국어 시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처럼, 인천시는 한국어 발음 체계를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인천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어 발음 앱이나 발음 가이드 웹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한국어 발음을 익힐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 콘텐츠: 인천은 한국어 발음을 돕는 영상 콘텐츠, 튜토리얼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인천에 오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한국어 발음을 익히고, 현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한국어가 앞으로 30년 후 세계적인 5대 언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글로벌 한국어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인천이 글로벌 한국어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려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영어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경험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을 넘어, 문화 교류와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 한국어 경험 제공: 인천시는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식당, 카페, 상점에서 한국어로 주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사용의 즐거움을 알리며,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학습을 위한 인프라: 인천시는 한국어 학습을 위한 언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 학습 센터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인천은 글로벌 영어도시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한국어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1분 안에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어 발음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영문 발음 표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토론자 허태운
애프로아시아2023서울 사무총장

I. 전략적 목표

- 코리아 디아스포라 중심 도시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천의 브랜드 위상 강화
- 최초의 이민 출발지, 최대의 해외이민자수, 동아시아 허브 인천공항의 전략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디아스포라 인천 브랜드 자산화

디아스포라 중심도시 브랜딩을 위한 실행 목표

1. 디아스포라도시의 과거-위대한 유산(과거)

- 소박한 시작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수 많은 한국인들의 영광스러운 출발점
 - 세계화가 한 마디로 언급되기 오래 전부터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출발점.
 - 당연히 이제 도시는 이 송고한 출발의 역사를 활용하여 한인 이민의 정서적 요량으로 자리 매김해야 함
- #### 전략적 가이드
- 도시 사람들이 남긴 모든 길을 보여주는 것보다 도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 이는 관광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이 도시가 어떻게 글로벌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 했는지를 상기.

2. 최대의 이민자 도시(현재)

- 국내 최대 외국인 인구유입, 비교할 수 없는 매력과 편리함을 고려하면, 인천이 외국인 입국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 #### 전략적 가이드
- 다문화 통합 촉진: 디아스포라 도시로서 인천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강조

- 다문화주의의 정점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인천이 얼마나 환영 이들을 환영하는지를 각인
- 디아스포라 축제: 이벤트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친화도시 프로그램을 알리는 디아스포라 축제, 축하 행사, 비즈니스 교류
- 이는 지역 및 국제적 참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행사 기간 동안 도시가 디아스포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

3. 디아스포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미래)

-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중심지
 - 인천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연결의 중심
- #### 전략적 가이드
- 글로벌 네트워킹 허브 구축:
 - 인천은 디아스포라 행사, 정상회담, 컨퍼런스가 열리는 최적의 장소
 - 국내 최고의 디아스포라 글로벌 네트워킹 허브조성

II. 디아스포라 도시브랜딩-실행 전략

1.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상지로서 인천의 유산

전략적 아이디어: 글로벌 문화유산 허브 구축

- 사례 연구: Ellis Island(미국 뉴욕), Pier 21(캐나다 핼리팩스)
- 이들 이민 센터는 해당 국가의 이민자들의 역사를 기릴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문화 및 교육공간
- 기존 일미도의 이민사 박물관의 Re-brand ing
- 인천에는 대화형 전시, 디지털 타임라인, 개별 이민자

- 이야기 아카이브를 갖춘 한인 디아스포라 문화유산 센터
- 센터는 단순한 이민의 역사를 강조하기 보다 글로벌 사회에 대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기여를 강조
 - 인천과 해외 동포 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를 조성필요

대안적 아이디어

- 인터랙티브 뮤지엄: 가상현실 (VR)을 접목해 방문객들이 한인 이민의 역사적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리빙 아카이브: 전 세계 한인 후손들이 가족 이민 이야기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저장소를 만들어 인천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 문화축제 및 전시회: 한인 정착국의 예술, 영화, 음식 등을 선보이는 국제 디아스포라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문화교류를 강조

2. 외국인 친화도시로서 인천의 역할 수용:

- ##### 전략적 아이디어: 외국인 정착자 중심으로 한 다문화 통합 촉진
- 사례 연구: 서울의 글로벌 빌리지 센터, 헤이그 국제 지역(네덜란드) 서울과 헤이그 같은 도시는 단지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문화 인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역 사회에 통합
 - 인천에서는 재발견과 이주에 대한 문화적 스토리 외국인 입국자들을 축하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

- #### 구체적인 아이디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명판 및 기념관: 영향력 있는 한인교포를 기념하는 명판이 있는 "디아스포라의 벽"을 설치
- 외국인 통합 프로그램: 맞춤형 비즈니스 및 소셜 네트워킹 이니셔티브를 제공하여 전문성 개발 및 문화 재통합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
 - 문화 교류 및 멘토십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글로벌 경험을 현지인들과 공유하고 상호 학습과 감사를 촉진할 수 있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구축.

3.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포지셔닝

- #### 전략적 아이디어: 인천을 디아스포라 글로벌 네트워킹 허브로 육성
- 사례 연구 영감: 글로벌 컨퍼런스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기술 및 비즈니스 서밋을 위한 설리콘 밸리(미국)
 - 싱가포르가 글로벌 이벤트와 컨퍼런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인천도 인프라(국제공항과의 근접성, 파라다이스시티 등)를 활용하여 디아스포라 관련 정상회담 및 포럼의 중심지로 육성
 -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기업가, 학자,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 서밋을 구축

구체적인 아이디어:

- 디아스포라 서밋 및 네트워킹 이벤트: 기조 연설, 디아스포라 중심 워크숍 및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가 포함된 연례 디아스포라 서밋을 개최
-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성공적인 해외 한인 기업가와 비즈니스 리더가 현지 기업과 투자자를 만나 국경 간 기회를 육성할 수 있는 정기적인 라운드테이블 이벤트
- 디지털 통합 플랫폼: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구성원을 연결하고 리소스, 업체 목록,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는 디지털 허브를 구축
- 이는 물리적 컨퍼런스를 넘어 연중 내내 가상 글로벌 네트워킹을 가능

4. 디아스포라 도시 브랜딩을 위한 미디어 전략

전략적 아이디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전달

- 사례 연구 영감: 코펜하겐의 '세계 최고의 도시' 캠페인, 암스테르담의 '아이엠스테르담'
- 인천은 매력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디아스포라 성공 사례를 강조
- 성공적인 도시 캠페인을 바탕으로, 글로벌 한인들이 귀국하고 번영하는 도시인 인천을 묘사하면서 세계

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중점

구체적인 아이디어:

- 다큐멘터리 시리즈: 성공한 한인 디아스포라 회원들의 프로필과 인천에서 해외로의 여정을 소개하고 그들의 글로벌 성취를 도시와 연결하는 웹툰 시리즈 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 디지털 홍보대사 및 인플루언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유명 인플루언서 및 유명인과 협력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인천을 홍보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IncheonRoots #ReturnToIncheon과 같은 해시태그 활용

-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튜브채널: 한인 디아스포라의 유명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토론 하는 유튜브 채널 개설

5.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가치 창출:

전략 아이디어: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혁신 센터

- 사례 연구 영감: 토론토의 MaRS Discovery District(캐나다),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인천시는 기술, 엔터테인먼트(K-pop, K-POP, K-POP, K-

POP, 드라마), 그리고 고린 에너지.

구체적인 아이디어:

- 디아스포라 투자 프로그램: 재외동포의 인천 기반 스타트업 투자를 독려하여 특별 인센티브나 현지 기업과의 공동 투자 기회를 제공

-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Diaspora Business Accelerator): 귀국 한인이나 디아스포라 연줄이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특별히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멘토링, 종자 자금 및 사무실 공간을 제공.

- 경제개발구역: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업 벤처를 장려하는 경제특구 또는 디아스포라 투자 기금을 조성.

III. 결론

- 미국 엘리스 아일랜드 등 성공적인 도시 브랜딩 캠페인, 싱가포르 컨퍼런스 전략, 코펜하겐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인천은 전략적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과거를 기리고, 귀국자들을 포용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을 통한 디아스포라 콘텐츠창출

- 이를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서적, 경제적 요량으로 Re-branding가능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세션 3

[세션 3]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좌장



이진영

패널



정현주



류동익



임채완



송덕진

좌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토론자	한국의 다문화적 전환과 재외동포의 현황 및 역할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슈센터 센터장
	가족의 중요성과 입양인들의 가족찾기 권리의 제한
	류동익 네덜란드 카톨릭방송국 특파원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현황과 발전 전략
	임채완 세계디아스포라학회 회장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좌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I. 디아스포라의 어원과 개념 변화

1. 디아스포라와 이민자의 어원과 정의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 '디아'(δια, 흩어지다)와 '스페이로'(σπείρω, 씨를 뿌리다)에서 유래된 단어로, 원래는 모국을 떠나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민(移民)은 '벼 화(禾)', '많을 다(多)', '백성 민(民)'으로 이루어져,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디아스포라는 전반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이주민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2.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변화: 세 가지 단계

- 고대 그리스의 지중해 식민지 개척: 초기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의 식민지 개척을 반영하여 자발적 이주를 의미했습니다.
- 추방과 유랑: 바빌론 포로기와 유대인의 전 세계적 이주는 디아스포라의 어두운 측면을 대표합니다.
- 현대의 글로벌 이주: 경제적 이유와 전쟁 등으로 인해 많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으며, 한인 디아스포라도 그 일례입니다.

3. 글로벌 이주의 시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은 해외에 이주해 있으며, 디아스포라는 각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이유로 이동하며, 그들의 이동은 모국과 이주국 모두에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거주국과 모국사이에서 역동적인 글로벌 행위자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II. 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관계

1.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주목하는 모국들

현대의 디아스포라는 과거와 달리 모국과 긴밀한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로 이민자들은 지속적으로 모국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디아스포라의 주요 기여 영역

- 경제적 기여: 송금
디아스포라는 모국에 송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송금액은 약 6,690억 달러로 ODA(2,040억 2022년)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
많은 디아스포라 기업인들이 모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본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술과 지식의 이전
디아스포라 출신의 전문가들은 기술과 지식을 모국에 전파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화 및 사회적 기여
디아스포라는 이주국과 모국 간의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며, 고향에 대한 기부와 자선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술의 발달은 이민자들이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민자들은 모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체성이 모국과 단절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결성 덕분에 디아스포라들

은 이주국과 모국 사이를 찾는 방문으로 오가며 두 나라에 동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동시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국가들의 디아스포라 정책

각국은 디아스포라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이민자를 위한 비자 및 영주권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중국: 화교를 대상으로 한 '해외 귀환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리턴법'을 통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이들 국가도 디아스포라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II. 한국의 해외 한인과 기여와 제도

한국의 디아스포라 형성 역사는 크게 구이민과 신이민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과정에서 해외 한인들의 모국 기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인천시는 해외한인에 주목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 구이민 (과거 이민)

1860년대~1900년대 초반:

첫 번째 단계는 1860년대부터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입니다. 이후 1902년 국가의 정책에 따라 노동이주로 하와이와 멕시코 등지로 이동한 한인들이 포함됩니다. 이 시기의 이민은 주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이동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

두 번째 단계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과 만주 등지로 이주한 한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경제적 착취와 강제노동으로 인해 본국을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세 번째 단계는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환 이

민과 이후 발생한 한국전쟁에 따른 이산가족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의 여파로 가족들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거나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2. 신이민 (현대 이민)

1964년 해외이주법 이후:

네 번째 단계는 1964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농업 이민, 독일로의 광부 및 간호사이민, 일본과 미국으로의 가족 이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남미, 독일, 미국 등지로 이주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1991년 탈냉전 이후:

다섯 번째 단계는 1991년 탈냉전 이후로, 투자 이민과 조기 유학, 중국 동포들의 한국 이주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경제적, 교육적 기회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2010년 이후 고려인과 은퇴자, 청년들의 귀환 이주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주와 귀환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대표적인 기여 사례들입니다

독립운동 기지로서의 역할

해외 한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미국, 중국 등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 독립운동을 조직하는 등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미국 서부에 있던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등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제적 기여

재일동포들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60년대 구로 산업공단 개발 시기에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들이 투자하고, 송금을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재일동포들은 대규모 송금을 통해 한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송금과 투자는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미동포의 두뇌 기여

재미동포들은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에 두뇌 기여를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던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과학기술 및 의료,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IT 산업과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기여가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해 한국의 산업과 학문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재중동포의 노동 기여

재중동포들은 1990년대부터 한국으로 이주해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3D 업종(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업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기여는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인 정체성 유지를 통한 문화적 기여

해외 한인들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 문화와 전통을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글학교와 한인회 등을 통해 다음 세대에 한국어와 문화를 전수하며, 한국과의 문화적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유지는 해외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인들의 다양한 기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독립운동, 두뇌 기여, 문화적 연결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3.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도시' 인천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및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치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에 본청을 두고 인천에 재외동포청의 일부 조직을 배치한 이 기관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교육, 법적 보호,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2023년에 '재외동포 도시'로 선언되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주요 관문으로서 과거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이곳을 통해 해외로 나갔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천은 재외동포 도시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기념하여 세계한인회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며, 재외동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모국과 동포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선언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문화적 기여를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IV. 디아스포라의 공공외교에서의 역할과 발전 방향

디아스포라는 모국과 거주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그들의 활동을 통해 모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은 디아스포라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외교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국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정책 공공외교를 통해 모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 활용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국가에 걸쳐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모국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거나 국제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는 모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모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론장에서 모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경제 및 정책 공공외교에서의 역할

디아스포라는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모국의 정책 공공외교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투자, 무역, 기술 이전을 통해 모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공공외교에서는 디아스포라가 현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모국의 정책을 현지 정치권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 한인들이 미국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문화 외교에서의 디아스포라 역할

디아스포라는 문화 외교의 중요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현지 사회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 모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정치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국과 거주국 간의 외교적 협력을 촉진합니다.

4. 정책 공공외교의 도구로서 디아스포라

국가들은 디아스포라를 활용하여 정책 공공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디아스포라가 거주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면, 모국의 외교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설립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자

산으로, 그들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정책적, 경제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디아스포라의 미래 발전 방향

디아스포라의 미래는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 모국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계속됨에 따라 모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거나, 모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새로운 국가에서 단순히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다문화적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각국의 이민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며 새로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주 역사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모국과 새로운 국가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더욱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가 과거에는 새로운 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가 촉진되면서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정착민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다문화적 전환과 재외동포의 현황 및 역할

토론자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센터장

바야흐로 세계는 다민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주는 인류사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으며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상황은 그 규모와 범위, 강도 등에 있어서 인류사의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모든 세계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지금은 이주의 세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한국도 최근 이민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과거 파독 광부나 중동 건설인력 등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는 이주 송출국에서 최근에는 이주의 목적지인 수용국으로 그 위상이 급속하게 변신하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체류외국인 264만명(장기체류 199만명)으로 총인구의 5.1%가 외국인인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주의 두드러진 특징이 영구적인 정주형 체류의 증가, 노동이민의 증가로 볼 수 있다(OECD 2023). 전 세계 이주민의 최대 목적지인 OECD국가에서는 팬데믹 이후 영구적인 정주 이민자(2022년 6100만)의 기록적 증가를 보인 가운데 한 해 동안(2021-2022) 노동이주가 36% 증가했으며 가족결합 방문도 15% 증가하고 난민신청(200만)과 시민권 취득(280만)도 기록적 수치를 갱신했다(OECD 2023).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³⁾뿐만 아니라 장기체류자 및 영주권 취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그림 2).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갱신 등을 통해 영구적인 정주가 가능한 이주민을 의미하는 정주형 이주자

(permanent migrants)에 비해 한국 정부가 명명한 '장기체류자'는 91일 이상을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거소신고나 등록을 한 자들로 국한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정된 체류자격에서 변경이 어려운 자들로, 체류자격 변경과 갱신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인 정주가 가능한 국제기준의 permanent migrants는 국내에서 매우 한정적이다. 한국에서 정주형 이주자들은 소수의 전문직과 결혼이주민, 대부분 재외동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현재까지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후발이민국가인 한국의 급속한 다문화적 전환은 저숙련, 비정주형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가운데, 정주형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가 사실상 다문화적 사회통합의 일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중 재외동포는 한국의 외국인 중 가장 큰 집단이다. 재외동포 비자(F-4)는 체류자격 중 가장 큰 카테고리(2024.8월 551,579명으로 전체 체류자격 외국인의 21%) 179,602명인 결혼이민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2024년 8월 현재 영주자격 취득자 196,205명 중 139,717명이 재외동포(중국 134,388명)일 정도로 정주형 체류인구의 대다수도 재외동포이다. 144만 등록외국인(91일 이상 체류하고자 신고) 중 548,984명이 외국국적 동포이며 그 중 중국이 387,381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분포를 보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78%(427,055명)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전

3) 2023년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총 522,571명으로 그 중 전문인력은 72,146명, 단순기능인력(E-8, E-9, E-10, H-2)은 450,425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외국인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전문인력은 42.1%, 단순기능인력은 13% 증가했다. 전문인력의 급증은 비전문취업인 E-9에서 숙련직으로 전환한 E-7-4의 증가에 기인한다.

체 등록외국인의 54.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의 수도권 집중은 두드러진 특징이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자체는 경기도이며(236,673명) 그 중 안산시(45,448명) 단원구가 31,896명으로 가장 많은 재외동포를 보유한 시군구로 등장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는 147,287명의 재외동포가 등록신고를 한 가운데, 구로구(25,566명)와 영등포구(26,052명)가 안산시 단원구에 이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가 43,095명으로 대표적인 재외동포 집적지를 구성하고 있다(법무부, 2024. 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⁴⁾.

재외동포의 국적은 외국이지만 시민적 권리나 제도적 지원 등에서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준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역사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속에서 발생한 초기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역사적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을 민족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이유로 전세계로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가 가진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산을 민족적 자산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포섭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

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냉전과 탈냉전의 한 가운데서 정치경제적으로 격동의 역사를 보낸 한민족은 700만 디아스포라라는 유례없는 재외동포 자원을 가지게 되었다. 근대 이후에 형성되어 민족적, 문화적 동질감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재외동포의 존재는 한국의 다문화적 전환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 다문화국가들은 문화적, 민족적으로 이질감이 큰 집단을 수용함으로써 이후 사회통합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압축성장 끝에 급격한 저출산과 생산인구 부족으로 급속하게 이민정책을 추진하게 된 아시아 후발이민국가들은(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한국과 상황이 유사하지만 한국처럼 재외동포가 대규모로 존재하지 않거나 현지화되어 동질성이 약화되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포섭과 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⁵⁾ 한국의 다문화적 전환의 시금석은 재외동포 통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외 디아스포라에 대한 지원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국제무대



그림 1. 체류외국인 추이 (출처: 법무부, 2024.8.)

4) 2023년 공식통계는 표 1 참고

5) 일본의 경우 일계인(니케이인)이라는 재외동포가 2017년 현재 400만 정도로 추산되며 2/3가 브라질 등 남미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중 30만 정도가 일본에 귀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석원, 객재석, 2021). 일계인 중 브라질계열은 저숙련노동자로 일본에 정착하기도 했으나 한국처럼 대규모로 재외동포 집단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일계인은 혈통적으로 일본인이지만 언어나 문화, 역사적 경험 등에 있어서 본토인과 동질성이 약하며 국내로의 적극적 포섭보다는 현지화가 더욱 강조되어 왔다. 대만의 경우 중국인을 저숙련노동에 일부 활용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에서 적극적인 화교 포섭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결혼이주와 일반외국인 수용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2-5 연도별 영주자격(F-5) 증가 추세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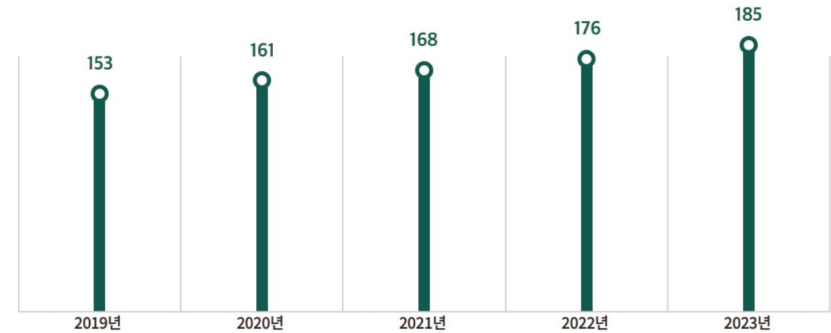


그림 2. 영주자격 추이(출처: 법무부, 2024.8.)

시도	총합계	한국계중국인	미국	한국계러시아인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총합계	533,295	376,803	47,406	33,317	17,500	27,349	13,193
경기도	229,433	175,358	14,531	13,166	5,656	11,011	4,268
서울특별시	144,388	109,758	19,742	969	7,416	784	337
인천광역시	40,932	27,012	2,302	4,792	872	2,957	1,773
충청남도	32,563	18,597	1,058	4,558	319	4,143	2,634
충청북도	16,109	9,165	572	2,669	224	2,136	697
경상남도	14,269	7,554	958	2,141	315	1,777	881
경상북도	10,281	4,773	789	1,376	227	1,396	1,207
부산광역시	7,104	2,749	1,641	1,193	590	218	78
울산광역시	6,511	5,669	197	227	91	159	91
광주광역시	6,231	1,641	422	1,051	147	1,703	738
대구광역시	5,332	2,353	968	620	326	534	241
전라북도	4,119	2,538	799	79	261	145	77
강원특별자치도	4,020	1,918	1,185	185	319	101	56
전라남도	3,948	2,796	545	137	166	124	39
제주특별자치도	3,372	2,358	567	43	179	26	10
대전광역시	3,259	1,748	872	52	292	42	29
세종특별자치시	1,424	816	258	59	100	93	37

표 1.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및 주요 국적(2023)

출처: 법무부, 2023

에서 다문화사회로 순조롭게 전환하며 발전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귀환한 동포의 정착과 인적 계발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 및 정주형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참고문헌>

- 법무부, 2024.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법무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송석원·객재석, 2021, 중국과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가족의 중요성과 입양인들의 가족찾기 권리의 제한

토론자 류동익
네덜란드 카톨릭방송국 특파원

들어가는 말

인권의 개념은 17세기 이후 서유럽의 자유주의 정치 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천부적 권리(자연권)를 부여받았으며, 기본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Locke, 1690). 세계 인권선언문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Donnelly, 2003).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규범에 따라서 부여될 수 없다고 했다(Paine, 1791).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부적, 자연적 인권을 갖는 것이라면 그 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이며(최용기, 2013).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국가와 실정법이 인정하는가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 도덕적 권리라고도 한다(이관식, 2014). 인권은 생애의 시작부터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으로 생애를 살아가는데 있어 고유한 것을 말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개개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 한다(미국권, 2016).

이처럼 인권은 인간 자체로 갖게 되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되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이며 법적 논리에 의해서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II. 입양인과 인권

(1) 가족의 중요성과 입양인들의 가족찾기 권리의 제한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단위로, 개인의 전인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환경이다. 가족은 개인

과 사회를 연결하며, ‘개인으로서의 나’와 ‘관계 속에서의 나’를 건강하게 형성해 준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가족은 한 세대를 넘어서 부모, 나, 자녀세대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가족이 행복의 척도로 작용한다. 개인적인 행복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입양인들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입양기관들이 입양인들의 친 부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입양인들은 기본적인 가족을 찾을 권리마저도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많은 입양서류가 두 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다. 한 부는 입양당시 해외로 보낸 서류이며 다른 부는 입양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숨겨진 서류(Shadow file 이라고 불림)가 있는데 이 안에는 가족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입양기관들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공개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성명과 생일을 지우고 공개하기 때문에 이 정보로는 가족 찾기에 많은 제한이 있는 현실이다.

해외입양인이 입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2012년에 만들어졌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기관이 적지 않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367건의 해외입양에서 서류 조작, 유괴, 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양기관들이 입양특례법과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친 부모 및 형제자매를 찾기 위한 법적 근거는 주로

입양특례법과 민법에 있다.

a.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제36조: 이 조항은 입양된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출생 및 입양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입양아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며, 가족 찾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b. 민법

민법 제908조: 부모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친생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입양된 아동이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c.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입양 관련 기록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도, 성인이 된 입양아는 자신의 출생 기록과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생물학적 가족을 찾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d.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7조: 이 법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양아는 자신의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기록은 생물학적 부모나 형제자매를 찾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3) 가족 찾기의 현실적인 문제점.

입양간 사람과 현재 가족 찾기를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공적문서를 대다수의 주민센터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입양인이 직접 방문하더라도 입양국으로 가서 대한 민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입양인의 신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문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입양이 되었어도 호적이 말소되지 않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입양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법에 너무 억눌려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에 많은 제한이 있다.

(4) 기타 시급한 문제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입양을 시작한 한국은 80년대 가장 많은 수의 아이를 입양시켰다. 1985년 한 해에만 9000명을 해외입양 보냈다. 이들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귀국하는 입양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귀국이 그리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해외 입양인의 쓸쓸한 마지막 길 떠날 때도 이 방인이었다(MBC 뉴스, 2024)”에서는 50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됐던 한 남성이 한국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숨진 사실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조선일보의 기사는 중년 돼 돌아오는 ‘해외 입양인’... 그들 두 번 외면하는 한국이라는 기사도 나왔다(조선일보, 2024). 위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고 한다. 대략 300~700명 정도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들 중 어떤 입양인들은 조국에 돌아와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남기 위해 혼자 외로이 분투하고 있다. 입양인 중에서는 추방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정착을 해야만 하는 입양인들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양부모가 18세때 국적을 신청해주지 않으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면 한국으로 추방이 된다. 추방당한 이들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활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

(5) 제안대책

국가 차원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입양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이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적어진다. 더불어 기존 가족 찾기 방법인 불특정인 주소지로 우편물 전송 방법에서 경찰과 협조로 은밀히 주소지를 탐문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센터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재량권을 늘려서 입양인들이 친가족 찾기를 요청할 경우 부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가족찾기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는 친가족과 연락을 취하되 친부모의 연락처를 입양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입양인의 연락처를 친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그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더불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귀국하는 해외 입양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에는 재외 동포 용 'F4 비자'를 받는데, 정부가 신청서에 '입양인' 칸 하나만 만들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입양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섯터민(탈북인)을 위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귀환한 입양인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 지난 2013년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론상 '8분의 1 고려인'도 정부가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귀환한 입양인들에게는 이러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들보다 더 열악한 법적 지위로 살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러한 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첫째로 가족을 찾지 못한 입양인이거나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DNA 저장 뱅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족 상봉을 위한 DNA검사를 홍보해서 널리 알려져야 한다. 다시 말해 DNA를 통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족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로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입양인들의 가족찾기에서 개인 정보법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해서 가족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서울보다 주거비용이 저렴한 인천시에서 입양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조성해서 더욱더 많은 입양인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조국에서 묻히고 싶어 귀환하는 입양인들도 있다. 이러한 입양인들을 위한 파주시에 위치한 엄마품공원과 같은 공간을 인천시가 마련해 준다면 입양인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위의 정책을 바탕으로 입양인들을 중심으로 국제타운을 조성해 그들과 함께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입양인들을 위한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

III. 맺는 말

발제문에서 입양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친가족 찾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였다.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입양협약에 가입을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다. 2025년 국회에서 비준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 그리고 귀국하는 입양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입양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에게서 가족, 모국어, 국가를 빼앗는 정당하지 못한 이민시스템이다.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입양은 단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양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와 공조를 통해 입양인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시 말해 입양인들에 대한 대책에는 국가에서 실행해야 하는 측면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입양인들의 공식적인 신분확인 서류를 국가가 발급해 줌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 추방되는 입양인들에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외국어 강사 채용시 우선권 부여하고 다시 귀국한 재외 동포 특히 입양인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취업교육을 통해 입양인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 인천시에서 유전자 등록 뱅크를 설립하여 DNA 검사를 통해 가족 찾기 방법을 홍보해서 더욱더 많은 입양인들의 가족 상봉기회를 줘야 한다. 귀국으로 돌아오는 입양인들에게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여 많은 입양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인천에 머무는 입양인들이 인천시와 공조로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늘려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더욱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인천시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입양인들을 시민화 과정으로 한국어와 취업 교육을 시킨 후 인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과 함께 국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인천시는 세계적으로 잠재력을 가진 국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현황과 발전 전략

토론자 임채완
세계디아스포라학회 회장

지금 우리는 '21세기 메가 트렌드'인 '초국가 이주'와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인간의 세계는 '이동의 역사'에서 시작되어 '연결의 역사'로 발전되어 왔다. '이주(migration)'와 '연결(network)'은 디아스포라의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는 연결을 통해 생존해 왔고, 연결을 통해 경계를 허물었으며, 연결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가꾸어 왔다. 인천광역시 평화의 미래 시대를 여는 초국가적 행위 주체로서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주문받고 있다.

1.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명칭과 개념

1) 국적을 기준으로 국민/비국민 또는 내국인/외국인으로 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국적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외국인 이분법에 의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함. 이들은 상당한 규모의 해외거주 디아스포라들임.

2) 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를 말함. 거주국 시민권/국적 취득 유무와 상관없이 한민족의 핏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3) 현대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 2006.).

4)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핵심 내용은 국제이주, 정체성, 글로벌 네트워크,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 등.

2. 사회문화, 경제, 미디어 글로벌 디아스포라

1) 세계화의 물결 속에 디아스포라가 유랑자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유용한 '자본'으로 개념화되면서 민족

과 경제 기반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2) 국내·외 이주를 포함한 전 세계 이주자 수는 10억여 명에 이르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여서 윌리엄 스윙 IOM 사무총장은 "이주는 21세기 메가 트렌드"라고 역설

3) 한국은 2023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2023년~2027년 기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좋은 기회임

4) 현재 구축된 민족과 경제 기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들을 사회문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다문화시대 '문화 중개자'로서 디아스포라의 가능성 모색과 방향성 설정이 요구됨

5) 초국가·초민족 사회문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사회통합체 역할과 연대를 강화하는 화합의 국제미디어 컨퍼런스를 마련하여 디아스포라 연구자, 관련 기업인, 미디어가 주축이 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총회로 확장시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국내 디아스포라 문화에 대한 논의 확대와 사회통합에 기여

6) 사회문화, 경제, 미디어 등 3개 교류 협력 축을 중심으로 분과별 아젠다 도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자, 기업인, 언론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미디어 역할과 바람직한 모델상을 도출

3. 국가별 디아스포라 현황(2003년 ~2023년)

연번	국가	디아스포라 명칭	규모	분포지역
1	중국	화교 · 화인	4,543만 ³⁾	- 동남아 : 3,300만, 전체 화교 · 화인의 73% 차지 - 북미 : 530만, 전체 화교 · 화인의 12% 차지 - 유럽 : 200여 만, 전체 화교 · 화인의 5% 차지 - 기타 지역 : 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
2	인도	인도인 디아스포라	70여개 국 2,600만 ⁴⁾	- 동남아 : 506만 - 걸프지역 : 300만명 - 북미 : 260만 - 아프리카 : 212만 - 영국 : 120만
3	러시아	러시아 디아스포라	2,500만 ⁵⁾	- 북미 : 400만 - 유럽 : 400만 - 이스라엘 : 100만
4	이스라엘	유대인	1,300만 ⁶⁾	- 미국 : 5,290,000명 - 프랑스 : 496,000명 - 캐나다 : 371,000명 - 영국 : 299,000명 - 러시아 : 244,000명 - 아르헨티나 : 185,000명 - 독일 : 112,000명
5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	175개국 708만	- 중국 : 2,109,727명(시민권자 1,893,763명) - 미국 : 2,615,419명(시민권자 1,091,596명) - 일본 : 802,118명(시민권자 390,218명) - 독립연합국가 : 420,431(시민권자 413,285) - 캐나다 : 247,362명(시민권자 147,370명)
6	일본	일제인 디아스포라	112만 ⁷⁾	- 미국 : 386,328명 - 중국 : 125,928명 - 호주 : 66,371명 - 영국 : 63,017명

4. 글로벌 디아스포라 자본 규모 추정치(2002년 ~2019년)

연번	국가	자본규모
1	중국	- 2018년 기준 화인 디아스포라 자산규모 5조 달러 - 2019년 기준 中國 GDP 14조 달러+ 5조 달러 = 19조 달러 (2019년 기준 미국 GDP 21조 달러로 1위이나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23조 달러로 이미 미국 역전)
2	인도	- 인교의 경제 규모 : GDP기준 3,000억 달러 (미국 30%, 영국 17%, 아시아-태평양지역 15%, 중동 15%) - 인교의 송금 : 세계에서 가장 많음 - 2009년 469억 달러 송금, 2005년 인도의 FD(해외직접투자) 75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인교자금
3	이스라엘	- 전 세계 유대인 경제권은 4조 8000억 달러 - 미국 연간 GDP의 60%, 이스라엘 연간 GDP의 50배 이상에 해당 -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전 세계 유동자금 140조 달러 중 83조 달러를 통제
4	한국	- 자산규모 1,300억 달러, 한국 GDP 25% 차지 - 교역: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할수록 한국과 거주국간의 교역 규모 확대 - 해외 고인 수가 100%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16%), 수입(14%) 증가 - 투자 및 자본 유입: 국내 자금 유입 51억 7천만 달러 (국내관광 포함, 2002) - 국내 송금 48억 5천만 달러 : 재외동포 관광액 31만 5천명, 소비 3억 2천만 달러 - 해외에서 선진지식과 기술습득 후 귀국 - 재중, 재러 동포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 대체효과 - 재미동포 수가 2배 증가할 경우: 미국 국민소득 0.12% ~ 0.2% 증가 예상(2003)

3) 중국화교사무판공실. <http://qwgzyj.gqb.gov.cn/yjyjt/155/1830.shtml>(검색일: 2013.09.29)

4) '위의 책', p.330.

5) 우평균(2009), "러시아의 재외동포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슬라브학보』 제24권 제1호, P.248.

6) 임재환 · 전형권(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p.330.

7) 임재환 · 임영연 외(2013), 『일제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 북코리아, p.32.

5. 국가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현황

연번	국가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
1	중국	- 온라인 네트워크 : 세계화상망(WCBN), 세계화상축진협회, 세계결출화상협의회 등 - 오프라인 네트워크 : 세계화상대회, 싱가포르중화총상회 1991년 창립, 홍콩중화총상회, 태국중화총상회 등, 세계화상대회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홍콩, 태국, 캐나다, 호주, 중국
2	인도	- 온라인 네트워크 : 세계인도인협동기구(GOPIO) 등 - 오프라인 네트워크 : 세계 주요 68개
3	이스라엘	- 온라인 네트워크 : WJC(세계유대인총회), WZO(세계시오니스트), JA(유대인협회) 대표단체: WJC 유대인의 권리, 안녕과 안전을 수호, 유대 커뮤니티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 유대인과 연관된 이슈에 관한 범정부 및 법적 가적인 행동, 전 인류의 평화, 자유, 정의를 기반으로 협력을 목표로 활동 - 오프라인 네트워크 : 미국 American Jewish Congress, American Jewish Committee, 캐나다 Canadian Jewish Congress, United Israel Appeal, www.aijac.org/policypublications 등
4	한국	- 온라인 네트워크 : 한상넷, 코리안넷 등 각 분야의 재외동포기업가(무역인, 상공인, IT벤처, 법조인, 과학자 등)를 Off-Line 상에서 경제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On-Line상의 '사이버 한상네트워크'형태로 연결 - 오프라인 네트워크 :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 전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경제 단체를 망라하는 각 국가별 직능별 단체를 연결 Off-Line 글로벌 한상네트워크 구축 각 분야의 재외동포기업가(무역인, 상공인, IT벤처, 법조인, 과학자 등)를 Off-Line 상에서 경제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On-Line상의 '사이버 한상네트워크'형태로 연결, 세계해외 한인무역협회(W-OKTA), 세계적인 상공인총연합회(WFKAC), 세계한상총연 협회대회, 한민족벤처네트워크(INKE), 한민족IT네트워크(KIN), 세계한상대회(WKBC)

6. 국가별 디아스포라 영향력 및 파워 추정

연번	국가	영향력 및 파워
1	중국	- 화교·화인 디아스포라와 중국·홍콩·마카오·타이완이 함께 중화경제권 형성 - 중화경제권 인구 규모는 14억 7,718만, 전 세계 인구 18.8% 차지 - 중화경제권의 GDP 규모는 세계 경제 11.5% 차지.
2	인도	- 모국으로의 개인 송금 세계 1위(2009년 469억 달러) -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 막강한 파워 행사 - 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 2위 -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2021년 7억 6천만 명 이상 - 유튜브 이용자 수 2억 5,000만 명 - 현재 인기 앱(APP) 순위 1위 틱톡(TikTok), 인도 내에서 6억 1천만 다운로드, 6억 활성사용자 기록,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4%, 전 세계 전체 틱톡 다운로드의 1/4 이상
3	이스라엘	- 미국 정착 유대인 580만 명. 정치·경제·미디어·언론·학문 등 영역 강력한 파워 행사 - 정치 : 미국 상·하의원 5~10%가 유대인 - 경제 : 뮌헨사-US감철·전가·전산·화학 산업 장악, 한때 미국 전 재산의 1/4에 육박,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기업 중 40%가 유대계 - 미디어 : 초기 할리우드 8대영화사: MGM, PARA-MOUNT, WB, UNIVERSAL, 찰리 채플린, 페어 뱅크스, 버스터 키튼, 마르크스 4 형제 등 - 언론 : 미국 주요 언론 유대인 장악(LA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뉴스위크) - 학문 : 로펌·아이비리그 교수 40%, 아이비리그 재학생 20% 이상이 유대계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 30%
4	한국	- 한인 디아스포라 환경적 파워 :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집중 정착, 국제관계 및 통일환경 조성에 적극적 요인으로 작용 - 정치적 파워 :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 정치참여 실현,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치참여 활발, 모국귀환동포의 국내 정치참여 의식향상 - 경제적 파워 : 경제적 규모 확대, 거주국에서 자립 기반 마련 글로벌 경제네트워크 구축, 상호보완적 민족공동체 형성, 모국으로의 경제적 기여 확대. - 사회문화적 파워 : 세계로 진출하여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한민족 문화공간형성, 한민족 정체성 유지, 전통문화 계승, 공공외교 행위자로 등장

7. 글로벌 디아스포라 사례 비교

1) 화교(華僑)·화인(華人)네트워크

- (1) 해외 중국인 최대 5,000만명 경제 네트워크 구축
- (2) 차이나타운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
- (3) 중국의 문화와 언어 사용 및 발전
- (4) 뛰어난 현지 적응을 통한 모국 문화의 전파
- (5) 중화총상회대표(WCGN)을 통해 세계화상대회를 개최해 네트워크 구축

2) 유대인 네트워크

- (1) 650만 명 미국거주 유대인의 AIPAC 통한 높은 정치참여
- (2) 주말학교, 유대인 캠프 활동을 통한 연대 구축
- (3) 유대인 커뮤니티의 기부문화
- (4) 모국지원 : 기술이전, 외화 원조, 병역
- (5) 미국 주요 언론사, 싱크탱크, 월가 및 금융계, 학계 등 유대계의 영향력
- (6) 디아스포라학의 이론화 연구

3) 인도국적 해외거주자(NRIs)와 인도계 외국국적자(PIOs)네트워크

- (1) 한 가족이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 : 가족 네트워크 형성
- (2) '자따'계급 및 가족경영을 통한 유대감 형성
- (3) 전 세계 3,120만명 진출 : 인도 국적자 1,332만명, 현지 국적자 1,790만명
- (4) 서비스업, 호텔 등 특정 분야 집중투자 장악
- (5) 신규 이민자에 대한 생활 기반 및 정보 제공을

통한 현지적응 지원

- (6) 다량 이주로 특정지역 인구 다수 점유 현지 상권 및 정치권력 장악한 가족이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 : 가족 네트워크 형성

8.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전 방향

1)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정책

- (1) 세계한인 및 타민족 디아스포라간 문화콘텐츠교류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 (2) 국가 문화자원브랜드의 세계화 및 네트워크화
- (3) 글로벌 코리안 디아스포라 경제·문화·미디어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 (4) 세계디아스포라무역박람회 개최로 국제경제협력 촉진 및 중소기업 무역진출
- (5) 글로벌 디아스포라 국제지역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취업을 제고.
- (6) 세계한인평화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2) 인천광역시 디아스포라 도시 구축

- (1) 매년 또는 2년 주기 인천시 대규모 세계 디아스포라 학술대회 개최
- (2) 인천광역시'재외동포 웰컴센터' 구축
- (3) 무국적 동포 네트워크 구축
- (4) 인천광역시 한국 디아스포라 박물관 건립
- (5) 인천광역시 동포 주거타운 건설
- (6) 세계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 (7) 세계 디아스포라 조직 구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자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

토론 쟁점

1.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함으로써 미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 재정립
2. 한국 및 기타 국가의 디아스포라 역사와 그 변화 과정
3. 현재 디아스포라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
4. 디아스포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할과 미래 성장 가능성

디아스포라(Diaspora)는 주로 강제이주나 비극적 민족이산의 경험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사용된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흩뿌리거나 퍼트 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διασπορά에서 유래하였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이유로 자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와 글로벌 네트워킹의 발전은 세계를 더 연결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글로벌화의 도전과 기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디아스포라는 원래 지역이나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나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흩어짐'을 의미하는 'diaspeirein'에서 온 것으로, 고대에 이미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유대인 커뮤니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종교적 또는 민족적 소수자 그룹의 강제 이동을 설명하는 데 쓰였지만, 현재는 경제, 전쟁,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를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의 디아스포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 시대에 걸쳐, 많은 그리스인과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초기 형태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무역, 정복, 종교적 박해 등의 이유로 여러 민족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디아스포라의 변화

산업 혁명 이후, 많은 유럽인들이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이 이주는 다양한 국가에서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인들도 노예 무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는 가장 비극적인 디아스포라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디아스포라가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

디아스포라는 현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경제, 문화, 정치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기여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종종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들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들은 소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창업자, 기술 전문가, 전문 인력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은 디아스포라가 본국 경제에 미치는 중

요한 영향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흐름을 생성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그들이 거주하는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도입하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식, 음악, 예술, 축제 등을 통해 현지 사회에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며, 이는 다문화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력의 확장

디아스포라는 종종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이민 정책, 인권 문제, 국제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참여는 때로는 국제 정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킹과 협력 촉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본국과 거주국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 교환의 채널이 되며,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합니다.

세계 시민의식의 강화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강화시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현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들의 존재는 글로벌화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지구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세계를 더 연결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와 글로벌 네트워킹의 발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와 경제 활동을 연결하며, 전 세계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주요 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자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은 물론, 소규모 가족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본국과 거주국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화 교류의 촉진

디아스포라는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와 원래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이해와 교류가 활성화되며,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문화 축제, 예술 전시, 학술 교류 등은 이러한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보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

현대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킹은 정보 기술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글로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수단은 디아스포라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홍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와 포용 정책의 발전

디아스포라의 활동은 다문화주의와 포용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사회적,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사회에서의 평화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 협력과 정책 영향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민 정책, 외교 관계, 국제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세션 4

[세션 4]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좌장



최연혁

패널



이재승



박병률



손정진



윤관옥

좌장	디아스포라정책의 성공과 재외동포의 U턴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토론자	디아스포라의 시대,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문화를 활용한 교류 이재승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미디어의 변화와 지원 박병률 경향신문 콘텐츠랩부문장 동포 인식 개선은 그저 '좋은 이미지 쌓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손정진 (사)고려인지원시민단체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대표 혈통적 민족주의에서 '다문화 민족주의'로의 전환 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

디아스포라정책의 성공과 재외동포의 U턴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좌장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재외동포에 관한 2021년 외교부 통계를 보면 193 개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의 수는 732만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국제결혼 등으로 해외에서 터전을 자리잡은 동포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수는 1000만명이 이미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 대비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한 한국의 위상과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개방도시로 세계화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례가 있고, 세계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재외동포청의 의미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낮은 출생률로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국내와 연결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동포인재의 U턴을 유도하고 연계하는 일이다.

앞으로 재외동포청과 인천, 그리고 언론사들은 어떤 역할로 접근해야 할까? 몇 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해 본다.

핵심영역 1. 재외동포청은 명실공이 정책과 연구, 빅데이터 구축, 교육, 교류와 소통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핵심영역 2. 인천은 국가 관문의 위상과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도시발전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고 디아스포라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영역 3. 미디어는 국민여론의 조성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고 사회적 융합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핵심영역 4. 디아스포라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을 키

우고 다양한 민간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다음은 각 핵심영역별로 과제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을 중심으로 전개해 본다.

핵심영역 1. 재외동포청의 역할

재외동포청은 세계에 퍼져 있는 동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어떤 직업과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 아픔과 슬픔, 그리고 역경을 거쳐 정착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정 '한국디아스포라연구소(Korean Diaspora Institute)'의 설립이다. 연구소는 통계수집, 재외동포의 역량과 니즈 파악, 현지 활동상황 등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및 현지여론조사 실시 등을 현지 한국대사관과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연구소의 활동은 재외동포청의 미래방향설정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다.

2. 디아스포라는 다양성과 다문화성을 의미한다. 재외동포가 U턴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은 다양성과 다문화가 함께 숨쉬며 융합과 공존이라는 세계적 가치를 주도할 수 있다. 다양한 언어적 능력도 갖게 되는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그 둘이 가지고 들어오는 언어도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3. 재외동포들이 U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있도록 다양한 교육허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글교육, 문화교육, 정체성교육, 직업교육 등 자체 학교의 설립과 함께 국내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 몇 번에 걸쳐 체험

하고 서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속박시설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U턴을 유도할 수 있다.

5. 재외동포들이 다시 귀국해 활동하고 싶어도 체류 국가에 이미 자리잡은 사업, 직장, 재산,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국적으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U턴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아무리 동포자녀들이 귀국해 활동하고 싶어도 실패해 돌아갈 가능성까지 포기하기 해서는 절대 모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재외동포청은 인천과 연계해 매년 가장 '한인디아 스포라의 날' 행사를 개최해 국제회의, 문화체험, 홈스테이, 탐방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7. 유럽과 북미, 그리고 남미 지역에 재외동포청 해외본부 사무소를 차차 개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팀을 만들어 각 지역을 돌며 재외동포들의 지원과 U턴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민간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8.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개발도상국가에서 재외동포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KOICA와 기금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매칭펀드로 재외동포청과 KOICA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핵심영역 2. 인천의 역할

인천은 디아스포라 허브도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1. 디아스포라 역사박물관 개관 -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파노라마로 관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시설들을 설치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해외동포들의 고난과 역경을 재조명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2. 국제학교 허브조성 - 재외동포들이 U턴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자녀의 교육문제와 문화적 정체성의 불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에 맞는 국제학교를 설립해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인천을 국제교육의 허브로 만들면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들어와 개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부터 초중등,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까지 세계적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 인천은 세계적 교육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3. 정착마을 조성 - 재외동포들이 돌아올 때 정착할 수 있는 정착마을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해의 독일인 마을처럼 동포마을을 조성할 경우 U턴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4. 원터치행정서비스 제도구축 - 재외동포들이 정착하고자 할 때 상담하고 관련업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원터치행정서비스를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행정을 잘 모르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공공서와 은행 업무, 의료관련 정보 등의 다양한 업무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여겨진다.

5. 세계 각국에서 성공한 상공인들과 한국의 상공회의소와 연계된 한상회의를 인천에서 매년 유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디아스포라 타운 조성 -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네 세우기 전에 세계 각국에서 U턴해서 돌아온 재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상권을 조성해 디아스포라타운을 운영한다면 세계적 관광 및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셰르홀멘(Skärholmen)쇼핑몰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주위에 주택가, 바닷가와 맞물려 북유럽의 중요한 상권으로 꼽힌다. 벤치마킹을 추천한다.

핵심영역 3. 미디어의 역할

1. 다문화적 역량 - 기자들의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다문화적 역량과 이해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재외동포의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자들의 자질이 필요하다. 기자들의 글을 통해 한국인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고, 국내 여론도 재외동포들의 삶, 역사, 고뇌 등을 진솔하게 국내에 소개해 줄 때 상호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 열린 시각과 자세 - 국내 언론에서 종종 재외동포를 "국가의 짐"이나 "어려울 때 고국을 떠나 잘사니까 돌아온다"는 시각으로는 절대로 융화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들은 국가가 힘없을 때 나가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성공을 일구고 고국으로 송금하면서 애국을 했고, 각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며 당당하게 한국을 알린 애국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재외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서운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3. 콘텐츠 제작 - 미디어에서 다양한 세계의 곳곳을 다니며 조국을 빛낸 한국인 다큐, 역경속에서도 한글과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한 한국어학교, 문화교실 등을 운영해온 1세대 들의 노고를 담은 다큐(1세대들은 이미 8-90세가 되어 서둘러 제작에 임해야 함) 등을 만들어 방영하면 한국민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융합과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디아스포라미디어의 날 -

5. 언론재단과 함께 기자들을 가칭 "디아스포라특파원"제도를 만들어 한인이 정착한 세계 각국의 현실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보다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본다.

핵심영역 4. 민간단체의 역량

1.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들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 민간학의 다양한 연결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동포 인재들의 스타트업 활동, 해외동포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이해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K-디아스포라 재단과 같은 단체를 적극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인재들을 고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우수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기금을 마련해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다양한 민간단체들은 직접 현지에서 활동하는 소규모팀을 파견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당장 결과를 내기 보다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로 현지 청소년과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파견한다면 고국으로 U턴할 수 있는 정보, 교육, 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3.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민간인은 고용직 직원과 현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대학생, 대원원생, 회원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 등은 재외동포청의 기금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KOICA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민간단체들은 국내 기관과 U턴하는 재외동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재외동포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다양한 언어, 기술, 학문 등을 가진 퇴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소외가정 자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매칭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 디아스포라 정책은 밀레의 이삭줍기와 같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하나씩 다시 주워담으며 우리 국민과 통합시키는 작업이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인천이 그 허브역할을 다하고 미디어가 한민족을 다시 융합시키는 여론조성을 통해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화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최고실력자들의 연주가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조율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종합적 예술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디아스포라의 시대,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문화를 활용한 교류

토론자 이재승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디아스포라의 시대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과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온 유대인의 삶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분산과 이산, 또는 동일한 것이 흩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난민, 추방, 실항,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하고 있는 중으로 그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연대하며 다양한 정체성과 만나는 현상 또한 마주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한국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이민사의 시작인 인천에서 하와이로의 이민, 식민지 조선을 떠난 재일조선인과 고려인, 한국전쟁의 실향민과 이산가족, 산업화 시기 독일로 떠난 재독한인 간호사와 광부까지 역사적인 흐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구소멸시대로 접어든 한국사회는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다문화 가정까지 생겨나는 추세로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가 개최되는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곳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이전하며 그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이주하여 채워진 도시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내전의 참상을 피해 한국을 찾았은 예멘 난민, 베트남 전쟁과 경제적 위계에서 태어난 라이파이 한과 코피노 등 현시대는 디아스포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흐름은 매우 크고 다양하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선주민과 이주민,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의 큰 줄기인

재외동포 또한 어딘가에선 이주민, 어느 상황에선 소수자로 분류되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외부'의 존재, 혐오의 대상으로 인지되며 고군분투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더이상 이국의 정치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성찰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다양성, 화합, 공존, 존중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은 문호를 개방한 이래 이주와 이민의 중심지였다. 1902년 한국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후,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항구와 공항을 통해 떠나며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 세기의 기억을 통해 떠나고 들어오는 많은 이들의 설렘과 슬픔, 그리고 차이나타운, 고려인마을, 국제도시 등 그들의 문화를 함께 품은 도시 인천. 하늘과 바다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정체성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은 분명 현대의 도시, 공존의 도시를 지향한다.

인천은 2013년부터 인천의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을 근간으로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모토로한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해왔다. 매년 20여개국 80편 가량의 디아스포라 주제의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음식/놀이/공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개항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초기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디아스포라 주제로 문체 의식이 있는 작품상영으로 시작되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는 가능했지만 대중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뒤로 '종합문화예술축제'를 표방하며 영화와 타 장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물건을 바끼쓰는 등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글과 토론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닌 놀이와 체험을 통해 교감하는 시도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다.

다양성, 이제는 세계적 흐름

10여년간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대중적으로 첫 신호탄으로 인지된 것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일 것이다. 한국영화 최초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모두 석권한 첫 영화이다. 변방영화로 취급받던 한국영화가 세계를 재패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TOP1을 기록하면서 세계인들은 K-컬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변방영화로 취급받던 한국영화가 언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인가 의아할 때 즈음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할리

우드에서 디아스포라 주제의 <미나리>(감독: 정이삭/2021), <빠칭코>(감독: 저스틴전/2022), <성남사람들>(감독: 이성진/2023), <패스트라이브즈>(감독: 셀린송/2024)가 연이어 제작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외동포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동안 미국 중심의 시선으로 제작된 영상물들이 주류를 이뤘었다면 이제는 익숙함이 아닌 이방인, 소수자 등 낯선 시선으로 다양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즉, 다양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5년 개최 예정인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에서 그동안의 역경을 이겨내고 고국을 빛내준 재외동포 영화인을 대상으로 '(가칭)재외동포영화인대상'을 제정하고 매년 영화제에 재외동포 영화인을 초청해 국내 영화인들과의 교류, 협업을 도모하는 등의 고민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100여년전 떠난 선조의 후손이 다시 고국으로 금의환향하는 그 감정과 감동은 어떠할까?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디어의 변화와 지원

토론자 박병률
경향신문 콘텐츠랩부문장

반성과 제안을 중심으로

“인식의 격차는 편중/편향된 정보에서 오고, 소통의 부족에서 온다” (인도)

“지금은 한국과 외국과의 소통통로가 완전 막혀있고, 언론이 제 역할을 안한다” (미국)

“정치, 법조 쪽 교포에 관심이 치우쳐있다”(미국)

‘미디어를 통한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의 인식 격차 해소 및 연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제안받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에게 몇몇에게 의견을 구했다. 카톡을 통해 받은 얘기들은 각기 달랐지만,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은 현재 국내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냥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이같은 쓴소리에 대해 현재 언론인으로서 마땅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제기한 한국 언론의 본질적 문제나, 한국 언론이 교포를 포함한 해외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같은 걱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이 신뢰성을 나날이 상실하고 있는 것은 ‘팩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2021년 3.32점에서 2023년 3.27점으로 하락했다. 진영논리가 뚜렷해지면서 정파성이 강해지고, 온라인 뉴스 홍수속에 낯시성 기사가 채 검증받지 못한 채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의 신뢰도 하락은 가팔라지고 있다. 공중파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저런 풍파에 휩싸이면서 신뢰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해외에 나갈 때마다 체감하고 있다. 영국 BBC나 일본 NHK 만큼만 해달라는 교포들의 한숨도 들어봤다.

문제는 언론이 빠진 자리다. 재외국민들은 어디선가 정보

를 채우고 있는 데 그게 유튜브다. 유튜브 영상은 속성상 내용이 자극적이고, 검증받지 못한 뉴스들이 많다. 또 화합과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유도하는 내용이 많다. 독자들로부터 구독종아요나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내용은 더 자극적이어야 하고, 정파성은 더 극단으로 가이른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국뽕’ 영상, 타국에 대해서는 ‘혐오’ 영상이 많다. 특히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영상은 은연중에 해당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결국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교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 과도한 ‘국뽕’ 영상 역시 열심히 자기자리에서 일하며 민간외교를 펴고 있는 교포들을 자칫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디어는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정치를 움직여 법을 만든다.

교포 A씨는 “재외 국민은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여 대한민국을 빛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의 정치, 법, 미디어, 국민들의 인식은 이들이 지난 수십년간 급속 성장한 한국의 여러 성과물들을 무임 승차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매우 불쾌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미디어가 재외동포를 많이 다루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설사 재외동포를 다뤄도 정치, 법조와 같은 권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대선 캠프에 소속됐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인2세와 같은 경우다. 중소기업인, 예술가, 교육인, 문학인 등에 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다. 미디어가 재외교포를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뉴스에 대한 비중이 낮은 데다, 독자의 주목을 끄는 콘텐츠도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같은 인터넷 환경하에서는 이른바 PV가 나오지 않으면 콘텐츠를 제작하기 힘들다. 매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자 레거시 언론들도 공익성 높은 보도를 하는데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광고, PV 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사명감으로 기사 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더욱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가 자발적으로 재외동포와 내국인의 인식격차 해소와 연결을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지할 수도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은 갈수록 한국뽕과 더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내부와 미디어 외부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먼저 본질적으로는 미디어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재외국민과 내국인에게 지금처럼 계속 신뢰를 잃는다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래야 내국인이든 외국인 이든 유튜브 대신 미디어를 주목하게 된다.

다음으로 미디어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재원을 투자해 보도 제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언론 관련 공공기관, 인천시 같은 지자체, 문화관광부나 외교부 등 행정부 예산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기업에서 광고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재원지원에는 직접적인 취재비 지원도 있지만 관련 광고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대중적 효능감이 적은 상황에서 언론이 사비를 들여가며 취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해외취재는 상당한 지출을 동반한다. 김영란법 이후 언론이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취재하는 방식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재원확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언론이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동포 대상 미디어 프로그램 강화

KBS의 ‘글로벌 동포 리포트’ 등은 재외국민의 이야기를 내국인에게 소개하면서 나름 공간대 형성에 기여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내국인들이 재외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외국인 역시 한국사회와 연결돼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 다문화 관련 콘텐츠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 내국인들도 재외동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 미디어의 소셜미디어/유튜브 활용

각 언론사는 소셜미디어/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미디어가 직접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과 숏츠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보급하는 방안도 있다.

4. 공공 미디어 캠페인

정부와 언론이 함께 협력해 공공 캠페인을 통해 재외국민의 중요성과 그들의 기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날’과 같은 특정날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캠페인이나 장기 캠페인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언론 입장에서는 수익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 등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5. 재외동포와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

해외에는 유능한 한인 콘텐츠 제작자가 많다. 재외한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을 제작한다면 서로간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자금 등을 통해 제작비 일부가 지원된다면 제작이 용이할 수 있다.

또 인쇄매체는 재외동포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해 적극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주간경향의 경우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 <우리가 모르는 인도> <아세안 기업열전> 등을 고정 칼럼으로 받은 적이 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최신 소식들을 전해줘 가독성이 높았다. 일부 필자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한다.

레거시 미디어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분명 문제는 많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도 적지 않다. 재외한국인과 내국인 간의 인식격차 해소 및 연결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오늘 같은 자리를 계기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 생산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동포 인식 개선은 그저 '좋은 이미지 쌓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토론자 손정진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대표

시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디아스포라 문제 해결의 첫걸음

체류 외국인 260만(2024.6. 법무부) 시대를 넘어 300만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는 국가 차원의 최우선 명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인해 노동력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이자 납세자 확보 시스템 붕괴'라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이주민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적어도 100만~150만 명의 이주민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이주민 숫자 증가가 출생률 증가나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건강한 직업인의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민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유럽의 경우를 봐도 이주민들이 건강한 사회 통합에 실패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복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심지어 범죄와 폭동 같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한다.

대한민국도 만일 이주민이 우리가 겪고 있는 주택문제와 사교육 문제와 같은 저출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을 똑같이 받는다면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독일처럼 인구 고령화 위험을 가속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이주민 급증에 따른 부작용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국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 나라 총리가 말하고 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적) 정착과 건강한 (문화적) 사회 통합의 실현'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이주민이 정착 수용국에 통합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수용국 시민의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포용은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처럼 국내 귀환 동포가 장기 정착 이주민의 절반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특히 고난의 디아스포라로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현장에서 동포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현황

중국 동포의 경우가 시민의 인식 문제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례이다. 이주 초기부터 모두가 꺼리던 3D 업종과 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 등 보조 인력으로 취업해야 했던 중국 동포들은 사회적 하층계급의 대명사, '조선족'이었다.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영화나 대중 미디어에서 중국 동포 집거지인 대림동 지역을 조직폭력과 각종 범죄의 소굴로 묘사하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사실처럼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 거주 중국 동포, 특히 미래세대에게 자존감 하락은 물론 정체성의 혼란까지 불러왔다. 또한 이들의 한국 사회 통합에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뒤늦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랐으나,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과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 중국동포단체 한마음협회 김용선 회장은 2022년 동포담당회에서 '중국동포를 지원하는 건 강한 시민단체가 있어서 동포 인식 개선 사업을 펼쳤더라면. 지금처럼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국내 고려인 동포의 경우, 본격적인 국내 이주가 시

작된 2010년대부터 지원 시민단체들은 중국 동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고려인은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연해주 고려인의 후손이고, 스탈린의 강제 이주라는 고난을 이겨낸 한민족의 표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 후 이러한 인식이 시민단체, 학자, 종교단체, 언론, 정치인 등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계기가 된다.

사단법인 너머는 12년 전에 고려인의 최초 정착지인 경기도 안산에서 활동을 시작한 고려인 동포 지원 시민단체이다. (사)너머는 창립 이후 고려인 동포의 인식 개선 활동을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7년 무렵 동포 4세를 외국인이 아닌 동포로 인정해달라는 캠페인을 펼칠 때 동포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다. 2018년부터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예산 지원으로 두 지역에서 각각 동포 인식 개선 사업을 펼쳤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학생, 교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려인 이주 역사 강의, 고려인 이주 역사와 독립운동 영웅에 대한 책자 발간, 각종 전시회와 문화 행사, 체험 활동 등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안산 땃골마을 통장들과 함께한 인식 개선 사업이다. 고려인 이주 역사와 러시아어 강좌까지 다양한 강좌 수강, 고려인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통장들이 앞장서서 다른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중 한 분은 공무원 퇴직 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고려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부정적 인식과 갈등 해결에는 지속적 정책 지원과 미디어 역할 중요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10여 개가 넘는 전국의 고려인 집거지 현지에서는 여전히 고려인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꽤 있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의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고려인 집거 지역인 함박마을 주민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을 보면 '보통이 30%, 긍정이

43.5%'이나 '부정적 인식 또한 26.5%'에 이른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사회적 기본 질서 존중 부족(34%)'이나 '생활 문화의 이질성에서 오는 거부감(34%)' 등이 부정 인식의 이유로 조사되었다. (인천여성재단 조사, 2020년)

이는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어울려 살기의 경험이나 그 필요성이 거의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주민에 의한 노동력과 소비자이자 납세자 증가 등의 거시경제적 기여 이외에도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슬럼화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직접 부딪히는 불편한 경험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포 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과 동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올바른 인식의 이끌고 확산시키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

인천은 송도와 같은 첨단 국제도시의 특성과 고난의 디아스포라로서 함박마을 같은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UN HEBITAT(유엔 인간 주거 계획) 3차 총회가 '인간이 살기 좋은 도시'의 의제로 제시한 '포용 도시'의 구현이 어느 곳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정착과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성과 포용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의 성공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비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자체를 디아스포라적 다양성이 반영과 발전의 원천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정부, 언론은 물론 시민 사회 전체가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혈통적 민족주의에서 '다문화 민족주의'로의 전환

토론자 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인정돼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부터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비록 비례대표 선거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살 이상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들은 전 세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중단된 지 40년 만의 재외국민 선거권 부활이라는 역사적 이정표였다.³⁾

이후 재외동포기본법이 2023년 5월 9일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10일 시행되었다.⁴⁾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도 같은 해 6월 5일 인천 송도부영타워에 둥지를 틀고 개청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은 재외동포 정책을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국가적 시스템 정비에 맞춰 재외동포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 80만여 명을 비롯해 다양한 재외동포와 다문화가정도 재외동포 정책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정의한 재외동포의 범주는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재외동포 인구는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61만여 명과 재외국민 246만

여 명을 합해 총 708만 명(2022년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⁵⁾

아울러 국가의 책무로는 ①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②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지역별·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시행 ③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 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해서는 안 됨 ④재외동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조직 확보 및 예산 지원 등 여건 조성 ⑤재외동포 정책 수립 시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과의 조화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호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거나 선입견, 왜곡된 인식,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재외동포재단(*2023. 6. 1 해산)의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2007년 내국인(성인) 708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친밀도는 긍정 66.3%, 보통 25.7%, 잘 모름 7.9%로 조사됐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의식 56.9%, 대한민국 국적 17.2%, 한국 혈통 15.0%, 한국어 사용 7.6%, 평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3.2% 순으로 나타났다.⁶⁾

2013년 내국인(성인) 8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친밀도가 긍정

54.7%, 보통 40.5%, 잘 모름 4.9%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와의 동질감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 67.2%,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 65.6% 답변이 나왔다.⁷⁾

2022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 29.4%, 보통 57.8%, 부정 12.8%로 나왔다. 친근감은 긍정 33.5%, 보통 50.5%, 부정 16.0%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긍정 32.0%, 보통 44.6%, 부정 23.4%의 반응을 보였다.⁸⁾

2007년~2022년 약 15년 사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친밀도는 하락 추세이고 긍정적 인식 또한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 및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인구 증가로 인한 한민족 정체성 약화, 서로 상이한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온 재외동포-내국인 간 정서적 이질감,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쟁 및 갈등 심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꼽혔다.

이 같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재외동포가 동반자로 설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수용과 배제, 편견과 관용이라는 양가적 태도와 복잡한 사회심리학적 인지 상황을 냉철하게 포착함으로써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작동이 요구된다.

공존·공영의 한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다양한 문화, 계층, 정체성을 지닌 재외동포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내국인도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결국 지금의 우리는 '혈통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 민족주의'로 인식의 틀을 전환하고 확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⁹⁾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에서는 각 영역의 주체가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시는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2024~2028년)에 사회통합 영역 17개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예산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백의민족, 순혈주의) 교육에서 '민족 공통성' 교육으로 전환하고 차세대 융합 교육 차원에서 비교문화(이중언어, 이중문화지식) 교육과 재외동포 인식 개선을 위한 검·인정 교과서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 지역언론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이끄는 취재·보도를 통해 시민 의식의 통합 역량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3) 네이버 두피디아, '재외국민 투표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48053&cid=40942&categoryId=3165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기본법', 2023

5) 재외동포청 누리집, '재외동포 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

6)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2007

7)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13

8)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업무현황 보고-2023년 외통위 국정감사', 2023

9) 윤인진·권일남·김태균·배진숙·송영호,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63호 pp.31~68, 2015

글로벌 TOP10 도시로 가기 위한 인천시와의 협력방안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세션 5

[세션 5]

글로벌 TOP10 도시로 가기 위한 인천시와의 협력방안

좌장



김주훈

패널



남경선



이희용



정영순

좌장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아스포라 기여 방안 - 재외동포 교육을 중심으로 -

김주훈 KDI초빙연구위원

토론자 인천형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남경선 인천광역시 재외동포협력기획과 과장

인천을 친동포·다문화 국제도시로 만들자

이희용 재외동포 전문 칼럼니스트

인천-CIS 국가 간 가교 역할로 인한 발전 방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협회장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아스포라 기여 방안

- 재외동포 교육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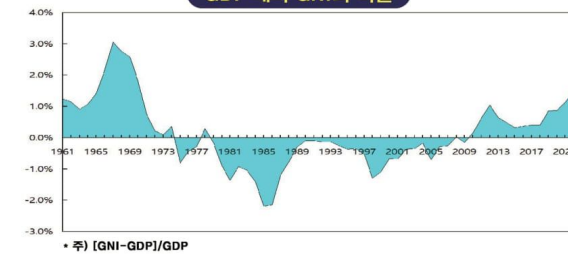
좌장 김주훈
KDI초빙연구위원

□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 선진국권 진입

- 선진국 경제의 특성: 해외 생산 및 투자의 추세적 확대
- 한국은 2010년대 이후 GNI(국민총소득)가 GDP(국내총생산)를 상회
- ※ $GNI = GDP - (\text{국내에서 창출된 외국인 소득}) + (\text{해외에서 창출된 내국인 소득})$

GDP 대비 GNI의 비율



□ 소프트 파워의 확대 (1)

❖ KDI 국제대학원 (1)

설립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
취지	■ (세계은행)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
설립 시기	■ 1995~97 설립준비 ■ 1997. 12. 개원
법적 지위	■ 사립학교법에 의한 단설 대학원대학
학생 구성	■ (초기) 외국인 약 70%, 내국인 약 30%
외국 소속	■ (현재) 외국인 50%, 내국인 50% • 최근 한국 공무원 교육과정도 신설
출신 대륙	■ 공무원 50%,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10%, 사회단체 등 20%
	■ 누적 141개국, (24년 현재) 아시아 53%, 아프리카 37%, 중남미 6%

□ 소프트 파워의 확대 (2)

3

❖ KDI 국제대학원 (2)

구성	▪ 학생: 750명(초기: 300명 수준)
인원	▪ 교수: 43명 * 미국대학 박사/대부분 한국인
강의 언어	▪ 영어 * 최근 한국정부 공무원 대상으로 한국어 개설
학위 과정	▪ 석사: 총 4학기, 1년차: 수업+2년차: 논문, 박사: 기간 제한 없음 ▪ 비학위과정: 지자체, 공기업 등의 임원진
교과 과정	▪ 개발경제, 정책학, 공공관리 ▪ 경제분야 * 경제학(미시, 거시, 통계 등) 및 정책학
학비 지원	▪ 학위과정: 전액 장학금(한국정부 예산+ 약간의 민간장학재단 기부) ▪ 비학위과정: 해당 기관의 위탁 교육비

□ 소프트 파워의 확대 (3)

4

❖ KDI 국제대학원 (3)

- 당초: 한국 경제개발 경험 → (학생)한국유학+학위, (교수)한국경제 비전공
 - *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의 대한 관심도 저하
 - * 미국 등의 일반 경제학 전공자 교수 총원: 과거 개발경험에 대한 지식이 희박
 - 한동안 본원의 정책연구 후 교수로 임용 → 실패, 대학원에서 직접 총원
 - 일반대학의 국제대학원과 차별화가 점차 실종
 - * 최근 세종시 이전후 공무원 정책학 수요가 증가

→ 한국의 정책경험 수요 → KDI 본원의 다른 부서로 이관

□ 소프트 파워의 확대 (4)

5

❖ KDI국제개발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한국의 성공한 정책 사례: 신청국 담당부서와 토론회를 거쳐 전수
 - * 한국의 해당 정책수립 배경 및 내역 → 신청국 여건과 비교후 정책 제안
 - * 한국: 당시 정책 담당자(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등)+신청국 담당자간 포럼
 - * 1년 동안 현지 출장(2회) + 한국 연수 후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
- 실무적이며 현안 과제라서 높은 수요(KSP: Knowledge Share Program)

❖ Global Knowledge Exchange and Development Center

- 홍콩, 옛 KDI 청사를 개조 → 경제개발의 역사적 과정을 전시
- 대상: 외국 공무원 등 방문객 + 국내 학생들의 단체 관람
- 국제기구(세계은행, UNIDO 등) 등과 연수 및 세미나로 확장

□ 소프트 파워의 확대 (4)

5

❖ KDI국제개발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한국의 성공한 정책 사례: 신청국 담당부서와 토론회를 거쳐 전수
 - * 한국의 해당 정책수립 배경 및 내역 → 신청국 여건과 비교후 정책 제안
 - * 한국: 당시 정책 담당자(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등)+신청국 담당자간 포럼
 - * 1년 동안 현지 출장(2회) + 한국 연수 후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
- 실무적이며 현안 과제라서 높은 수요(KSP: Knowledge Share Program)

❖ Global Knowledge Exchange and Development Center

- 홍콩, 옛 KDI 청사를 개조 → 경제개발의 역사적 과정을 전시
- 대상: 외국 공무원 등 방문객 + 국내 학생들의 단체 관람
- 국제기구(세계은행, UNIDO 등) 등과 연수 및 세미나로 확장

□ 글로벌화의 효과적 대응 (2)

7

❖ [제언]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설립

- 이원체제: 한국의 실정에 대한 교육 + 개별적 전공분야
 - * 한국의 이해: 한국어, 한국사, 한국경제 등의 소양교육
 - * 한국에서 취업/창업이 가능하거나 현지국 취업/창업 가능한 수준의 전공분야 교육
 - * 초창기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한 전공분야부터 개설, 이후 점진적으로 확장
- 한국 기업의 채용 가능성 및 재외동포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대학원을 개설
 - * 재외동포의 대학원 진학을 통해 현지국에서 대학진학 등 모범시민으로 성장을 유도

인천형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토론자 남경선
인천시 재외동포협력기획과 과장

700만 재외동포 친화도시 인천의 기틀 마련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계기로 인천시는 세계 한인들의 수도이자 본국활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올해 국으로 확대('24.1.8.,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23.12.29.)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위 조례를 근거로 글로벌도시정부무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외동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요 한인단체 인사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구성('24.6.28.)하여,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방향과 시책 추진에 대한 논의 및 심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류-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분위기 조성

이를 토대로 인천시는 그간 상대적으로 협력이 없었던 국내·외 한인단체와 접촉을 늘리며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최대 한인상공인 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78개 지역 상공회의소, 약 30만개의 미주한인 중소기업체)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3.10.10.)하여, ▲관내 기업 간 투자 알선과 수출 확대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 증진 ▲인천시와 한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71개국, 150개 지회)와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5.14.)하여 ▲국내·외 기업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을 약속하였다.

재외동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 확대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접점이 부족한 재외동포 차세대(1.5 ~ 4세대)를 대상으로 인천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였다.재외동포청에서 주최하는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24.7~8월)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국내외 청소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세계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재외동포 청소년 1,200명이 전체 일정(7일) 중 2박 3일을 관내 청소년 600명과 함께 인천에서 보냈다.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OT 및 개막식, 인천 관내 학교 방문 및 교류, 산업시설 견학 및 개항장 투어 등을 지원하여 전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천의 역사·문화·첨단기술·산업 등을 체험하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2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24.7.1~6.)을 인천시로 유치하여 39세 미만의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 117명이 미래산업 및 인공지능(AI)

교육, 관내 스타트업 기업과 네트워킹, 인천 역사·문화 체험 등을 통해 인천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인천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주최('24.8.29.)하여 'K-Beauty 확산과 한인비즈니스 동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재외동포 경제인과 모국 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K-Beauty 수출상담회'는 일대일 비즈니스 사전 매칭 방식으로 13개국 19명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45개 기업이 참여하여 113건, 184억원의 상담 성과를 올리는 등 참가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어 10월 중에 열리는 재외동포청 주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전북 전주)와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오스트리아 빈)에 참가하여 인천시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유치, 재외동포 경제인과 네트워킹 및 지역 내 수출기업 연

계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본격 추진

그동안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025년부터는 재외동포와 인천의 교류·협력 및 비즈니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천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를 위한 인천시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공간인 재외동포웰컴센터와 비즈니스 활동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재외동포청이 소재한 건물에 문을 열 예정('24.10.18)이다.

재외동포웰컴센터는 인천시의 주거, 의료, 관광, 교육 등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센터 내부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인천에 방문하고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소통·교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한인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포웰컴센터 내 설치되어 재외동포 경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정보제공, 투자유치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비즈니스 사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 기업 친화

※ 인천시의 주요 한인네트워크 구축 사례

연번	단체	내용	일자
1	유럽한인회	한인회장단과 간담회	'23.10. 9.
2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23.10.10.
3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인비즈니스 허브 조성을 위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의 간담회	'23.10.10.
4	유럽한인회	글로벌 재외동포타운 조성 간담회	'24. 2.23.
5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	'24. 3.18.
6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참석	'24. 4.16.
7	(사)세계한인무역협회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24. 5.14.
8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등	제12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연계 재외동포 단체 간담회	'24. 5.17.
9	고려인 단체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고려인 유소년 초청 축구교실	'24. 5.25.
10	유럽한인총연합회	유럽한인총연합회 방문 면담	'24. 6.12.
11	차세대 재외동포	제22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24.7.1~6.
12	차세대 재외동포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24.7월~8월
13	재외동포 단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연계 재외동포 초청	'24. 9.11.
14	파독근로자(국내)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복지 증진 업무협약	'24.10. 4.

※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전략별목표 및 중점과제 (인천연구원 2024)

전략별 목표	재외동포 가치·문화 중심지 조성	글로벌 한인 비즈니스 허브 구축	차세대 동포 품는 글로벌 인재 요람	지역과 함께 하는 포용도 시 조성	재외동포 협력의 시정기반 마련
중 점 과 제	재외동포 상징·문화 기반 구축	특화업종 타겟팅으로 한인비즈니스 선도	지역자산 활용의 재외동포 교육 허브 조성	인천 거주동포 적응 및 생활 지원	재외동포 자치사무의 제도기반 마련
	재외동포 문화예술 환류와 창출	신산업·고기술 한인비 즈니스 개척	학업·취업·창업 연계한 재외동포 인재 육성	인천 거주동포 사회 참 여 및 지역발전 촉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문기구 운용
	디아스포라 연구·교육 기반 강화	실용적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활용	학업·취업·창업 연의 3UP 통합 지원	디아스포라 공간과 로 컬리티 형성	다각적 협력 거버넌스 구현
	재외동포 포용문화 확산	한인비즈니스 지원 기반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교류협력 및 지원 기반 구축	인천 거주동포 지원 기 반 강화	재외동포 협력의 글로 벌 네트워크 구축

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5~2026년 2년간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선포할 예정('24.10.18.)이다. 이로써 범시민 재외동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을 촉진하고 글로벌 톱10 도시 인천을 700만 재외동포에게 홍보하고 브랜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2025년 제29차 세계경제인대회」('25.10월)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 대회는 (사)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동포청이 후원하여 세계 각국의 약 3,000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대회이다.

인천시는 이 대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함은 물론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천이 재외동포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지렛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이 700만 재외동포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영화제, 한인언론단체 및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천시는 시민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고 그간 전담조직 신설, 관련 제도 마련 및 유력 한인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숨가쁘게 달려 왔지만,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세밀한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을 실현하여 인천이 글로벌 톱10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을 친동포·다문화 국제도시로 만들자

토론자 이희용
재외동포 전문 칼럼니스트

인천시는 최근 “제물포 개항(1.0)과 인천국제공항 개항(2.0)에 이어 글로벌 톱10 도시를 향한 새로운 도약으로 인천 개항 3.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의적절하고도 공감 가는 선언입니다.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교통 관광 인프라, 개방성,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수준, 주거 환경, 정치적 안정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인천은 국내 도시 가운데 드물게 여러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지역감정이나 배타성도 비교적 덜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부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침체한 경제성장률, 불안한 안보 상황, 높은 물가, 동포·다문화 정책의 부처간 분절화,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이민 정책의 부재 등 대부분은 대한민국 주요 도시가 공통적으로 지닌 것들입니다.

관광 문화 등의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쏠린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해 국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반대로 서울의 위성도시, 부속도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천이 관련 부처나 기관과 협력해, 혹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기구 유치

현재 인천에 소재한 국제기구는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 사무소 ▲동북아시아 환경협력프로그램(UNNEASPEC) 사무국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 ▲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동북아시아사무소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국제교육훈련원 수원 ▲동아시아 대안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아시아 생물공학 연합체(AFOB) ▲UN 지속가능 발전센터(UNOSD)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처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인천사무소 ▲유엔 거버넌스 센터(UNPOG) ▲기후기술센터 협력 연락사무소 등입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면 도시의 글로벌 이미지와 시민들의 국제화 감각을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됩니다. 국제기구 본부나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은 인천시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해도 한국대표부나 지역사무소 등을 두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 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개원 당시 고양시도 협정에 참여해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산구 장항동에 유치했으나 이후 고양시와의 협정 종료로 서울 신정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한아세안센터도 서울 한국언론기관에 사무국,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두고 있는데, 인천에 추가 설치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이밖에도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한국대표부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제 행사, 동포 행사, 다문화 행사 유치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제 행사와 다문화 행사도 적극 유치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꿔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유치

재외동포재단은 서울시와 협력해 강서구 마곡동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의 출발점이었던 인천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유치하면 인천 월미도의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연계해 내외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4. 통합 동포이민청 유치

법무부가 추진하던 이민청 설립 방안이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대표 차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학계나 전문가들은 이민청과 동포청을 합친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통합 부처 설립 논의를 주도하면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전략을 채택하면 어떨까 합니다.

통합 부처를 설립한다면 이미 동포청이 들어선 인천에 이민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만일 동포청을 설립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통합 부처 설치가 곤란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더라도 동포청과의 협업이나 향후 통합을 위해서라도 같은 인천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5. 역이민 타운 건설

이민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미주 동포를 중심으로 역이민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웃이나 친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지닌 역이민자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민의 출발점인 인천을 역이민의 도착점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6. 복수국적 취득 연령 하향 조정

현재 복수국적 취득을 인정하는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병역 문제를 생각한다면 연령을 40세나 50세로 낮춰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적 감정이 복잡미묘하긴 하지만 복수국적이라 해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재외동포를 적극 유치해 모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모국에 투자하고, 모국에 거주하도록 만들려면 이중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합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미국, 캐나다, 남아공화국 3중 국적자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7. 관련 부처와 상설 협의체 구성

재외동포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교육부 인천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력하고 동포 단체, 외국인 단체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시민단체, 동포단체, 다문화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적극 지원

동포·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동포단체, 다문화단체, 재한베트남회와 재한몽골회 등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포단체, 다문화단체 등의 사무실을 인천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9. 재외동포 이해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강화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각급학교를 통해 재외동포 이해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등을 통한 시민강좌도 늘려가야 합니다.

10.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 자녀 교육 강화

다문화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진로

지원, 상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 외국인, 이주민 상담센터 확충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갖가지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12. 외국인 관광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는 것만 알지 인천이 어떤 도시인 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인천항

으로 입국한 중국인들도 인천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서울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은 서울 못지않게 풍부한 관광 자원을 지닌 도시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에 내리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이 구경할 만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 자원 홍보와 함께 관광 편의시설 확대, 민간 통역요원 확충, 대시민 캠페인 등이 필요합니다. 블로거나 유튜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CIS 국가 간 가교 역할로 인한 발전 방향

토론자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협회장

우선 오늘 이 중요한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2만 고려인을 대표하는 대한고려인협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인천에는 1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그들에 대한 순조로운 정착과 건강한 통합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도시 인천의 성장과 함께 다문화적이고 상호문화적인 도시로 변화를 위해 우리가 이바지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방안은 내·외 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로 보자면 '인천을 국제 허브로 변모시키'를 들 수 있습니다.

인천은 다양한 역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적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CIS 국가들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인천과 CIS 국가 간 가교 역할

인천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고려인들은 CIS 국가에 있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강력한 문화적, 역사적, 가족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의 보유자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및 기타 CIS 국가의 문화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어 인천과 이 지역들 사이에서 강력한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중개자입니다.

2. 디아스포라와 연계를 통한 투자 유치

CIS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고려인들은 현지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Forbes에 등재된 기업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네트워크와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인천은 국제적 프로젝트의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CIS의 고려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하여 기술, 물류 및 제조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상호 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인의 경험과 CIS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국제 프로젝트 개발에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광 및 문화 교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관광 유치

CIS 국가에서 생활하는 고려인들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각 나라의 문화 요소들을 결합해 왔습니다. 이 다채로운 문화는 인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 축제, 전시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해 고려인과 CIS 국가의 문화를 선보이며 인천을 국제적인 문화 교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 방향으로 살펴보면 '인천을 다문화적이고 상호문화적인 도시로 변모시키'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 성장과 더불어,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자체를 다문화적 다양성이 번영과 발전의 원천이 되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려인들은 사회,

교육, 문화적 삶에 적극 참여하여 인천의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송도와 같은 첨단 글로벌 시티로서 면모와 고난의 디아스포라로서 함박마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고려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원칙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현실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고려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

러시아어권 고려인들은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국어로 된 취업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 센터를 포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이 인천에서 더 나은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은 성공적인 통합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학습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들의 문화적 뿌리를 보존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이주민 밀집 학교에 이중 언어 학급을 도입하면, 이주민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 일원

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틀이 될 것입니다.

3. 고려인과 지역 한국인 간의 유대 강화

고려인이 인천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문화 및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고려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시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고려인의 도시 생활에 적극적인 참여

고려인들이 인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 의회와 공공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인은 인천 사회의 다양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인천의 국제적 성장과 내적 발전 모두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우리는 고려인을 인천과 CIS 국가 사이의 가교로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 및 문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상호문화적 유대 강화를 통해 인천을 다문화적이고 상호문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고, 모든 문화가 존중받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The Politics of Home and Return: Inclusive media representation and Korean Diaspora

Barzoo Eliassi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Linnaeus Sweden

Thank you for that warm welcome. I would like to begin by expressing my sincere gratitude to the organizers of this insightful conference on The Role of Media in Creating the Diaspora City Brand of Incheon. I am truly honored to be here among distinguished scholars, journalists, thinkers, and changemakers as we explore the complex and evolving intersections of media, migration, and identity.

Over the years, my work has centered on issues of migration, diaspora, statelessness, and the nuanced concept of "home." I have investigated how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ies shape both the compulsion to leave one's homeland and the yearning to return, as well as the insecurity that often arises from belonging nowhere and everywhere at once in our interconnected worl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insights on the roles of migration, diaspora, nation-states, and media representation, and discuss how we can create spaces for inclusion within the homeland and abroad that foster a diverse, equitable, and heterogeneous Korean society.

Migration is a multi-faceted phenomenon, encompassing voluntary and forced movements alike. People migrate for myriad reasons—economic opportunities, political oppression,

violence, or the search for safety and stability. While there is sometimes an element of choice, structural forces often compel people to leave their countries. Certain groups find migration to be an impossibility due to the severity of state repression or paramilitary violence that restricts their movement. These factors render migration a necessity for survival rather than a decision born from desire.

However, the narratives surrounding migration are frequently shaped by cultural and political biases. In Western discourse, particularly within far-right and populist narratives, non-white migrants are often depicted through a lens of suspicion, framed as people with calculated motives aimed at exploiting social welfare systems and undermining cultural values. Migration, when associated with individuals from the Global South, is portrayed as a "crisis"—a destabilizing force that challenges Western identity. In contrast, white mobility is celebrated as a marker of cosmopolitanism, a testament to the global citizenry that enriches culture and commerce. In these narratives, white individuals are referred to as "expatriates," which subtly implies a sense of choice, freedom, and community-building, rather than the alienation and estrangement that often accompany the journeys of non-white migrants.

The contradictions embedded in these discourses reveal deep-seated biases about who is welcomed and who remains a perpetual outsider. For those fleeing from political, economic, or cultural violence, migration is not an adventure but an act of survival. Forced migration often leave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stateless, engendering an enduring sense of loss and dislocation. Hannah Arendt described statelessness as "the loss of the entire social texture" into which people were born, the unraveling of a fabric that once held together family,

language, culture, and identity. Edward Said went further, describing exile as an "unhealable rift" between the self and its true home—an unbridgeable gap that imbues exile with a sense of unresolvable sadness.

For many migrants, this loss is coupled with a deep longing for home, purity, and belonging. As anthropologist Liisa Malkki observed, there exists a "national order of things" that permeates the global imagination—a world in which people are expected to fit neatly into specific national identities. For diasporic communities, the absence of such a stable identity can amplify the need to forge strong, pure bonds within the diaspora. This desire for purity and authenticity often provides a refuge, a home within the diaspora that counters the alienation encountered in host countries.

Consider, for example, the Kurdish and Palestinian diasporas. These groups occupy precarious political positions, both in their homelands and abroad, as their national identities are often seen as threats to dominant state ideologies. Rather than simply adopting narratives of victimhood, many in these communities actively resist the marginalization imposed upon them. They advocate for democracy, justice, and transparency, challenging both their host states and the political structures of their homelands.

Their calls for political inclusion reflect a desire not only to survive but to transform the political and social landscapes they inhabit. Yet, as with any community, diasporic identities are complex and multifaceted, marked by internal struggles over religion, culture, language, and gender roles. Like all identities, diaspora identity is shaped by history, context, and the dynamics of power.

South Korea, as an established nation-state, holds considerabl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 It has the resources and the resilience to embrace its diaspora, fostering a more inclusive national identity. But the situation of established nation-states contrasts sharply with the precarious existence of stateless or contested groups. While South Korea can actively work towards inclusivity, groups such as the Kurds and Palestinians grapple with a fundamental ontological insecurity. Their existence as peoples without stable political recognition creates a stark divide in the ways they experience and express identity.

Diasporas are not only communities shaped by loss; they are also dynamic actors that bridge borders, influencing both their homelands and the countries they inhabit. As global interdependence grows, more states are recognizing the potential of diasporas to further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For these states, diasporas represent not just a shared past but a strategic resource for the future, fostering transnational connections and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s Rogers Brubaker notes, diasporic identities cannot be frozen in time. For younger generations, who may have little or no lived experience in the homeland, the connection to "home" becomes layered with complexity, evolving with each new generation's experiences. These shifts create spaces where family, community, and identity are constantly renegotiated in response to the fractures caused by migration and dislocation.

Diaspora, then,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story. It is a category in motion, shaped by the shifting tides of historical challenges, political crises, and the ongoing negotiation of identity in a world where borders both connect and divide. By examining diaspora through the lenses of statelessness and homelessness, we gain a clearer understanding of how national

consciousness can emerge even in the absence of a nation-state. This understanding, in turn, sheds light on how diasporic communities forge political belonging and solidarity in response to the inequities faced by those without formal state recognition.

As we turn our attention to the role of media in shaping the city brands of diasporic hubs like Incheon,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media is not merely a passive conveyor of information. Rather, it actively participates in shaping identity, promoting inclusivity, and transforming public perceptions. Through responsible and inclusive media representation, the media has the power to bridge the cultural and social gaps between diasporic communities and their host societies,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ntributing to a more inclusive future.

Both state institutions and media entities are pivotal in their engagement with diaspora communities, with the potential to nurture these relationships constructively. In our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orld, diasporas have emerged as influential non-state actors on the global stage, significantly impacting nation-building processes in their homelands. Positioned at a complex crossroads, diasporas are sometimes criticized for promoting militant, long-distance nationalism, yet are also acknowledged as essential agents of peacebuilding-or, conversely, as forces that can exacerbate conflict.

Many states actively engage with their diasporic communities to enhance their

international political leverage, recognizing that these groups extend a unique sphere of influence beyond national borders. By fostering relationships with prominent diaspora members, states aim to tap into the political, educational, and economic capital these individuals offer, viewing them as valuable agents of change. Thus, in the interplay between state, media, and diaspora, we see the potential for collaborative engagement that not only builds inclusive city identities but also strengthens transnational bonds. South Korea is in a very strong position to create a strong tie with its diaspora across the world to endorse its national interests.

However, this relationship is not without tension. States often attempt to regulate the transnational political ties and loyalties of their diasporas, especially where these relationships might challenge or contradict state interests. As Betts and Jones argue, diasporas are not simply organic communities; they are politically constructed and mobilized by elites who channel resources, networks, and ideas to bring the diaspora into active existence. Moreover, Turner and Kleist contend that diasporas derive their political character not only from rights or recognition provided by states but from their capacity to challenge state hegemony.

I hope that our discussions during these days will encourage us to reimagine the possibilities for Korean diaspora and home in a world that is continually redefined by migration, displacement, and globalization. By embracing the diversity within diasporic communities and recognizing their potential as agents of change, we can contribute to a more just and inclusive world, where home is not confined by borders but enriched by the plurality of experiences and identities that members of Korean diaspora embody.

Is home like Sweet Honey?

But, let us ask: Is home like sweet honey? And, what kind of world are we truly inhabiting? Are we living in a world where thick attachment to place is becoming obsolete, as proponents of cosmopolitanism and globalization suggest? Or does attachment to “home” take on a different meaning in a world where some choose thin ties to specific locations, while others, forcibly displaced, find their return to homelands suspended or securitized?

While globalization has indeed led to increased mobility, it is often assumed that such mobility comes at the expense of attachment to places. Scholars like Gustafson argue that our ties to location weaken with increased mobility. Ye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Duyvendak delineates two contrasting approaches to place-attachment and home. The universalist position claims that people are less inclined to feel connected to specific locations or homelands. On the other hand, the particularist view argues that the uncertainties of globalization make attachment to place even more meaningful. Geschiere notes that despite our “globalized” world, people worldwide continue to invest in deeply rooted, local identities, emphasizing the role of the nation-state as both a symbolic and spatial entity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e concept of “autochthony”—the notion of being born from the soil—embodies this sense of belonging and exclusion. Historically, in colonial contexts, Europeans often used “autochthony” to depict non-white, “uncivilized natives.” Yet, this idea has now been appropriated by some European communities to assert their own primordial rights, delineating who belongs and who is cast as an outsider. The heightened focus on identity and exclusionary politics has become a global trend, as Ceuppens and Geschiere discuss. The modern political landscape sees powerful

groups asserting these claims of native rights as a means to exclude foreign and unfamiliar “others,” intensifying the politics of belonging worldwide.

This obsession with defining who “belong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oretical notions of cosmopolitan belonging, which frequently use the Western, European subject as the reference point. Figures such as Ahmed critique the idealized view of cosmopolitanism, which often assumes that all individuals can simply choose to be homeless or nomadic. In reality, structural constraints privilege some to move freely and without consequence, while others, particularly from the Global South, face significant barriers, both when seeking entry to places like Europe and when attempting to live as legitimate members of these societies. This reflects a stark disparity in the experience of displacement; for some, mobility and nomadism are privileges, while for others, they signify painful uprootings and uncertain regroupings in a world with unequal citizenship regimes.

In this vein, Duyvendak argues that the question of home has become highly politicized. Dominant groups, fearing an erosion of their own “home-feelings” by the presence of non-white migrants, push for policies that reaffirm their identity, often leading to the creation of racialized hierarchies and exclusive national identities. This dynamic is particularly familiar to stateless groups such as the Kurds and Palestinians, who, marginalized within state-building processes in the Middle East, face a compounded sense of otherness and exclusion in Western societies. Their diasporic experience is often marked by the use of a discourse of autochthony to reclaim rights to places from which they are systematically excluded.

Diaspora, in its essence, is about dislocation and the experience of leaving one’s homeland for another place, a theme echoed by scholars like Sökerfeld and Kenny. This notion links the

migratory experience through dimensions of movement, connectivity, and the possibility of return, encapsulating the oscillation between uprooting and re-rooting. It forces us to confront not only the movement itself but the reconstitution of identity and belonging that occurs in its wake.

Belonging and Home-Making in an Uneven World

In exploring the nuanced dynamics of belonging and home within diasporic contexts, we find that while the literatur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belonging for one's comfort, well-being, and sense of security, it is equally essential to construct inclusive ways of imagining home that avoid creating new forms of exclusion. There is, indeed, a wariness that the ideals of home and nostalgia can evolve into a politically conservative project. As Bonnett suggests, this project often embodies a longing for "an impossible security and comfort," a vision of belonging rooted in selective memory that reinforces borders and excludes certain individuals and groups. Iris Marion Young further critiques this construct, arguing that the dream of a unified identity and secure home is often "bought at the expense of women and those constructed as Others, strangers, 'not-home!'" This tension highlights that home can be a contradictory space, one that is not universally comforting but rather shaped by violence and exclusion—spanning from gender-based violence to the structural abuse that pervades communities across social divides.

For many stateless diasporas—such as the Kurds, Palestinians, Assyrians/Syriacs, and Tamils—home represents not only a place of potential safety but also a site of pervasive threat due to militarization and authoritarian rule. These dynamics illustrate that for such groups, the concept of home is often steeped in a history

of displacement, danger, and marginalization. Consequently, experiences of dislocation and otherness in host societies frequently heighten a longing for home as a place of acceptance and inclusion. Yet, as Salman Rushdie warns, the yearning to reclaim home can lead to a problematic fixation. Rushdie is critical of the diasporic obsession with returning to an idealized home, suggesting that this longing can transform into a "dangerous and pathological" process. By fixating on a homeland that is viewed as lost or sacred, there is a risk of fetishizing and monopolizing the concept of home in ways that create rigid boundaries, rejecting those who do not conform to this singular vision.

Rushdie's insights point to the dangers of what he calls a "ghetto mentality," a phenomenon in which one's immediate community becomes the sole focus, with an insular view that forecloses broader engagement with society. This perspective is especially relevant for exiled and diasporic peoples, for whom the questions of home and return are often intertwined. The identity of displaced individuals is frequently haunted by narratives of loss, leading to a desire to "restore" what has been taken from them through acts of physical return. Yet, as Rushdie poignantly observes, "if we do look back, we must do so in our knowledge... that our physical alienation from [the homeland] almost inevitably means that we will not be capable of reclaiming precisely the thing that was lost." For Rushdie, the very idea of return is imbued with uncertainty; the result is the creation of "fictions," or "imaginary homelands"—not tangible places but mental constructions that inhabit the mind.

In practice, this longing for home can become intertwined with the exclusionary, nationalist rhetoric often faced by migrants. The recurrent invocation of place and homeland in racist or xenophobic interpellations—such as "Go back to

your homeland!"—further complicates the notion of home for diasporic individuals. In response, many migrants deploy what Radhakrishnan calls a "process of authentication" as a coping mechanism, constructing their own narratives of home and belonging that resist nationalist structures.

This complex relationship with home and belonging is captured in the writings of Swedish-Kurdish author Mustafa Can. In his reflections on identity and place, Can, who migrated to Sweden as a child, grapples with the duality of being both "Eastern" and "Western." As he describes it, "Home is away, away is home"—a sentiment that reflects a pervasive sense of in-betweenness. Although Can's parents remain deeply attached to their Kurdish village as their place of origin, he describes his own identity as both deeply rooted in and distanced from it. He writes of his internal contradictions: "I am Swedish. I am a Kurd. I want to live here. I do not want to live here. Home is away, away is home." This fragmented identity speaks to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vides faced by many in diaspora, caught between the values of their heritage and the society in which they have settled.

For the older generation, such as Can's parents, the connection to their Kurdish village remains a critical anchor. Regular visits to this "home" village serve as a way of momentarily escaping the experience of otherness and homesickness they feel in Sweden. As Can's father remarks, each visit to the village reaffirms his identity and provides a brief respite from feeling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land, where he is often regarded as an outsider. The visits allow him to feel recognized, to escape the feeling of homelessness that has come to define his life in diaspora. His father's attachment to Kurdish culture and fear of its dissolution is palpable, especially when he worries about his grandchildren adopting Swedish

names, which, to him, signifies a final severing of ties to the village. This desire to maintain cultural continuity represents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the pressures of assimilation and underscores the ways in which the concept of home functions as a deeply personal and political space.

For the younger generations, particularly Kurdish women in diaspora, the meaning of home is being actively redefined. They stand at the forefront of challenging patriarchal structures within their communities, advocating for democratic values, gender equality, and the rule of law. This transformative stance is not without its challenges; for many young Kurdish women, home is a site of cultural negotiation, where they must navigate the traditional values of their heritage alongside their evolving identities. Returning to the Kurdish regions, when it does happen, is often marked by confrontations with social and cultural institutions that may contradict the political ideals they have adopted abroad. As King and Christou note, return is sometimes "marked by confrontations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place of origin," obstructing the political project of homecoming and leading to frustration. It is these clashes that often discourage members of diaspora to return to their homeland.

For Kurdish migrants, the idea of returning home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ongoing oppression and militarization in Kurdish regions, which continuously undermine the stability and safety of any notion of "home." Even though many Kurdish and Palestinian migrants remain ambivalent toward the UK or Sweden as "home," they recognize that the democratic freedoms and security in these countries offer protections not readily available within the

precarious political climates of their homelands. Thus, the prospect of a permanent homecoming is often postponed, leaving many in diaspora

in a state of suspended existence, as Maxey describes.

In contrast, younger generations of Kurdish and Palestinian diasporas increasingly perceive their countries of origin as symbolic rather than final destinations. Their connection to Kurdistan or Palestine is less about a physical return and more about maintaining cultural and emotional ties. For these younger diasporic communities, "home" is a fluid concept, shaped by an intricate blend of personal identity, cultural heritage, and practical realities. As Blachnicka-Ciacek and Eliassi observe, the sense of being "in-between" becomes a defining feature, a form of non-belonging that offer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younger generation's refusal to view Kurdistan or Palestine as a final home signals a shift away from the traditional narratives of return, embracing instead a broader, more inclusive understanding of belonging that transcends borders and celebrates diversity.

Accordingly, the concept of home for diasporic communities is far from straightforward. It is a site of both comfort and conflict, a place where identities are contested, redefined, and negotiated. Whether viewed through the lens of the individual, the family, or the broader community, home remains a deeply complex and evolving space, one that reflects both the enduring ties of heritage and the transformative experiences of living in diaspora.

Media Representations,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Concept of Home among South Korean Diaspora

What is "home"? Home is often seen as a space of safety, comfort, and warmth. However, it can also transform into a setting where stress, danger, and even gendered or political violence are inflicted upon individuals-whether within the confines of a family or on a broader, national level.

"Homeland" differs slightly; it is a place where individuals should not experience discrimination based on their ethnic, religious, or gender identities. Homeland signifies belonging and serves as a cultural, political, and symbolic space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a group.

From a distance, the homeland is frequently imagined as a place of magic and idealism. However, homeland can also be imposed upon individuals, even if they feel little connection to it. Migrants and members of diaspora communities are often reminded of this imposition when faced with xenophobic attacks, with the refrain, "Go back to your homeland!" being a common slur. Yet, when the mythic image of the homeland clashes with its reality, the experience can result in deep disappointment. This disappointment is often felt by the diaspora when they find that their return or connection to the homeland is fraught with exclusion or alienation.

Toward a More Inclusive Korean Society

It is within this context that the Korean diaspora must be understood. The question we must ask is: How can Korean society and its governing authorities ensure that members of the diaspora can seamlessly integrate into the homeland without being marked as "outsiders" or reminded of the differences they may have acquired from living outside the Korean mainland?

Their diverse experiences across generations, as well as the intersections of class, gender, and migration histories, must be considered in thes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members of the Korean diaspora, while different from those living in Korea, should not have their differences interpreted as inequality. If diaspora groups do not find a comfortable "home" in Korea due to structures, attitudes, or behaviors that render them unwelcome, it beco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ities,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to take action. In this regard, conducting extensive research into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diaspora is essential. Such studies should aim to identify the systemic obstacles that hinder their equal inclusion, and propose strategies for fostering a more inclusive society.

Inclusion effort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rhetoric of welcoming the diaspora back into the fold of the "homeland," but should also involve concrete steps in policy and practice. These may include educational program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unique experiences of diaspora group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support systems, and targeted anti-discrimination measures. The goal should be to create a space where the diaspora feels at home-where they can navigate their identities freely, without facing alienation, and where their contributions to the larger Korean cultural and societal fabric are recognized and valued.

How Korean Media can embrace Korean diaspora?

A vital component of fostering an inclusive homeland for the Korean diaspora lies in how they are portrayed within Korean media. Media is a powerful tool, shaping societal attitudes and perceptions; it can either reinforce harmful stereotypes or work to dismantle them. If diaspora communities are underrepresented or misrepresented in media, it can exacerbate feelings of exclusion. Research on homeland media consumption shows that Korean migrants find a sense of home, safety, and belonging through Korean dramas and news on Korean politics. Furthermore, the impact of homeland media varies by gender and generation within the Korean diaspora, which now numbers close to eight million. For example, a study by Lee Jinah and Lee Kwangho on Korean mothers in Canada illustrates that these women use homeland media

to maintain a strong ethnic identity,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values, and languag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y prioritize their Korean heritage over Canadian nationality, effectively living in Canada physically but in Korea culturally and symbolically.

The Korean diaspora maintains strong connections to their language, values, and cultural heritage, resisting pressures of assimilation in host countries, as Gil-Soo Han observed among Korean migrants in Australia. However, Korean diaspora members also voice critiques of Korean society, finding it to be stressful, overly competitive, and catering mainly to the elite. In her dissertation *Digital Media and the Korean Diaspora: A Journey of Identity Construction*, Hojeong Lee argues that while the diaspora uses media to sustain their identity, Koreans in Korea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diaspora media to gain nuanced perspectives on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t home.

Interestingly, Korean immigrants often do not encourage their children to return to Korea, indicating a redefined understanding of "Koreanness" that transcends the physical homeland. Yet, digital media still plays a crucial role in keeping diasporic Koreans connected to their roots.

In the U.S., Korean Americans identify as Koreans, Korean Americans, or American Koreans, each reflecting different levels of identification, ambivalence, and hybridity. Notably, events like the 1992 L.A. riots reminded the Korean community that despite integration, they were still viewed as outsiders. Ji-Yeon Yuh observes that diasporic Koreans do not privilege either Korea or their host countries as their sole centers of belonging, instead identifying with other Koreans in the diaspora. They often view themselves as "authentic" Koreans, sometimes even challenging the authenticity of those living in Korea.

Historically, South Korean media portrayed the

Opening Ceremony

diaspora negatively, emphasizing cultural decline, struggles with assimilation, and the host society's hostility. However, in recent years, this narrative has shifted. Ekaterina Gorbunova analyzed South Korean media's changing portrayal of the diaspora from 2015 to 2017, noting a generally positive attitude. Publications like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and JoongAng Daily highlight the success, dedication, and hard-working spirit of the Korean diaspora. Stories of successful politicians, athletes, writers, and public figures of Korean origin have become part of South Korea's cultural narrative, showing that the country increasingly values the diaspora as part of its identity.

The South Korean state and media can further support this positive trend by accurately representing the diaspora. Television dramas, films, and documentaries could include Korean diaspora characters, reflecting the community's genuine diversity. Such portrayals could normalize diaspora members within Korean society and challenge narrow definitions of "Koreanness," which diaspora communities often question due to their experiences in different cultur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Media representations humanize diaspora communities, make their experiences relatable, and reduce the societal divide between "mainland" Koreans and their global counterparts.

News and media outlets also have a duty to combat discrimination by giving voice to the diaspora. Through interviews, opinion pieces, and coverage of diaspora-related issues, media can promote dialogue on inclusivity, migration, and identity. Highlighting diaspora success stories across various fields—whether in the arts, business, academia, or sports—can shift the narrative toward shared pride in collective Korean achievements, regardless of birthplace.

By responsibly representing the Korean

diaspora, the media can pave the way for their full acceptance and integration within Korean society, fostering a national culture that values empathy, openness, and the diversity of its global community. As Gorbunova's work illustrates, South Korean media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shaping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diaspora. Embracing multiculturalism and pluralism is crucial not only within Korea but also for Korean communities abroad.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particular, can benefit from these insights on the Korean diaspora, who feel pride in their Korean identity while also being rooted in their host countries. To encourage the diaspora to return and settle, Incheon can strengthen their legal rights and provide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e media can play a decisive role in this regard by bridging the diaspora with the mainland Korea. While it may be challenging to inspire permanent resettlement, creating an attractive, inclusive environment could encourage members of the diaspora to reconnect with Korea. In doing so, Incheo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diaspora-friendly global hub, connecting Koreans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 boundaries.

Conclusion

Building a welcoming, inclusive space for the Korean diaspora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involving policy reform, research, education, and, crucially, media representation. Media has immense power to shape national consciousness; by embracing the diversity within the diaspora, it can help build a society where differences are celebrated, not marginalized. In this way, Korea can truly become a homeland that welcomes all members of its extended community, including those who have lived and grown beyond its borders.

Daedanhi gamsahamnida

'Overseas Koreans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2025-2026'
- What Should We Prepare?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Session 1

[Session 1]

'Overseas Koreans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2025-2026' - What Should We Prepare?

Chairman



Lee Chung-hwan

Presentation



Roland B. Wilson

Discussant



Kim Tae-min



Kim Yong-pil



Kim Song-won



Sohn Hae-kyung

Chairman	Lee Chung-hwan	Gues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ig Data Innovation Convergence College
Presentation	South Korea's Diaspora: Reintegr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Lens" Roland B. Wilson Professor Carter School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Discussant	Suggestions for preparing for the Year of the Diaspora Visit Kim Tae-m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roposed World Korean and Diaspora Day civic celebration events Kim Yong-pil Representative of Dongpo World Newspaper Need to shift tone from 'labor' migration to social integration Kim Song-won Secretary General of the Inche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cheon, the diaspora mecca of our home country! Incheon tourism paves the way Sohn Hae-kyung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Jaeneung University	

South Korea's Diaspora: Reintegr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Lens"

Presentation Roland B. Wilson

Professor Carter School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Background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for that matter, the Korean Peninsula, has an untapped potential to become a world leader and, in many cases, has already achieved that status. Just as importantly, with its recent initiatives to be an education and business hub and a city of peace, Incheon City can become the epicenter and regional hub for this success. However, South Korea's demographic crisis, characterized by one of the world's lowest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nd little immigration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to its future workforce, economy, and societal sustainability necessary to achieve its full potential.

The population decline necessitates rethinking immigration policies and what it means to be "Korean." Much like Israel's Right of Return, South Korea could benefit from welcoming members of its global diaspora back into the fold.

South Korea's traditional sense of national identity has long been rooted in notions of ethnic purity and cultural homogeneity. (Bae 2007) However, this narrow understanding of "Korean-ness" has often alienated Koreans living abroad, their descendants, and those of mixed heritage. Therefor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that a redefinition of national identity, one that is more inclusive, is necessary to fully accept returnees or individuals with Korean ancestry who have lived outside the country, at times, for generations.

To do so, however, requires extensive research and scholarship so that we can fully address historical, cultural, identity-based, and legal barriers to resolve the fundamental difficulties in defining and welcoming the Korea Diaspora (K-Diaspora). This paper today will cover a few of the primary challenges and provide a few initial recommendatio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 Historical Perceptions of Ethnic Purity

- Based on its understanding of we-ness and, in part, to counter historical trauma at the hands of regional players, South Korea has adopted a strict sense of ethnic homogeneity. This ethnic homogeneity has long been a source of pride in South Korea. It is, in a sense, the basis for Korean nationalism, which helped propel South Korea into its current economic giant status. Yet globalization has seen more Koreans living abroad and marrying non-Koreans. Many other adopted Koreans have been introduced into foreign cultures, and those, along with their mixed heritage offspring, struggle to be fully recognized as part of Korea's national identity.

-There is a social stigma around mixed-race individuals or those who return with non-Korean spouses, exacerbated by a traditional emphasis on such things as pure Korean lineage, speaking the local language, and already having a complet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2. Legal Restrictions and Citizenship Laws

- South Korea's nationality laws have historically emphasized "jus sanguinis" (citizenship by blood) but have not always welcomed those who have taken foreign citizenship. (Temple University 2024; N. H.-J. Kim 2013; H. A. Kim 2022) While dual citizenship has been allowed under certain conditions, it remains restrictive, limiting the diaspora's ability to return permanently.

- Unlike Israel's Law of Return, which grants automatic citizenship to Jews who return to the country, South Korea currently lacks a formalized, consistent, and accessible pathway for the diaspora to gain or regain citizenship or residency easily. (Ernst 2009) Establishing such a pathway could be a significant step towards addressing the diaspora's

challenges.

3. Cultural Barriers and Integration Issues

- K-Diaspora and others, with their children, often face discrimination and cultural adjustment difficulties. They are seen as outsiders despite their Korean heritage.(Klein 2022; Ahn 2024)
- Although much work has been done in South Korea, mixed-race individuals and multicultural families face institutional biases, which hinder their integ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Schools, workplaces, and social institutions may not be fully equipped to support these populations.(Shin 2006)

4. Language and Education Barriers

- Many K-Diaspora, especially those from second or third-generation communities, do not speak Korean fluently or lack a deep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cultural norms. This makes reintegration more challenging, particularly in terms of education and employment.

Initial Recommendations for Reimagining K-Diaspora

To create policies that will successfully attract and integrate members of the K-Diaspora, South Korea must rethink its cultural, identity-based, legal, and social frameworks to embrace a more inclusive definition of "Korean." Some initial examples include:

1. Establish a Formal "Law of Return" for K-Diaspora

- Create a Clear and Accessible Path to Citizenship: Like Israel's "Law of Return," South Korea can implement a "Korean Diaspora Law" that provides a streamlined process for Koreans abroad and their descendants to return and obtain citizenship or long-term residency. This should first provide K-Diaspora, many of whom have never visited South Korea, with a cultural tour similar to how Israelis do for Jews living abroad.
- Flexible Dual Citizenship Rules: Make dual citizenship more accessible for overseas Koreans, their children and descendants so they can retain ties to their adopted countries while reconnecting with South Korea. This would reduce the pressure to choose between two national identities.

2. Expand Definitions of "Korean-ness"

- Redefine National Identity: A broader defi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Korean" should include not only ethnic Koreans but also those who have mixed heritage or who have lived abroad for generations but want to be connected to South Korea. (H. A. Kim 2022; Moon 2018; Song 2001) This shift can be supported through media campaigns and education initiatives that promote diversity as part of the evolving Korean identity.
- Cultural Integration Programs: Create cultural and language programs to educate returnees and diaspora children about South Korean history, values, and language. This will ease their transition and help them become active participants in society. However, unlike what is done with former North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these programs shouldn't be used to erase, lessen or degrade where they have come from or their background.(Ha and Jang 2016)

3. Support for Mixed Heritage and Multicultural Families

- Anti-Discrimination Policies: Strengthen anti-discrimination laws and campaigns to protect mixed-heritage individuals and multicultural families from social stigmatization. This could include workplace policies, school support systems, and broader social protection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xpand exist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o better cater to the growing number of returnees and mixed-heritage Koreans. These centers can offer language assistance, legal guidance, education services, and counseling to help families integrate smoothly.
- Support and Expand Research Centers Dealing with Race, Identity, and Social Conflict: By providing resources for joint and collaborative research on this subject, scholars and practitioners can help identify and resolve complex issues and conflicts affecting the K-Diaspora and make critical policy recommendations.

4. Strengthen Diaspora Connections

- Engage the K-Diaspora: As is done with K-POP, actively reach Korean communities abroad through embassies, consulates, and diaspora organizations. (Yulia 2004; Carter 2005) Cultural diplomacy programs, investment in diaspora networks, and

conferences celebrating Korean identity abroad can foster stronger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its global diaspora.

- Create Economic Incentives for Returnees: Offer incentives such as tax breaks, housing subsidies, and business startup grants to attract talented diaspora members, especially those with specialized skills or global experience that can benefit South Korea's economy.

5. Address Language and Educational Barriers

- Korean Language Programs Abroad: Prov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consulates, embassi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in countries with large Korean populations. Additionally, South Korea should work with foreign universities abroad to offer their student bodies more Korean language and historical courses. This can help second and third-generation diaspora members maintain a connection to their heritage and ease their transition back to South Korea.
- Inclusive Education Policies: Implement policies in South Korean schools and universities to better accommodate the children of return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ensuring they have access to language assistance and are not ostracized due to their mixed backgrounds.

6. Decrease or Eliminate the number of Terms used to Describe various K-Diaspora

- Create a new sense of wholeness by redefining K-Diaspora and eliminating such terms as Korean Living Abroad/해외동포, Korean Americans/한국계 미국인, Kyopo/교포, Korean-Chinese/한국화교/조선족 중국인, North Korean-Koreans/세토민, Former Koreans under the Soviet Union/고려인, and others, which have various hidden negative connotations and only serves to separate them into different identities than being fully Korean. (Koh and Baek 2020; Jang and Sohn 2024)

Conclusion

South Korea's demographic crisis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he country to rethink its historical stance on diaspora and nationality. By conducting detailed research and scholarship and establishing policies that redefine "Korean-ness" to be more inclusive and welcoming while providing clear legal

pathways for returnees, South Korea can tap into the vast potential of its K-Diaspora.

The key to success lies in balanc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identity with a forward-looking, multicultural approach that embraces diversity and reintegrates the international Korean community into the national fold.

Moreover, South Korea has the potential to leverage its global diaspora to counter its demographic decline and strengthen its country, but doing so will require structural policy changes, and a cultural and identity shift. By adopting lessons from Israel's "Law of Return" and learning from the integration challenges faced by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 can create a more inclusive and welcoming environment for returnees. Policies that offer clear legal pathways, cultural and economic support, and anti-discrimination efforts will be essential in redefining what it means to be Korean in the 21st century.

An influx of diaspora return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ill undoubtedly transform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identity and the makeup of Korean society. With individuals bringing diverse experiences, languages, skill sets, and cultural influences worldwide, Korea must expand its historically homogenous view of identity. This shift could initially be met with resistance from those who fear the dilution of Korean traditions and to be frank, Korean blood. However, if South Korea embraces this change, it has the potential to enrich its society significantly. Returnees often possess global perspectives, specialized knowledge, and diverse skill sets that can benefit industries such as technology, business, education, and the arts. Their international experiences can foster innovation and creativity, leading to increased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economy. A more inclusive and diverse Korea could further promote cultural exchange, drive overall economic growth, and address its demographic challenges. Embracing diversity as a strength will further allow South Korea to maintain and deepen its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while evolving into a more dynamic, globally connected society ready to lead the world.

Finally, South Korea's historical experiences, particularly the unresolved trauma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 issue of "comfort women" (sex

slaves during World War II), profoundly shape how many Koreans view outsiders and foreign influences. This chosen trauma—a collective memory of suffering that has become part of its national identity—has fostered a sense of protectiveness over Korea's identity and cultural purity, and historical narrative. The lingering pain of these unresolved conflicts with Japan and others has contributed to a wariness of outsiders. However, as South Korea faces modern challenges like demographic decline, there is an opportunity to acknowledge and start to heal these historical wounds while embracing a more diverse future. By preparing for an influx of return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ing healing alongside inclusivity, Korea can transcend this trauma and build a society that honors its past while looking forward. Embracing diversity and global perspectives doesn't diminish Korea's identity—it enriches it, providing new ways to strengthen the country's resilience, innovation, and cultural influence on the global stage.

Bibliography

- Ahn, Ji-Hyun. 2024. "The Changing Faces of Racism: Tracing the Racial State through Mixed-Race Categorie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52 (3): 128–35. <https://doi.org/10.1016/j.ajss.2024.05.003>.
- Bae, Ji-Sook. 2007. "Koreans Reassess Concept of Blood Purity." *Koreatimes*, September 2, 2007, sec. National.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10/113_9419.html.
- Carter, Sean. 2005. "The Geopolitics of Diaspora." *Area* 37 (1): 54–63. <https://doi.org/10.1111/j.1475-4762.2005.00601.x>.
- Ernst, Dan. 2009. "The Meaning and Liberal Justifications of Israel's Law of Return." *Israel Law Review* 42 (3): 564–602. <https://doi.org/10.1017/S0021223700000728>.
- Ha, Shang E., and Seung-Jin Jang. 2016. "National Identity in a Divided Nation: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November): 109–19.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6.10.003>.
- Jang, Kyooeun, and Jiyoung Sohn. 2024. "The Korean Wave: Redefining Korean Diasporic Identities." *Une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October 10, 2024. [https://www.google.com/url?sa=t](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uic.yonsei.ac.kr/main/downloadfile.asp%3Fgid%3D37%26mid%3Dm03%255F05%255F04%26cmid%3Dm03%255F05%255F04&ved=2ahUKewju85zgxaiJA xXLUWcHHRICC_YQFnoECBIQAQ&usg=AOvVaw2-BLRG5uoEGcENZ1Cf8dl)

&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uic.yonsei.ac.kr/main/downloadfile.asp%3Fgid%3D37%26mid%3Dm03%255F05%255F04%26cmid%3Dm03%255F05%255F04&ved=2ahUKewju85zgxaiJA xXLUWcHHRICC_YQFnoECBIQAQ&usg=AOvVaw2-BLRG5uoEGcENZ1Cf8dl.

Kim, Hyein Amber. 2022. "Understanding 'Koreanness': Racial Stratification and Colorism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22 (1). file:///C:/Users/rolan/Downloads/admin,+1834-11393-1-PB-1.pdf.

Kim, Nora Hui-Jung. 2013. "Flexible Yet Inflexible: Development of Du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79-) 18 (1): 7–28.

Klein, Peter D. 2022. "Racial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Korean Academics Offer Proposals for a Solution, but What If the Solution Is Inherent to the Korean Constitution?" *American Scientific Research Journal for Engineering, Technology, and Sciences* 86 (1): 174–91.

Koh, Ho Youn, and Kyungmin Baek. 2020. "The Korean Diasporic Identity in the Context of K-Pop Consumption: The Case of Young Female Diaspora Members in Kazakhstan." *Journal of Asian Sociology* 49 (1): 1–28.

Moon, Hyun Jin. 2018. "Uri - The Korean Notion of the Collective Self." Hyun Jin Preston Moon (blog). September 24, 2018. <https://www.hyunjmoon.com/uri-the-korean-notion-of-the-collective-self/>.

Shin, Gi-Wook. 2006. "Korea's Ethnic Nationalism Is a Source of Both Pride and Prejudic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August 2, 2006. http://aparc.fsi.stanford.edu/news/koreas_ethnic_nationalism_is_a_source_of_both_pride_and_prejudice_according_to_giwook_shin_20060802.

Song, Changzoo. 2001. "Natio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y (Review)." *Korean Studies* 25 (1): 143–47.

Temple University. 2024. "Korean Heritage Students and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Abroad and Overseas Campuses*. October 21, 2024. <https://studyabroad.temple.edu/programs/temple-exchange-programs/temple-exchanges-south-korea/korean-heritage-students-korean-nationality>.

Yulia, Son. 2004. "Diaspora Politics on the Way to Globalization: The Korean Cas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uggestions for Preparing for the Year of the Diaspora Visit

Discussant Kim Tae-m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nter

What began with 102 laborers migrating to Hawaii's sugar cane plantations in 1903 is now estimated to number more than 7 million. The number of second- and third-generation Koreans living abroad is even higher. Korea has the fifth largest overseas Korean population in the world and the third highest percentage of overseas Koreans in relation to the population of their home country. The percentage of overseas Koreans is steadily increasing year by year. As a result, it has become important to establish policies to support overseas Koreans liv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seas Koreans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established in Songdo, Incheon, in 2023 to systematically carry out this task. Nevertheless, domestic awareness and interest in overseas Koreans is still very low, and overseas Koreans are often unaware of these changes and efforts in their home countries. In this paper, I will suggest what preparations should be made in each area in advance of the Year of the Overseas Korean in 2025. I will also suggest how to use the media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both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Communicating the need for expatriate support to internationals

Expatriates often don't understand why they need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iaspora or the need for an overseas Korean organization, and they often have little interest in it. They may think, why support someone who left their country because they don't like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ationale and necessity of supporting overseas Koreans by targeting Koreans

who pay taxes. In other words, the Year of the Overseas Korean is not just for overseas Koreans, 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mmunicate why it is necessary and beneficial to support overseas Koreans 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em. Why is there an International Year of the Diaspora and why should we support them?

First, it is necessary for expatriates to maintain their identity and connect across generations. For many overseas Koreans, the ties to their homeland weaken with each passing generation. The designation of 'Overseas Koreans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Koreans around the world to maintain their identity with their homeland and re-experience Korean history and culture, which can help the next generation growing up abroad to take an interest in Korea and continue to live with their Korean identity.

Second, it ca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The designation of Overseas Koreans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is an opportunity to rai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ttention to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to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to listen to their voices. In particular, it can spark discussions about the challenge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at overseas Koreans face.

Third, can strengthen global networks. The Korean diaspora spread across the globe is a hug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sset. Networking during the years of 'Overseas Koreans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the Korean Diaspora can revitalize exchanges among compatriots, which

can further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Korea.

Fourth, economic benefits can be gained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f Incheon becomes a center for overseas Koreans in their home countries, it can create opportunities for foreign capital inflows and investments and serve as a business hub for them. It can then host international events and investment fairs for overseas Koreans and positively impact the local economy through tourism,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Fifth, international exchanges could increase programs for overseas Koreans and their children to visit Korea,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spreading the Korean Wave could help Incheon become a center for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for overseas Koreans.

Role of the City of Incheon and the Korean Overseas Korean Association

As it is important for overseas Koreans to recognize Incheon as a center for overseas Koreans during the Overseas Korean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an effective advertising and promotion strategy is needed. To this end, the following approaches can be considered

1. Leverage your expatriate network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campaign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the Year of Overseas Koreans Visit and the role of the ODA through Korean-American associations, diaspora media outlets, diaspora communiti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utilize digital media such as social media, online newsletters, and YouTube to reach out to compatriots around the world.

2. Develop programs for expatriat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elebr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by organizing online or global events that can be participated in person by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and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upport programs offered by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 Affairs. In particular, it may be a good strategy to revitalize the Korea Visit Program and strengthen programs where Incheon can serve as a bridgehead to encourage overseas Koreans to visit Korea more often.

3. Build cultural empathy

Overseas Koreans have strong emotional connections to their homeland, including the culture, history, and food associated with Korea.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communicat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content that incorporates Korean cultural elements. Campaigns that introduce Korean history and culture to overseas Koreans, as well as messages and videos that make them feel proud of Korean culture, are also necessary. In particular, using cultural aspects such as K-pop and K-culture, which have been trending globally in recent years, can increase interes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of Koreans.

4. Create video content that tells the stories of your compatriots

It's also important to create content about successful Korean Americans abroad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see stories that are relevant to them. Stories of successful Korean entrepreneurs, academics, and artists can inspire a sense of pride among Korean Americans. This will also help Koreans in their home countries to become more aware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more interested in the policies of the Korean Overseas Korean Association and Incheon City.

It's also effective to get expats directly involved in your advertising or outreach efforts. Especially participatory campaigns can generate more buzz through word-of-mouth within the expat community. An example of this is organizing social media challenges that expats can participate in. For example, you could create a challenge to post content related to Korea (Korean food, historical places, writing in Hangul, etc.) to celebrate the Overseas Korean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and share.

5. Connect with local events

Expose your ads to Korean festivals, cultural events, and other events held in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naturally feel connected to Korea.

6. promote officia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and benefits

It is also important to highlight any official programs or benefits offe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 the Korean Overseas Korean Service. Providing this information can give overseas Koreans a real incentive to connect with Korea. For example, you could consider advertising or promoting benefits, legal assistance,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they can receive upon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so that they can see the tangible benefits of staying connected. Considering that Koreans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you can organize exchange programs or homestay programs for children of overseas Koreans and Korean children to learn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6. Build partnerships

You can expand your advertising and outreach efforts through partnerships with global Korean American companies, local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and diaspora organizations. This will increase the credibility of your ads and help you reach a wider Korean American network. You can also partner with local Korean-American associations and cultural organizations to better connect with the community. You may also want to collaborate with local Korean American media outlets.

Closing thoughts

There's a lot of preparation that goes into designating Overseas Korean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Communicating the rationale and need for the program to both expatriates and nationals should be a priority.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organizing visits to the diaspora's home countries, and how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ir cultural identity, emotional connections, and tangible benefits.

Proposed World Korean and Diaspora Day civic celebration events

Discussant **Kim Yong-phil**
Representative of Dongpo World Newspaper

Incoming Words

We wish you success in organizing the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When I looked at the theme and purpose of this event, I felt a sense of dynamism. The term 'Diaspora City Brand Incheon' and the word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seem to do that. The terms 'diaspora' and 'international' make me feel that it is a grand challenge to overcome the painful history of the past, to bring together scattered forces, and to exert great power on the 'international' and 'global' stage.

Incheon is the perfect example of a city that embodies both of these terms.

In this regard, I hope that media professionals will reintroduce Incheon and promote Incheon to the outside world, so that Incheon will be newly recognized and recognized as a city that people want to visit and live in for the 2025 Visit Incheon Year. I think this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is the place to gather ideas and wisdom, and in line with the theme of the first section, I would like to conclude with a suggestion: "Let's organize the World Korean and Diaspora Day civic festival in style".

Suggestion Background

The direction of the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is to promote the diaspora city br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stablish a cooperation network by utilizing the strong media influence of Incheon's unique characteristics as a global hub city of 10 million people,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immigration history and the loc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on June 5 last year, there was a lot of interest from local governments to host the agency, and I think Incheon was the most proactive to be selected.

The main reasons for choosing Incheon were 'accessibility' and 'symbolism'. It was considered that most overseas Koreans enter Korea throug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Port, and that Incheon is the starting point of Korea's modern immigration history.

In addition, the city of Incheon emphasized the expectation that hosting the Overseas Korean Affairs Office would generate significant economic induced eff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est of citizens. I think the citizens of Incheon responded well to this.

Incheon City, which succeeded in hosting the Overseas Korean Affairs Office, claimed that this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ity to become a global hub city with the support of '10 million citizens,' a total of 3 million Incheon residents and 7.5 million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Incheon City is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overseas Korean support and has enacted the 'Ordinance on Cooperation for Supporting Overseas Korean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December 29, 2023) to highlight its image as an 'overseas Korean-friendly city'.

We applaud the city of Incheon and its citizens for their efforts. I hope that these efforts will bear fruit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a central government agency. This is because I think it will be the foundation for Incheon to become a vibrant international city,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to establish a center of gravity and establish their status in their home countries.

I think that the 2025 Incheon Visit Year should capitalize on this atmosphere and showcase a different Incheon, and be a year of festivals that involve citizens and overseas Koreans.

What kind of festival are you going to create?

First, I looked at the 'Basic Plan for the First Foreigner-Friendly City of Incheon (2024~2028)' and 'Details of Basic Plan Projects' provided by the organizers of the conference. I wondered if there were any special projects that were unique to Incheon.

The basic plan presents Incheon as a happy city that citizens and foreigners create together as a vision, and establishes 'settlement support, communication harmony,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policy participation' as core values, and promotes 56 detailed projects (15 new and 5 expanded) in four areas with a total budget of KRW 66.3 billion over five years.

Of particular interest to me was the operation of the IFEZ Global Center, run by the Investment Promotion and Planning Division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Korean Welcome Center, run by the Diaspora Heritage Division of Incheon City. I think that if these two centers are operated efficiently, they will be able to establish themselves as a base institution that makes use of Incheon's uniqu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plans to launch a new Foreigner-Friendly City TF follow-up program and a ceremony to declare the city a foreigner-friendly city at the World Day celebration in May 2024 stood out. Also, the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was newly promoted and held this time.

Still, there's nothing like a festival to draw people's attention. When it comes to festivals, there's the annual World Day event in May, and the cultural festival in Hambak Village, Incheon, which is home to a large Korean diaspora.

I don't think the World Day event is a typical similar event that is held every year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In the case of Incheon, the project cost was about 35 million won.

I believe that Incheon should have a symbolic festival that can promote the city to the outside world, so my proposal is that Incheon City should organize a large-scale "World Korean and Diaspora Day Civic Festival" on October 5, 2025, in celebration of the Year of Visit Incheon, with the interest of overseas Koreans, citizens, and foreigners.

I think it is a festival worthy of Incheon, and if it has the right historical background and infrastructure, and if the attractions, food, and playgrounds are well harmonized, it can be held efficiently without spending a lot of money and with less economic value.

If so, why are you making this suggestion?

First, let's think about World Korean Day.

World Korean Day has been celebrated annually on October 5 since 2007 to define the identity of the 7.2 million Korean diaspora around the world and to inspire a sense of pride and pride of belonging to the Korean people.

World Korean Day has always been celebrated in Seoul on the evening of the 4th. There are no festivals in Korea where citizens,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enjoy the day together.

The month of October is called 'Overseas Korean Month' in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This is because October falls on October 3, Gaecheon Festival, October 9, Hangeul Day, and October 5, World Korean Day, which is celebrated by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Korean diaspora organizations and Korean journalists' organizations hold various events.

If we designate the period from Gaecheon to Hangeul Day on October 9 as 'World Korean Week' or 'Overseas Korean Week' and plan festivals to promote traditional culture that overseas Koreans can share together with K-content, and conduct programs for civil society,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expatriat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o participate, we can create a festival yard wher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world culture can come together.

When I say this, you might ask, isn't there a World Day celebration?

That's why it's worth taking a look at World Day events,

The World People's Day event, which is held every year on May 20 in honor of World People's Day in local governments, also began in 2007. As the Ministry of Justice is the main ministry in charg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which was enacted in May 2007 with the aim of creating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people of various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understand each other and coexist, large and small festivals are held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on this day. However, this day is not centered on our traditional culture, but rather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immigrants and their countries of origin.

As I watched the World Day cultural events, I had a question.

This is the case of Chinese Koreans. The Chinese diaspora are Chinese of Korean descent, known in China as the "Korean people". They are one of the most prominent ethnic minorities in China that have maintained their traditional culture. From traditional clothing to songs, dances, musical instruments, and more, they've been able to preserve their traditional culture even more than Koreans. Because of this, China has designated them as a cultural heritage, causing a cultural clash between Koreans and Chinese.

However, when I go to multicultural activities and events in Korea, I find that Chinese compatriots have to wear a traditional Chinese dress called "cheongsam," stand on stage, dance Chinese dances, and sing Chinese song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This is because the event organizers require it. Chinese people make up the largest part of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If you go to local events, Chinese people are the most numerous. Nowadays, there are more foreigners living in Korea, so the

atmosphere may be a little different, but I think Chinese people still make up a larg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Chinese compatriots are forced to feel identity confusion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show their characteristics as Chinese Koreans at multicultural events and are seen as Chinese. This, in turn, leads to the anti-Chinese sentiment that Koreans are not compatriots, but Chinese, which i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and contributes to the difficult situation of Chinese compatriots in Korea.

In response, the Chinese diaspora once said, "Why are we multicultural?" and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Korean society for not accepting them as compatriots.

There are more than 800,000 Chinese living in South Korea. As of the end of June 2024, there were 127,545 foreigners in Incheon (85,049 registered foreigners and 42,496 resident aliens), of which 47,471 were Chinese compatriots (19,417 registered foreigners and 28,054 resident aliens), accounting for 37% of all foreigners in the city.

Given that Chinese diaspora are increasingly living with non-Chinese spouses, the Chinese community should be considered to include the 12,443 registered foreigners of Chinese nationality to some extent. If so, the Chinese community is 59,914, representing 46.9% of all foreign residents in Incheon.

For Chinese compatriots, most registered aliens who are not resident aliens are in permanent resident (F-5) or temporary worker (H-2) status.

Bupyeong-gu is the area with the largest number of Chinese residents. There are about 20,000 Chinese in the area (8,000 registered foreigners and 11,000 resident aliens), and more than 23,500 if you include Chinese spouses and other family members.

Yeonsu-gu, on the other hand, is home to about 8,000 Korean-Americans, and if you include his family,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s about 20,000 strong.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atuses and have an understanding of compatriot residency.

Incheon's Chinese neighborhoods are not as well-

known as Hambak Village, which is home to the Korean diaspora, but they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pyeong Station, Baekwoon Station, and Dongam Station (Bupyeong-gu), and Juan Station (Michuhol-gu).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number of Chinese immigrants is increasing.

Incheon, with its geographic proximity to China and iconic Chinatown, is a great place to expand your engagement with China.

I think it is important for the city of Incheon to b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how the citizens of Incheon perceive the Chinese diaspora.

In that regard, I think the World Korean and Diaspora Festival can play a positive role.

Expectations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publicize the characteristics of Incheon, which has declared itself as a foreigner-friendly city and an overseas Korean-friendly city.

Unlike the World Day festival, we will be able to promote our traditional K-culture and create a cultural festival that coexists with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3.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storing the sense of homogeneity between

Incheon citizens and overseas Koreans.

The cultural festival will create a sense that we are one people and compatriots despite our different nationalities.

4. The economic impact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Festivals are about seeing, eating, and playing. It's about getting businesses involved and interested in it will be a place for cultural festivals that can create promotional effects and added value.

Legal basis

Article 15 of the Basic Law on Overseas Koreans (World Korean Day and World Korean Week)

(1)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bond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5 of each year shall be designated as World Korean Day, and the week from Gaecheon Day pursuant to Article 2 (4) of the Act on National Day to Hangul Day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same Act shall be designated as World Korean Week.

(②) Matters necessary for events to commemorate World Korean Day and World Korean Week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ed to shift tone from 'labor' migration to social integration

Discussant **Kim Song-won**
Secretary General of the Inche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what to say

The need to establish an overseas Korean agency has been rai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2003, especiall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07 that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and the Referendum Act we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did not give the right to vote to overseas Koreans with no address in Korea.

Howev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rongly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overseas Korean community center for fear of "diplomatic friction" with China and Russia. The reasoning was that China and Russia would be sensitive to South Korea's support for the Korean people and Koreans, which could lead to "diplomatic conflict."

In the end, something had to be done to buffer the diplomatic conflict, and the citizens of Incheon found the answer in the location of the Overseas Korean Affairs Office. The symbolism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could amplify diplomatic friction, so Incheon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location to buffer it. Incheon was chosen for its ease of access for overseas Koreans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first overseas immigration in modern times.

Incheon did not stop at hosting the Overseas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In May, the city held a "Vision Proclamation Ceremony for Incheon as a Foreigner-Friendly City" to celebrate the 17th World Day, and in April, it declared 2025-26 as the "Year of Exchanges and Visits for Overseas Koreans in Incheon" to implement the "First Basic Plan for Creating a Foreigner-Friendly City (2024-2028)."

Today's event is an opportunity to hear from experts in various fields about the role of Incheon

as the host city of the Overseas Korean Service and what it can do for its 7.8 million overseas Koreans. Incheon is fortunate to have a rich diaspora history and geographical positio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policies such as the government's overseas Korean policy and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2. What to Expect in the Year of the Overseas Korean Visit to Incheon 2025?

First of all, here are the main points of the "Basic Plan to Create the First Foreigner-Friendly City of Incheon (2024-2028)" announced by Incheon City.

The Incheon City Basic Plan includes the need for a policy to protect and suppor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as proposed by the presenter, as a policy goal, as well as a plan for each project and a financial plan. This is the will of Incheon City to visualize the results of the 'Incheon Bid' of the Overseas Korean Affairs Office, and future activities are expected. In addition, as the speaker concluded, in order to develop Korea as a multicultural nation-state, we need to think about ▲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 an inclusive social system ▲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 and a future-oriented vision.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some suggestions on what we should do to prepare for the 2025 Overseas Koreans Visit Incheon Year.

(1) Shifting the tone from 'labor' migration to social integration Hourly wages

- Recognize resident aliens as valued members of the community, even if they don't have citizenship.
- As local governments are the basic units that

support the livelihoods of labor migrant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ommunity members, Incheon should take the lead in creating best practices.

(2) Create conditions for Incheon to fulfill its role as a hub for overseas Koreans and a hub for Northeast Asia.

- Establish a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from around the world can freely conduct economic activities in Incheon.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Metropolitan Development Planning Act and abolishing it, and follow up with alternative legislation.

(3) Role of Media in Creating Diaspora City Brand Incheon

- The government's public broadcasts for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include KBS World Radio (Korea's only foreign language public service broadcast), KBS World (an international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 channel), and KBS

Korean Broadcasting Service (a North Korean and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broadcast).

- Now that the Korean Overseas Korean Administration has opened, it should evolve into a program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overseas Korean comm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nation-state, and Incheon should find a role.

(4) "Digital Incheon Citizenship" strategy for foreign Koreans and foreigners of Korean descent (Citizen Proposal)

- A strategy to provide "digital Incheon citizenship" as a membership concept to overseas Koreans who want to get to know Incheon. A marketing strategy for a membership concep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actual citizenship.

- Digital Incheon Citizenship is expected to engage the diaspora through the desire to maintain cultural connections, rethink Incheon's perception by providing a special sense of belonging, fund program operations through revenue generation, and explore emotional marketing possibilities.

Incheon, the diaspora mecca of our home country! Incheon tourism paves the way

Discussant **Sohn Hae-kyung**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Jaeneung University

Diaspora Begins, Home Country Incheon, South Korea

As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immigration, Incheon is the root and heart of the approximately 7.3 million overseas Korea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21), many of whom have traveled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 search of new opportunities. It is also a global hub city of 3 million people, home to the Korean Overseas Korean Administration, and a symbolic place deeply connected to the diaspora internationally. The diaspora in Incheon is the third largest in the country, after Gyeonggi Province and Seoul, and accounts for 4.9% of the city's total population.

In May, Incheon City held the 'Vision Proclamation Ceremony for Incheon, a Foreigner-Friendly City' to celebrate the '17th International Day', solidifying the purpose of creating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people of various ethnicities and cultures understand and coexist with each other, and initiated a meaningful diaspora program to create 'Incheon, a happy city where citizens and foreigners create together'.

In particular,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Basic Plan for Creating Incheon as a Foreigner-Friendly City (2024-2028)" (April 24), Incheon declared the two-year period from 2025 to 2026 as the "Year of Exchange and Visitation of Overseas Koreans to Incheon" and provided various support. In order to create a 'foreigner-friendly city' for the diaspora, the city will invest about KRW 66 billion by 2028 to support foreigners'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town, no one saw him as Korean. In Manhattan, no one saw him as white. In Los Angeles,

Sam was the "white cousin. In New York, he was the "Chinese kid." Still, in K-Town, Sam realized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that he was Korean. Or, more to the point, he realized that he was Korean, and that it wasn't necessarily a negative or even neutral fact. That realization gave him some serious self-consciousness. A funny-looking mixed-race kid could exist at the center of the world, not on the margins." (pp. 134-135)

The above is a quote from Gabriel Zevin's novel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2022). Sam's experience of himself as a Korean in Korean Town is an important event in his identity. Fortunately, Sam's self-consciousness about his roots does not lead to self-deprecation or loss, and Diaspora Zevin ends the novel with a wonderful outcome through game creation. Similarly, many diaspora Koreans will experience deep concern or confusion about identity and belonging.

Author: Gabriel Zevin (Korean mother, Jewish father, Harvard English)

The main characters: Sam (a Korean grandfather, grandmother, and mother who run a pizza shop in Korean-American Town)

Meanwhile, from the migrant workers who were forced to leave Korea and immigrate to Hawaii in 1902, more than 120 years ago, to seek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as a means of livelihood or for better education and affluence even though they were already middle-class or above, to the millions of Koreans who have lived abroad or immigrated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there has always been a sense of nostalgia for their homeland and hometown.

As the world changes and time passes, there are many cases of people who are living as foreigners

with the nationality of another country, and as they go down to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they have no ties to Korea and often lose their identity.

The need for ways to help the growing number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not forget their roots, remember their country, and be proud of it is more urgent than ever, and the need for various supports that help them feel secure and belonging, that they have left a presence back home, even if they are rooted abroad.

Incheon, a diaspora mecca, shines with tourism

"I see it in the water. You see it in light, you see it everywhere. If you know where to look." (p. 284)

Gabriel Zevin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2022)

The dictionary meaning of tourism is to see the virtues and splendor of a country, or to go to another province or country to see the scenery, customs, and culture of that country. In other words, it is said to originate from seeing the virtues of the king (leader) of a country through the culture and civilization of another country, which are brilliant and wonderful. There are various purposes for traveling or sightseeing.

As part of tourism activities to help overseas Koreans find their souls and roots (ancestors) and experience identity, we propose the "Diaspora Incheon Pilgrimage" program. As a strategic plan,

Incheon can be recognized as a diaspora sanctuary by providing a space for tourism activities centered on DNA testing from a biogenetic perspective. This would offer meaningful answers to the 'WHO AM I' identity confusion faced by successful 3rd and 4th generation immigrants, who often find it difficult to trace relatives in Korea and have limited memories of their ancestors.

DNA contains genes (cell > nucleus > chromosome > DNA > gene), and genes contain all genetic factors (personality, pathology) inherited from ancestors, or 'family history'. Since it is the DNA that contains family history, diaspora tourists who want to preserve their DNA are invited to take a DNA test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preserve

it. Such an experience will convey the meaning of "Incheon is the place of my ancestors" to the diaspora and make Incheon a must-visit place for diaspora tourists when visiting their home country, Korea.

Second, maximizing the use of the Incheon Immigration History Museum in Wolmido, an important tourist resource in Incheon with the story of 'the history of immigration that started from Incheon'. It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sacred DNA space from a semantic point of view that experiences identity, rather than a formalized DNA that is simply viewed.

Third, it is also important to combine the strategy of attracting diaspora tourists by creating cultural consensus and enjoying a sense of unity through the experience of 'Poong-woo-je', a social and religious festival with the purpose of living in Incheon's past. During the festival, visitors are encouraged to have good memories of Incheon through various attractive tourism activities, such as cultural experiences in the imagination platform space, local food making, island life experiences, and a contest to promote SNS uploads of photos taken in hanbok against the backdrop of the opening port. As a cultural expression of human playful nature, the festival serves as an artistic, social integration, and religious function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intrinsic human values.

Example) Samba Festival in Rio de Janeiro, Brazil

In a similar case,

A trip on the Camino de Santiago pilgrimage to visit the Santiago de Compostela in Spain, where the remains of the Apostle James are buried, is a bucket-list destination for travelers to visit at least once before they die in order to reflect, heal, and find new meaning in life.

The Indian diaspora in the UK visits their native India to seek solace and peace from the cultural, racial, political and national insecurities of their dual or multiple identities in the UK. Despite the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and success they have achieved in the UK, they are willing to spend money on traveling back home to maintain their

identity and culture in the face of discrimination and marginalization that still exists.

Next, there is a need to build the world's first "Online System for the Heritage Center for Overseas Korea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View System" and a "photo and video preservation system," all activities in Incheon can be enjoyed across time and space. The system is dedicated to overseas Koreans, providing an ID and password for each household, and allowing overseas Koreans to upload photos and videos directly from anywhere in the world. The uploaded photos and videos will be preserved forever, so that they can be found and reminisced about at any time when visiting the Overseas Chinese Heritage Center. Diaspora families in each country can also share the system with their descendants, allowing them to see what

their ancestors looked like and lived like in each gene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services utilizing IT technologies such as Metaverse, 3D, and VR, the indirect experience of meeting parents or ancestors in a virtual space will be linked to the direct experience of visiting Incheon. All these activities will enhance tourism to Incheon, the "Diaspora Holy Land," where people can find and experience their roots. In particular, 'media' as a communication channel in various ways has a stronger influence than any other tool in modern society. Therefore, through this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Incheon will definitely establish a positive diaspora image of "Incheon, a happy city created by citizens and foreigners together".

Global Branding Strategy for Incheon through Media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Session 2

[Session 2]

Global Branding Strategy for Incheon through Media

Chairman



Kim Sang-hoon

Discussant



Park Joo-sung



Naohara yoshimitsu



Lee Hyo-jong



Heo Tae-yoon

Chairman	Kim Sang-hoo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Inha University
Discussant	Park Joo-sung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Incheon Journalists' Club Currently Deputy Political Director Kihonews
	Naohara yoshimitsu	Manager Operations Audit Division Mainichi Broadcasting System (MBS)
	Lee Hyo-jong	EBS Producer
	Heo Tae-yoon	AdAsia 2023 Seoul Secretary General

Diaspora and media

Discussant **Naohara yoshimitsu**

Manager Operations Audit Division Mainichi Broadcasting System (M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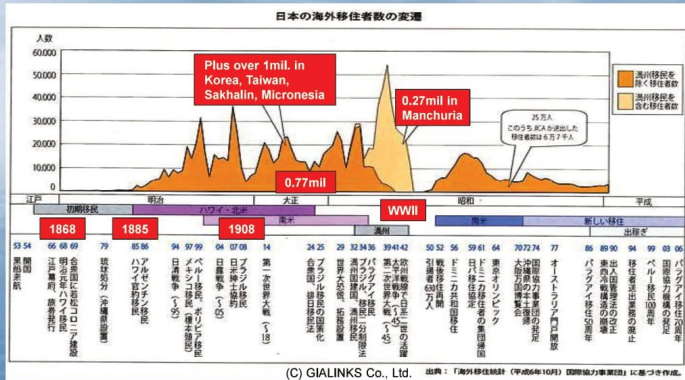
HISTORY OF JAPANESE EMIGRANTS

•**Meiji Period (1868-1912):**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significant Japanese emigration, primarily driven by economic hardship and a desire for better opportunities. Many left for **Hawaii(1885)** and the **U.S. mainland** to work on plantations and in other labor-intensive industries. Others headed to countries like **Peru(1899)** and **Brazil(1908)**, drawn by the promise of agricultural work.

•**Pre-WWII (1912-1945):** Emigration continued during this time, though at a somewhat reduced pace due to factors like stricter immigration laws in the U.S. and the onset of the Great Depression.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encouraged emigration to its colonies like **Korea** and **Taiwan**, often placing Japanese migrants in positions of authority.

•**Post-WWII (1945-present):** Following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emigration slowed considerably. However, some people still left for opportunities abroad, particularly to South America. In recent decades, a new wave of Japanese migration has emerged, with many individuals seeking work or study opportunities in other countries.

HISTORY OF JAPANESE EMIGRANTS



MEDIA'S ROLES FOR EMIGRANTS

1. Information and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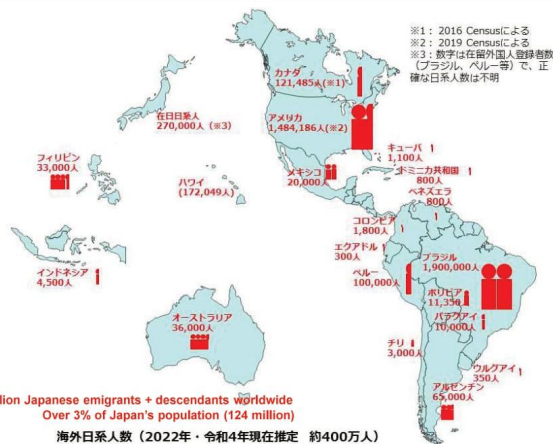
•**News and Current Affairs:** Media provides immigrants with vital information about their **host country**, including news, laws, regulations, and cultural norms. It helps them stay informed and navigate their new environment.

•**Connection to Home Country:** Media allows immigrants to maintain ties with their **home country** by accessing news, cultural content, and information about events back home. This connection can be crucial for emotional and cultural well-being.

2. Culture and Identity:

•**Cultural Education:** Media can play a role in educating immigrants about the **host culture**, facilitating their adaptation and understanding of social norms.

•**Cultural Preservation:** Ethnic media can help immigrants maintain their **cultural identity** and pass on their **traditions** and **language** to future generations.



ASSISTANCE FOR JAPANESE EMIGRANTS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

- Volunteers for Japanese communities
- Support for Japanese schools
-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Support

Japan Foundation

<https://www.jpf.go.j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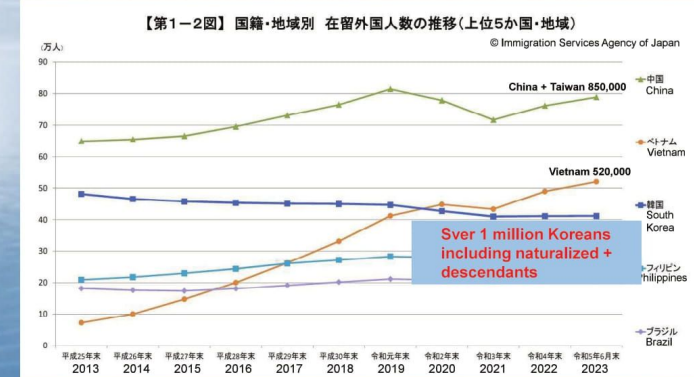
- Cultural Events and Programs
- Japanese Language Education
- Networking and Community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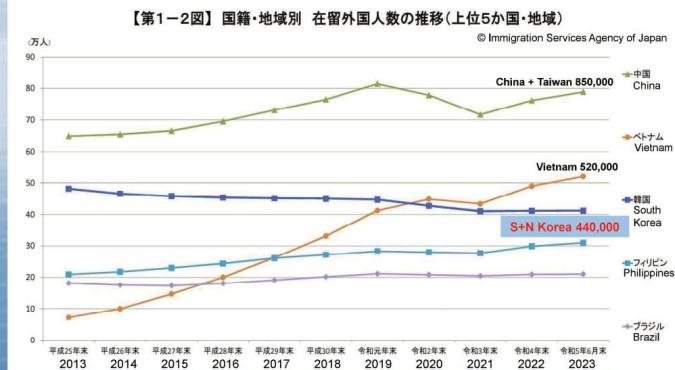
IMMIGRANTS IN JAPAN



IMMIGRANTS IN JAPAN



IMMIGRANTS IN JAPAN



ASSISTANCE FOR IMMIGRANTS IN JAPAN

Government Assistance:

Foreign Residents Support Center (FRESC): FRESC provides a one-stop consultation service for foreign residents, offering support with visa and residency issues, finding employment, and accessing social services.

Immigration Information Centers: These centers offer information and guidance on immigration procedures and related matters.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s: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for recognized refugees, including Japanese language training, job placement assistance, and help with adapting to life in Japan.

Private Organizations Assistance: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Japan (ISSJ): ISSJ offers counseling and support services for refugees and migrant families, including assistance with healthcare, edu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ther NGOs: Various other NGOs offer support to immigrants, including language classes, legal assistance, and community-building activities.

MEDIA'S ROLES FOR IMMIGRANTS

Information and Awareness:

- Mass media, including TV, radio, newspapers, and online platforms, provide vital information about Japanese society, culture, laws, and current events. This knowledge is essential for immigrants to adapt and navigate daily life in their new environment.
- Media can also raise awareness about the challenges faced by immigrants, fostering empathy and understanding within the broader Japanese society.

Community Building and Cultural Connection:

- Ethnic media outlets, catering to specific immigrant communities, help individuals maintain ties to their cultures of origin.
- Mainstream media may also feature stories about immigrant communities, showcasing their contributions and cultural richness to a wider audience.

Advocacy and Representation:

- Media can play a powerful role in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immigrants and highlighting issues of discrimination or inequality.

Social Integration:

- Media can serve as a bridge between immigrants and the broader Japanese society, promoting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interaction.
- Positive portrayals of immigrants in mainstream media can challenge stereotypes and encourage acceptance.

Dos and Don'ts towards diasporas

Don't - EXPECT THEM TO BEHAVE / THINK LIKE YOU.
language / food / culture / history / religion

Don't - FORCE NATIONALISM.
ethnic + racial consciousness

Do - GET RID OF YOUR STEREOTYPE.

Do - ACCEPT THEM AS THEY ARE.

Do - MAKE THEM FEEL AT HOME.

Do - BE CONSIDERATE AND THOUGHTFUL.

Incheon, South Korea, a diaspora mecca, home country, and Incheon tourism paves the way

Discussant **Lee Hyo-jong**
EBS Producer

I'd like to talk about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esting to attract overseas Koreans and global talent to Incheon. Incheon has been a center of Korean migration history, and many overseas Koreans still consider it home.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connect overseas Koreans and the many others interested in Korea and Incheon from around the world, a language, specifically Korean, education and assessment system is essential.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which is currently administered worldwide, i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s commonly taken by international students who wish to learn Korean. However, this test is mainly geared toward academic purposes and is often not suitable for overseas Koreans or global talents who will use Korean in real life, as it focuses on international student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need for Incheon to introduce a separat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for overseas Koreans and global talents is emerging.

1. Global Status of Korean Language and the Need for Education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s increasing the demand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round the world. Hallyu content such as dramas, movies, and music are motivating foreigners to learn Korean,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onversa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is necessary in real life. Korean is not just an academic language, but an important tool for communicating with people in real life and enabling business and cultural exchanges. In particular, overseas Koreans have a strong interest in learning their mother tongue and need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satisfy their desire to connect with their roots.

Currently, TOPIK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meet this need. TOPIK is mainly assessed on reading, writing, and listening, and lacks the speaking skills needed in real life. In this regard, Incheon should take the lead in developing a conversation-orient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for the 7.8 million overseas Koreans in 120 countries and creat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Korean language test.

2. The need to introduce a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led by Incheon City

The curr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is TOPIK, which focuses on grammar an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for international students. However, for those who want to settle in Korea or engage in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with Korea, the ability to speak Korean in real life is important. Therefore, Incheon should develop a conversational Korean language test to attract global talent. If Incheon were to introduce a new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it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n expatriates and foreigners to validate their practical Korean language skills through a test that assesses practical Korean language skills, such as TOEIC or IELTS. It is important to give talented people who can communicate well in Korean in business and everyday life a reason to choose Incheon. This will position Incheon as more than just a city, but a global language education hub.

3. The need for a conversation-oriented Korean language test

Conversational Korean is the most necessary skill for foreigners to live and do business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 current TOPIK focuses primarily on reading and writing, which limits its ability to assess the skills needed in real-life conversations.

Tests such as TOEIC Speaking, IELTS Speaking, and TOEFL Speaking have been successful in assessing overall English proficienc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uch a speaking-oriented test in Korean.

If Incheon City takes the initiative to develop a conversation-bas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it will be able to assess and certify the ability of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to utilize the Korean language in various fields such as business,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 The test will also emphasize the need for practical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and can serve as an essential tool for them to settle or do business in Korea. If the test questions and question banks include Incheon's culture, history, philosophy, tourism, and historical sites, it will be a natural opportunity to promote Incheon as a diaspora city.

4. The need to develop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est, what is important is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Currently, Incheon operates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the diaspora, but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are somewhat limited.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developed to develop speaking skills, which are essential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Korean language test, and this will help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articular, Incheon should leverage digital platforms to enhance its online education programs so that Korean can be learned from anywhere in the world. This will create an integrated system for overseas Koreans and global talent to learn Korean and take the exam.

5. Incheon's vision as a global language education hub

Incheon is already a global city and an important hub for expatriates and foreigners. In order for Incheon to grow into a global language education hub, it needs a strategy that not only introduces a Korean proficiency test but also attracts talented people through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With such a test and training system in place, Incheon could become a center of excellenc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s and global talent looking to learn the language.

This will allow Incheon to become more than just a city for overseas Koreans, but a center for global talent. This language education system will be crucial for the future of Incheon, attracting talent from around the world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cheon needs to transform into a global Korean language city

As a global diaspora city, Incheon needs to transform into a global Korean language city rather than a global English language 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t is common for many cities to welcome foreigners in English, but in order to promot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round the world, Incheon needs to build its identity as a global Korean language city. In this process, Incheon can establish itself as a city where foreigners can use and learn Korean, not just a city where they can communicate conveniently in English.

1. The need to transform from a global English city to a global Korean city

Currently, many foreigners rely on English to communicate when visiting Korea. Incheon is also strengthening its English language services for foreigners visiting for tourism and business purposes. However, it is a shame that native Korean speakers are missing out on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in their own language. Is it really the way to truly experience Incheon and Korea if foreigners come to Incheon and receive all services in English, and Incheon residents respond in English?

It is time for Incheon to move forward as a global Korean language city. We need to build a system where foreigners can have basic communication in Korean within one minute of arriving in Incheon. Helping foreigners have a richer experience in Incheon through Korea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the unique culture and language of Incheon.

2. Build a system that allows foreigners to order in Korean in less than a minute

Language is the first thing foreigners encounter when they arrive in Incheon. Whether they are getting off the plane or walking into a restaurant, the first barrier they experience is Korean. Many foreigners look at English menus and order, but

this process cuts off their experi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cheon needs to change this situation by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foreigners to read menus in Korean and place orders within a minute of arriving, with English phonetic representations, so they can experience speaking Korean themselves as soon as they arrive.

Korean phonetic symbo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uses English phonetic symbols on Korean menus, directions, and service announcements. For example, if a foreigner walks into a restaurant and wants to order bulgogi (the Korean meat dish), and the menu says "bulgogi" in English to show phonetic pronunciation, they can easily pronounce it in Korean. In this way, it is important to build a system that allows non-Korean speakers to order by reading the Korean pronunciation.

Korean language experience: You can help foreigners communicate in Korean through a one-minute Korean language experience system led by the city of Incheon. For example, at airports or major tourist destinations, you can provide foreigners with a basic Korean pronunciation guide to give them the experience of using the language. Along the way, you can provide simple conversational expressions or Korean order phrases to get foreigners excited about communicating in Korean in a short amount of time. Korean is a scientific and global language that can be taught to be pronounced in as little as two hours through Korean alphabets.

3.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Korean pronunciation transcription platform

Building a Korean pronunciation platform is essential to Incheon's success as a global Korean language city. English pronunciation symbols should be provided along with Korean pronunciation on all signs, service information, etc. that foreigners encounter in Incheon for the first time. This will allow foreigners to experience reading and pronouncing Korean for themselves and increase their interest in Korean. Similar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Korean language testing systems such as TOEIC, TOEFL, and IELTS, Incheon should develop a digital platform to make learning the Korean pronunciation system easier. A Korean pronunciation app or pronunciation guide website could help foreigners learn basic

Korean pronunciation even before they arrive in Incheon. Korean pronunciation content: Incheon should provide a natural way for foreigners to access Korean by creating video content, tutorials, etc. to help them pronounce Korean, so that they can learn basic Korean pronunciation before they arrive in Incheon and have the opportunity to utilize it in the local community. Such a system will go a long way toward helping Korean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five languages in the next 30 years.

4. Strengthening our identity as a global Korean language city

To strengthen Incheon's identity as a global Korean language city, it is important to go beyond simple language education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foreigners can use Korean. We need to create a language environment where foreigners can communicate and experience Korean without having to rely on English when they come to Korea, which can contribute to cultural exchange and identity building beyond just tourism. Provide local Korean language experiences: Incheon should run programs that allow foreigners to try out basic conversations in Korean in the city. For example, a campaign could be run that allows foreigners to order and converse in Korean at restaurants, cafes, and shops. This will give foreigners a chance to see how fun it is to use the Korean language and increase their interest in the language. Infrastructure for learning Korean: Incheon should make the Korean language more accessible to foreigners by establishing a language education infrastructure for learning Korean. This could be done by establishing Korean language learning centers or digital education platforms, and by running language experience programs to help foreigners learn Korean and use it locally.

To summarize, Incheon needs to move away from being a global English city and become a global Korean city where foreigners can learn and use Korean.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foreigners can communicate in basic Korean within a minute of arriving in Incheon, and to introduce an English pronunciation system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ers to learn Korean pronunciation. This will help Incheon grow into a differentiated global city where foreigners can experienc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more deeply.

Incheon, a city of diaspora, is open to diversity

Discussant **Heo Tae-yoon**
AdAsia 2023 Seoul Secretary General

I. Strategic Goals

Strengthening Incheon's global brand position by building a city centered on the Korean diaspora. Branding Incheon for the diaspora by leveraging the strategic resource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first immigration destination, the largest number of overseas migrants, and the East Asian hub. Actionable goals for Diaspora Center city branding.

1. Diaspora City's Past - A Great Legacy (Past)

Not only is it the city of humble beginnings, but also the glorious starting point for countless Koreans who have left everything behind to find a new life abroad.

The Korean diaspora long before globalization was a word.

Naturally, the city must now capitalize on this history of noble beginnings to position itself as the emotional cradle of Korean immigration strategic guide

"What better way to honor a city's proud history than by showcasing all the paths its people have left behind?"

It is not only a tourist attraction, but also a reminder of how the city has shaped the global Korean identity both at home and abroad.

2. Largest Immigrant Cities (current)

With the largest foreign population in Korea, unparalleled charm and convenience, it's no surprise that Incheon is the city with the highest number of foreign-born residents

Strategic guides

Promoting multicultural integration: Emphasizing Incheon's 'openness to diversity' as a diaspora city

Cementing Incheon's status as the pinnacle of multiculturalism and showcasing how welcoming the city is to all.

Diaspora Festivals: Because nothing says "we care" like an event, diaspora festivals, celebrations, and business exchanges that inform the foreigner friendly cities program.

This not only promotes local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but also demonstrates how serious the city is about its diaspora, at least for the duration of the event.

3.Center of the Diaspora Global Network (Future)

The center of the global Korean diaspora network Incheon is now the center of connecting diaspora communities scattered across the globe

Strategic guides:

Build a global networking hub: Incheon is a great place for diaspora events, summits, and conferences

Creating the best diaspora global networking hub in the country

II. Diaspora City Branding – Implementation Strategy

1. Incheon's Heritage as the Birthplace of the Korean Diaspora

Strategic idea: Build a global cultural heritage hub
Case Study: Ellis Island (New York, USA), Pier 21 (Halifax, Canada)

These immigration centers not only honor the history of the country's immigrants, but also serve as dynamic cultural and educational spaces Re-branding of the existing Museum of Immigration History in Walmido

Incheon has an interactive exhibit, digital timeline,

and archive of individual immigrant stories.

Diaspora Heritage Center

Center emphasizes the contributions of the Korean diaspora to global society rather than just immigration history

Need to foster strong emotional ties between Incheon and its overseas compatriots

Alternative ideas:

Interactive museum: incorporates virtual reality (VR) to allow visitors to experience historical moments of Korean immigration.

Living Archive: A global digital repository where Korean descendants worldwide can upload their family immigration stories serves as a bridge connecting Incheon with the diaspora community.

Cultural Festivals and Exhibitions: Annual international diaspora festival showcasing art, film, food, etc. from Korean settlement countries to emphasize cultural exchange

2. Embracing Incheon's Role as a Foreigner-friendly City:

Strategic Idea: Promoting multicultural integration with a focus on foreign settlers w Case Study: Seoul's Global Village Center, The Hague International Area (Netherlands) Cities like Seoul and The Hague actively welcome and integrate multicultural populations into their communities rather than merely acknowledging their diversity.

In Incheon, a cultural story of rediscovery and migration establishing a systematic program to celebrate foreign arrivals

Specific ideas:

Plaques and Memorials for Overseas Korean Diaspora: Install a "Wall of Diaspora" with plaques commemorating influential Korean expatriates.

Foreigners Integration Program: Provide customized business and social networking initiatives to support professional development.

Create a platform for development and cultural reintegration

Cultural exchange and mentorship programs:

Establish mentorship programs for expats to share their global experiences with locals and foster mutual learning and appreciation.

3. Positioning itself as the center of the global Korean diaspora network w Strategic idea: Incheon as a global networking hub for the diaspora w Case study inspiration: Singapore as a global conference hub, Silicon Valley (USA) for technology and business summits

Just as Singapore has established itself as a hub for global events and conferences, Incheon can leverage its infrastructure (proximity to international airports, Paradise City, etc.) to become a center for diaspora-related summits and forums.

Build an annual Global Korean Diaspora Summit that brings together entrepreneurs, academics, and community leaders from the Korean diaspora around the world

Specific ideas:

Diaspora Summit and Networking Events: Host an annual diaspora summit with keynotes, diaspora-focused workshops and global networking opportunities

Diaspora Business Roundtables: regular roundtable events for successful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and business leaders to meet with local companies and investors to foster cross-border opportunities

Digital integration platform: Build a digital hub to connect diaspora members around the world and provide resources, business listings, and cultural events

This goes beyond physical conferences and enables virtual global networking year-round

4. Media Strategy for Diaspora City Branding Strategic Idea: Tell the story of the global diaspora through media

Case study inspiration: Copenhagen's "Best Cities in the World" campaign, Amsterdam's "I Am Amsterdam"

Incheon highlights diaspora success stories through engaging digital content Building on a

successful city campaign, Incheon focused on globally relatable storytelling, portraying the city as a thriving place for global Koreans to return home. w
Specific ideas:

Documentary Series: Create a webtoon series or documentary introducing the profiles of successful members of the Korean diaspora, showcasing their journeys from Incheon to abroad, and connecting their global achievements to the city.

Digital Ambassadors and Influencers: Work with high-profile influencers and celebrities in the Korean diaspora to share their stories and build social media campaigns around the

Utilize hashtags such as #IncheonRoots #ReturnToIncheon on your digital platforms

Global Diaspora YouTube Channel: Launching a YouTube channel where prominent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diaspora discuss their stories.

5. Leveraging Diaspora Networks to Create Long-term Value:

Strategy Idea: Diaspora Business Innovation Center

Case study inspiration: MaRS Discovery District in Toronto (Canada), To create sustainable economic value, Incheon is focusing on technology, entertainment (K-pop, K-pop, K-pop, K-pop, K-pop,

drama), and green energy.

Specific Ideas:

Diaspora Investment Program: Encourages overseas Koreans to invest in Incheon-based startups by providing special incentives or co-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local companies

Diaspora Business Accelerator: Incubators created specifically for startups with returnee or diaspora connections, providing mentorship, seed funding, and office space.

Economic Development Zones: Creating special economic zones or diaspora investment funds to encourage business ventures by the Korean diaspora around the world.

III.

With successful city branding campaigns like Ellis Island in the U.S., conference strategies in Singapore, and digital storytelling in Copenhagen, Incheon can strategically position itself as a global hub for the Korean diaspora.

Creating diaspora content to honor the past, embrace returnees, and create long-term economic opportunity Re-brand as the emotional and economic cradle of the Korean diaspora community

The History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Diaspora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Session 3

[Session 3]

The History, Present, and Future of Diaspora

Chairman



Lee Jean-young

Discussant



Jung Hyun-joo



You Dong-ick



Lim Chae-wan



Song Deok-jin

Chairman	Lee Jean-young Director Inha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Discussant	South Korea's Multicultural Transi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Overseas Koreans
	Jung Hyun-joo Director of the Asia Migra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Research Center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the Limitations on Adoptees' Right to Find Their Families
	You Dong-ick Netherlands Catholic Broadcasting Correspondent
	The State of the Global Diaspora and Strategies for Advancement
	Lim Chae-wan Chairman of the World Diaspora Association
	The Evolution of Diaspora and Global Networking
	Song Deok-jin Director of the Far East Future Research Institute

The History, Present, and Future of Diaspora

Chairman **Lee Jean-young**
Director Inha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The history of Korea's diaspora formation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old and new immigrants, and further divided into six phases. The contributions of overseas Koreans to their home country during the immigration process have been diverse and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histor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ity of Incheon have created laws and systems that focus on overseas Koreans.

Old Immigrant (past immigration)

1860s - early 1900s:

The first phase included Koreans who migrated to Manchuria and Yanzhou starting in the 1860s, followed by those who moved to Hawaii and Mexico as labor migrants under the 1902 national policy. Immigration during this period was primarily voluntary for the purpose of labor.

Japanese Colonization:

The second stage is Korean Americans who migrated to Japan and Manchur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often leaving their home countries due to economic exploitation and forced labor.

Emancipation and the Korean War:

The third phase is the return migration back to Korea after liberation and the subsequent Korean War, during which families were scatter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and many were forced to flee or emigrate.

2. New Immigrants (modern immigration)

After the Expatriation Act of 1964:

The fourth phase included new agricultural immigra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Overseas Migration Act of 1964, immigration of miners and nurses to Germany, and family immigration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period, many

Koreans sought new opportunities in South America,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1991 Cold War:

The fifth phase was the post-Cold War period after 1991, when investment migration, early education, and migration of Chinese compatriots to South Korea increased. South Korea became more focused on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its compatriots living abroad.

Since 2010:

Finally, the sixth and final phase is the return migration of Koreans, retirees, and young adults since 2010. Migration and return are occurring simultaneously, with a growing number of Koreans returning to South Korea.

3. Here are some representative contributions

Serving as a Base for Independence Movements
Overseas Koreans were an important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hether they lived in Manchuria, Korea, the United States, or China, Korean Americans were dedicated to the cause of Korean independence by funding independence movements and organizing armed independence movements. Korean Americans in Hawaii and the western United States, in particular,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by raising money for independence movements and supporting provisional governments.

Economic Contributions of Overseas Korean Japanese

Korean Japanese have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For example,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Guro Industrial Complex in the 1960s, Overseas Koreans living in Japan invested and

sent remittances to support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Also, during the 1997 IMF crisis, Korean Americans helped Korea's economy recover through large-scale remittances. Their remittances and investments were instrumental in helping Korea overcome difficult times.

Korean Americans Brain Contributions

Korean Americans have contributed their brains to Korea's development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Many Korean Americans educated and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have returned to Korea to play important rol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ealthcare, and the economy, most notably in the IT industry and biotechnology. They are using their expertise and skills to promote industrial and academic development in Korea.

Labor contributions from Korean Americans

Since the 1990s, Korean Americans have migrated to South Korea and contributed to the Korean economy by providing labor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3D industries (hard, dangerous, and dirty jobs), helping to solve the labor shortage in Korean society. Their contributions have been fundamental to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Cultural contributions through maintaining Korean identity

Despite being immigrants, Koreans abroad maintain their Korean identity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Korean culture and traditions abroad. They continue to maintain their cultural connection to Korea by passing o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Hangeul schools and Korean-American associations. This maintenance of identity strengthens Korea's image abroad and contributes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The diverse contributions of Koreans abroad go beyond mere economic support; through independence movements, contributions of brains, and cultural connections, they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Korea's development and global influence.

3. Overseas Koreans Agency and Incheon, a City of Overseas Korean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Overseas Koreans Agenc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 their connections to their home countries. In June 2023, the agency, which is headquartered in Seoul with some of its organizations located in Incheon, is working on various policies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7.5 million overseas Koreans spread around the world and promote their interests.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verseas Koreans and to further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them. The Ministry also plays a role in helping overseas Koreans work more closely with their home countries through education, legal protection, economic support, and more.

In addit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was declared a "City of Overseas Koreans" in 2023. Incheon is a major gateway to South Korea, and many Korean immigrants have traveled overseas through the city in the past. To commemorate this, Incheon hosts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World Korean Presidents' Conference to strengthen exchanges with overseas Koreans. Incheon plans to further strengthen the links between the city and its diaspora by promoting overseas Korean-related businesses and tourism.

These policies and declarations demonstrate the Korean government's recognition of the economic and cultural contribu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global community and its willingness to work with them to advance national development.

IV. The Role of the Diaspora in Public Diplomacy and the Way Forward

Diasporas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ir home countries and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and through their activities, the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mproving the image of their home countries and realizing policy goals. In particular, many countries focus on using diasporas to promote their policies internationally and advance their diplomatic interests through public diplomacy. They promote their home country's policies internationally and act as advocates for their country's position through policy public diplomacy.

1. Leverage Your Diaspora's Network

Diasporas form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networks across countries, and these networks can be an important asset for home countries to promote their policies on global issues or garner international support. For example, diasporas can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ir home country's policies and act as advocates for their country's position in various international arenas - not just to improve its image, but to promote and support its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public square.

2. Economics and Policy Role in Public Diplomacy

In addition to their economic contributions, diaspora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home countries' public diplomacy. While diasporas can strengthen the economic position of their home countries through investment, trade, and technology transfer, they can als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diplomatic influence of their home countries. In particular, in policy public diplomacy, diasporas can play a role in influencing local policy-making processes or promoting their home country's policies to local political circles. For example, there are examples of Korean Americans actively advocating for issues related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influencing the policies of the U.S. government.

3. The Role of Diaspora in Cultural Diplomacy

Diasporas are also important actors in cultural diplomacy. Diaspora communities spread Korean culture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cultural image of their home countries through their influence. This cultural influence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political relations, facilitating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the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4. Diaspora as a Tool of Policy Public Diplomacy

Countries are looking to leverage their diaspora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ir policy public diplomacy, especially when diasporas gain political and economic clout in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they can be an important tool in realizing their home countries' diplomatic goals.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empowering its diaspora scattered around the world to advocate for

the interests of their home country, and has provided policy support,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Overseas Korean Affairs.

In conclusion, diasporas are an important asset in public diplomacy, serving to strengthen the policy, economic, and cultural links between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residence, making them important actors in policy public diplomacy.

5. Future Directions for Diaspora Development

The future of diaspora is likely to unfold in a more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way.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diaspora communities and their home countries will become closer. As technology advances, and migration continues in its various forms, political and economic engagement with home countries is expected to increase. For example, diaspora resources and networks will be leverag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home country, or to contribute to political stability in the home country.

Furthermore, diasporas are more likely to develop into a multicultural form of society that contributes to the new society while maintaining their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rather than simply assimilating in the new country. While this will depend on each country's immigration policies and social acceptance, diaspora communities will share a variety of social values and cultures and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new country.

In conclusion, diasporas are likely to emerge from their painful migration histories and find themselves at the center of global networks now and in the future. In doing so, diaspora communities will act as bridges between their home countries and their new countries, and become part of a more pluralistic and complex international society. Whereas in the past diasporas were often marginalized and not easily integrated into new societies, in the modern world they are connected through open and multicultural urban networks. This means that with the rise of globalization, diasporas are not just settlers, but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fusing and connecting different cultures.

South Korea's Multicultural Transi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Overseas Koreans

Discussant **Jung Hyun-joo**

Director of the Asia Migra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Research Center

The world has entered an era of great migration.

From the dawn of human civilization to the present, migration has been a key event in human history and a driving force for progress. However, the 21st century is the century of migration, as it is affecting the lives of all citizens of the world on a larger scale, scope, and intensity than at any other time in human history. Korea has recently joined the ranks of migrant countries. In the past, Korea was a migrant sending country that sent laborers such as Padok miners and Middle Eastern construction workers overseas, but in recent years, its status has been rapidly transforming into a migrant receiving country. As of August 2024, there were 2.64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1.99 million long-term residents), making up 5.1% of the total population, indicating that Korea is transition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Globally, recent migration has been characterized by a rise in permanent settlement and a rise in labor migration (OECD 2023). In OECD countries, the largest destination for migrants worldwide, the post-pandemic period saw a record increase in permanent resident migrants (61 million in 2022), a 36% increase in labor migration in a single year (2021-2022), a 15% increase in family reunification visits, and record numbers of asylum applications (2 million) and citizenships (2.8 million) (OECD 2023). South Korea has mirrored this trend, with not only an increase in foreign workers, but also a growing

number of long-term residents and permanent residents.

However, compared to permanent migrants, which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nerally refers to migrants who can permanently settle in Korea by changing or renewing their status of residence, the Korean government's definition of "long-term residents" is limited to foreigners who stay for 91 days or more and have registered their residence. Most of them are difficult to change from their designated status, and there are very few permanent migrants in Korea, as the international definition of permanent migrants allows for de facto permanent residence through status changes and renewals. In Korea, settled migrants consist of a small number of professional and marriage migrants, mostly overseas Koreans, who are the only foreigners who are actually targeted for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while Korea's rapid multicultural transformation as a late immigrant country is being driven by low-skilled, non-resident migrants, marriage migrants and overseas Korean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settled migrants, are the primary targets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Of these, overseas Koreans are the largest group of foreigners in Korea. The overseas Korean visa (F-4) is the largest category of residency status (551,579 in August 2024, or 21% of all resident foreigners), far larger than the 179,602 marriage immigrants. As of August 2024, 139,717 of the 196,205 permanent resident status holders were overseas Chinese (134,388 from China), making up the majority of the settled population. Of the 1.44 million registered foreigners (those who have registered to stay for 91 days or more), 548,984 are overseas Koreans,

with China accounting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387,381), but the number of Koreans from Russia, Uzbekistan, Kazakhstan, and other countries is steadily increasing. In terms of distribution, 78% (427,055 people)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Gyeonggi, Seoul, and Incheon. The concentration of overseas Koreans in the metropolitan area is a notable feature considering that 54.9% of all registered foreigners live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overseas Koreans is in Gyeonggi-do (236,673), with Ansan-si (45,448) and Danwon-gu (31,896) emerging as the municipalities with the most overseas Koreans. Following Gyeonggi-do, Seoul has 147,287 registered overseas Koreans, with Guro-gu (25,566) and Yeongdeungpo-gu (26,052) having the highest distribution after Ansan and Danwon-gu.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 the leading concentrations of overseas Koreans with 43,095 (Ministry of Justice, August 2024,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Statistics Monthly).

Overseas Koreans can be considered quasi-foreigners who are foreigners in nationality but occupy a special position in terms of civic rights and institutional support compared to other foreigners. This is because it recognizes them as members of an ethnic community as a historical recognition of the early Korean diaspora in the context of colonial history and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It is also part of the policy of inclusion of the Korean diaspora, which has been scattered around the world for various reasons, to return the socio-cultural and economic assets of the Korean diaspora as ethnic assets.

After a turbulent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under Japanese colonization and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the Korean people have an unprecedented diaspora resource

of 7 million people. The existence of such a large diaspora with a high degree of ethnic and cultural homogeneity, formed in the postmodern era, can be a very unique factor in Korea's multicultural transition. Most Western multicultural countries have had to pay a significant price for integrating culturally and ethnically heterogeneous groups. In Asia's later immigrant countries (Japan, Taiwan, Singapore), where rapidly declining birthrates and labor shortages after compressed growth have led to rapid immigration policies, the situation is similar to Korea's, but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is either not present in large numbers, is localized and homogeneous, or is politically sensitive and not a target for active inclusion and solidarit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touchstone of Korea's multicultural transformation is the integration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whose size and influence is significant. Supporting the overseas diaspora and fostering a global ethnic network is crucial for Korea's long-term development and smooth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 addition, supporting the settlement and human development of compatriots who have returned to Korea is an immediate challenge to secure a quality labor force and a settled population.

References

- Department of Justice, 2024.8.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Statistical Bulletin.
- Department of Justice, 2023, Statistical Abstract of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 Seokwon Song and Jae-Seok Kook, 2021, Lessons from China and Japan for Korea's Overseas Korean Policy, Migration Policy Institute Issue Brief.
-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the Limitations on Adoptees' Right to Find Their Families

Discussant Yoo Dong-ik

Netherlands Catholic Broadcasting Correspondent

I. Introductio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riginated in the natural law school of liberal political thought in Western Europe since the 17th century, which held that in the state of nature,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endowed with natural rights (natural rights), which basically include the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operty (Locke, 1690).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lso state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can be said to have rights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Donnelly, 2003). Therefore, human rights are natural to human beings and cannot be granted according to any political norms (Paine, 1791).

If all people have inherent and natural human rights just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those human rights are inalienable and are given to all human beings equally (Choi, Yonggi, 2013). It is also called natural rights and moral rights because it is a natural law right that humans have naturally, and it is a right that everyone enjoys regardless of whether the state and actual laws recognize it (Lee Kwan-sik, 2014). Human rights are rights that are inherent in living as a human being from the beginning of life, and it means to have all the rights as a member of society with the most basic and individual values to live a happy life (Lee, Kwon, 2016).

In this way, human rights are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that no one can violate, the rights that are equally given to all human beings, and the rights that must be respected by legal logic.

II. Adoptees and Human Rights

(1)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the Limits on Adoptees' Right to Find Their Families

The family is the basic unit of society and the first environment in which a person's holistic socialization takes place. The family connects the individual to

society and helps to form a healthy sense of "me as an individual" and "me in relationships". People's common desire is to have a happy family, and they feel happier when they are surrounded by their loved ones. Family is an important link between parents, children, and generations, and family is a measure of happiness. While there is individual happiness, there is also a greater sense of happiness in the community of family.

In reality, however, many adoptees are denied this most basic right to family. This is because adoption agencies do not release information about adoptees' birth parents, limiting adoptees' right to even this basic family connection. Many adoption documents come in two forms. Many adoption documents come in two forms: one that was sent overseas at the time of adoption, and a hidden file (called a shadow file) that adoption agencies keep in their own files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family but is not made public by the agency. Even if they do, they often redact parents' names and birthdates, which limits the ability to find a family.

Although a law was passed in 2012 that guarantees intercountry adoptees the right to information about their adoption, many agencies withhold information about birth parents for privacy reason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s identified 367 intercountry adoptions from the 1960s and 1990s that involved document falsification, abduction, or adoption without parental consent. Despite having information about these parents, many adoption agencies withhold information about them, citing special adoption laws and privacy laws.

(2) The Legal Basis for the Adoptee to Locate His or Her Family.

The legal basis for finding biological parents and

siblings is primarily in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the Civil Code.

a. Adoption Special Act

Article 36 of the Adoption Special Law: This article guarantees adopted children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and adoption after they reach the age of majority. This gives adopted children the legal right to know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biological parents, which i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family reunification.

b. Civil law

Article 908 of the Civil Code: Contains provisions on parent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This article supports that adopted children have rights to their biological parents.

C.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ivacy and Freedom of Information Laws: While adoption records are legally protected, adoptees who are adults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ir birth records and related information. This allows them to access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find their biological family.

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Article 17 of the Family Relationships Registry Act: This law provides for the Family Relationships Registry, which gives adopted children the right to access their birth records. These records are an important basis for finding biological parents or siblings.

(3) The Practical Challenges of Finding Family Members.

Most community centers strictly enforce the official document that the person who was adopted and the person who is currently searching for a family are the same person. Even if the adoptee visits the center in person, they may be asked to go to the country of adoption and have the document notarized by the Korean Embassy. This is because there is no official document, such as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that can be used to verify the adoptee's identity in the country.

In some cases, adoptees have not been abl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families because they were adopted, even though their family registry has not been expunged and they are recorded in the Korean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Officials are

so constrained by privacy laws tha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adoptees' ability to find their families.

(4) Other Pressing Issues

South Korea, which began intercountry adoption in earnest in 1954, adopted the largest number of children in the 80s. In 1985 alone, the country sent 9,000 children abroad. An increasing number of adoptees are returning home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However, their return is not always a happy one.

"The Lonely Last Road of an Overseas Adoptee, Still a Stranger (MBC News, 2024)" tells the story of a man who was adopted by the Netherlands 50 years ago and died alone in South Korea after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Another Chosun Ilbo article titled "Overseas Adoptees Returning to Korea in Middle Age... Korea Turns Away Twice" (Chosun Ilbo, 2024). According to the above article, there are no official statistics on the number of adoptees returning to Korea. We can only speculate that the number is somewhere between 300 and 700. Some of these adoptees face many difficulties upon returning to their homeland and are struggling alone to survive. Some adoptees are deported and forced to resettle in South Korea. In fact, in the United States, you can't get U.S. citizenship unless your adoptive parents apply for it at age 18. If they are accidentally involved in a crime, they are deported back to South Korea. If they are deported, they are unable to find a job because they are not proficient in Korean and are forced to live in poverty.

(5) Suggested Counter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to allow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to issue official status documents to adoptees. This would reduce restrictions on their access to public services. In addition, the traditional method of locating family members should be shifted from sending mail to unspecified addresses to covertly searching addresses in cooperation with the police. There are also ways to increase discretion for officials at community centers to attempt to locate adoptees who request to find their birth families while protecting the privacy of the parents. One way to do this is by contacting birth family members who can be located, but not passing the birth parents'

contact information to the adoptee, and instead passing the adoptee's contact information to the birth family. This may give you a chance to find your family without breaking any law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have an accurate count of the number of international adoptees returning home for stability. One way to do this is to get an "F4 visa" for expatriates, which allows the government to keep track by creating a single "adoptee" box on the application.

There is also a need to support adoptee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after returning to Korea. For example, there is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but there is no support for returning adoptees. Since 2013, when the 'Special Law for Korean Compatriots to Acquire Legal Residence Status and Support for Resettlement' was enacted, the government is theoretically supporting the resettlement of 'one-eighth of Koreans' in South Korea. However, this support is not available to returning adoptees. In reality, they live in a worse legal statu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take active measures to help them.

The city of Incheon can take an active role in addressing the human rights of these adoptees. First, it should establish a DNA storage bank system for adoptees who have not found their families or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ies, and publicize and publicize DNA testing for family reunions, which is not yet well known. In other words, Incheon should be more proactive in helping people find their families through the scientific method of DNA. Second, Incheon city officials need to be more flexible with privacy laws when searching for adoptees' families.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law, the discretion of officials should be maximized so that they can actively search for families. Third, we should create a residential town for adoptees to settle in Incheon, where housing costs are lower than in Seoul, so that more adoptees can quickly find stability. Fourth, there are adoptees who want to return home to find their identity and be buried in their homeland. If Incheon can provide a space for these adoptees, like the Mama Park in Paju, they can visit and find psychological stability. Finally, it would be a good alternative for Incheon to create an international town centered on adoptees based on the above policies and conduct international business with them.

III. Closing Remarks

In her presentation, she outlined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the basic human right of adoptees to find their birth families. The country has acceded to the International Adoption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at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1993, but has not yet been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 is expected to be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25.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support for adoptees in finding their families and for adoptees returning home. Adoption is an unjust immigration system that takes away a child's family, native language, and country from a child who has no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se unjust adoptions are not just a problem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countries that accept them. We should cooperate with these countries so that the lives of adoptees can be enriched. These are issues that countries need to solve. In other words, there are aspects of the measures for adopte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aspects that can be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countries should provide adoptees with official identification documents to ensure their legal status. Adoptees who are deported from abroad should be provided with support to help them resettle quickly. The state should give priority to foreign language instructors and provide Korean language training and job training to returning Koreans, especially adoptees, to help them integrate into Korea.

On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cheon City should establish a genetic registry bank and promote the use of DNA testing to find family members so that more adoptees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Another option is to provide low-cost housing for adoptees returning to Korea, so that many adoptees can have an affordable place to live. If the city of Incheon,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can increase the discretion of government official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adoptees to find their families without breaking the law, and provide Korean language and employment training as part of the citizenship process for adoptees who want to settle in Incheon, and then work with them on international assignments, Incheon can grow into an international city with global potential.

The State of the Global Diaspora and Strategies for Advancement

Discussant **Lim Chae-wan**
Chairman of the World Diaspora Association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megatrends'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hyperconnected societies. As the history of diaspora shows, the human world began as a history of migration and evolved into a history of connection. Migration and networking are diaspora's way of being, and we have survived through connections, broken down boundaries through connections, and fostered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connections. Incheon Metropolitan City is calling for a new role and mission for the diaspora as transnational actors to usher in a future era of peace.

1. Names and concepts of global diasporas

1) People are categorized as citizens, non-citizens or nationals, foreigners based on nationality, but many are not included by the national, foreigner dichotomy. These are the sizable expatriate diasporas.

2) Overseas Koreans, are people of Korean descent living abroad, It is used as a universal term to refer to people of Korean desce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acquired citizenship, nationality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3) Diaspora in the modern sense is used as "an umbrella term that encompasses not only the Jewish experience but also the international migration, exile, refugees, migrant workers, ethnic communities, cultural differences, and identities of other peoples" (Chae-Wan Lim, "Overseas Koreans and Global Networks," Hanwool, 2006).

4) The core content of Global Diaspora is international migration, identity, global networks, multiculturalism, transnationalism, and more.

2. Sahwa Culture, Economy, and Media Global Diaspora

1)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diasporas are seen as useful 'capital' living abroad, not as drifters

The conceptualiza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thnic and economic-based diaspora networks.

2) The number of migrants worldwide, including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s more than one billion, and one in seven people on the planet is a migrant, leading IOM Director-General William Swing to call migration "the megatrend of the 21st century."

3) Korea was elected as a member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in 2023, which is a great opportunity to raise Korea's international profile during the 2023-2027 period, at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form a socio-cultural diaspora network for social integration.

4) Currently established ethnic and economic-based diaspora networks need to be expanded to socio-cultural diaspora network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diaspora as 'cultural brokers' in the multicultural era and to set the direction of diaspora.

5) Establishing a transnational and transethnic socio-cultural global network to strengthen the role of social integrators and solidarity by organizing the Harmony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which started as a conference for diaspora researchers, related businesses, and media and expanded to the Diaspora Network General Assembl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s well as the expansion of discussion on diaspora culture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6) Developed agendas for each subcommittee centered on the three pillar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socio-cultural, economic, and media, and developed a model for the role of the media and the role of the diaspora network among scholars, business people, journalists, and diaspora network members.

3. Diaspora by country (2003-2023)

4. Global Diaspora Capitalization Estimates (2002-2019)

5. Diaspora network status by country

6. Estimating diaspora influence and power by country

7. Compare global diaspora practices

- 1) Overseas Chinese and Chinese American Networks
 - (1) Build an economic network of up to 50 million Chinese overseas
 - (2) Build a community around Chinatown
 - (3) Culture and language use and development in China
 - (4) Bringing home the culture with great local adaptation
 - (5) Networking through the World Chamber of Commerce of th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of China (WCGN)
- 2) Jewish Network
 - (1) 6.5 million U.S.-based Jews are highly engaged through AIPAC
 - (2) Building solidarity through weekend school and Jewish camp activities
 - (3) The Jewish community's culture of giving
 - (4) Home Country Support: Technology Transfer, Foreign Aid, Military Service
 - (5) Jewish influence in major U.S. media outlets, think tanks, Wall Street and finance, academia, etc.
 - (6) Theorizing Diaspora Studies
- 3) Network of Indian National Expatriates (NRIs) and Persons of Indian Origin (PIOs)
 - (1) One family lives across multiple countries: creating a family network
 - (2) Bonding through 'Jati' caste and family businesses

(3) 31.2 million global reach: 13.32 million Indian nationals and 17.9 million local nationals

(4) Take control of investments in specific sectors such as hospitality, hotels, etc.

(5) Assist newcomers with living arrangements and information to help them settle in

(6) Mass migration takes over the majority of a region's population Family dominates local commerce and political power: family networks span multiple countries

8. Where the Korean American Diaspora is headed

- 1) Global Korean American Diaspora Network Policy
 - (1) Establishing a system of cultural content ex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Korean and other ethnic diasporas.
 - (2) Globalization and networking of national cultural resource brands
 - (3) Global Korean Diaspora Economic, Cultural, and Media Network Establishment of a Global Cooperation System.
 - (4) World Diaspora Trade Fair Promotes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SME Trade Access
 - (5) Developing a global diaspora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employability.
 - (6) Building and Revitalizing the Global Korean Peace Community
- 2) Building a Diaspora City in Incheon
 - (1) Organize a large-scale global diaspora conference in Incheon every year or every two years
 - (2) Establishmen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Overseas Korean Welcome Center
 - (3) Build a stateless network of compatriots
 - (4) Establishment of the Korean Diaspora Museum in Incheon, Korea
 - (5) Construct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Dongpo Residential Town
 - (6) Create a global Korean American business hub
 - (7) Organizing the global diaspora

The Evolution of Diaspora and Global Networking

Discussant **Song Deok-jin**
Director of the Far East Future Research Institute

Discussion Issues

1. Understand the past and present of diaspora communities to explore possibilities for future development and redefine its role as a global city
2. The history of diaspora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how it has changed
3.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diaspora today
4.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ole of diasporas and their potential for future growth

Diaspora is often used to refer to the experience of forced migration or tragic ethnic separation. A diaspora is the voluntary or involuntary departure of a group of people from their land of origin to another location, or the formation of a group of people. It comes from the Greek word διασπορά, which means "scattering or spreading. Today, diaspora is a global phenomenon, referring to the presence of people who have left their country for various reasons and started a life in a new country.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diaspora communities have become more diverse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ir members have strengthened. The development of diasporas and global networking is making the world a more connected community.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 and are paving the way for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1. Defini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Diaspora

Diaspora is a term that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have left their original region or country and

settled in another country or region. The term comes from the Greek word diasporin, meaning "scattering," and was used in ancient times to describe Jewish communities that had already migrated to other cultures. The concept of diaspora has evolved over time: initially used primarily to describe the forced movement of religious or ethnic minority groups, it has come to encompass voluntary or involuntary migration due to a variety of causes, including economics, war, and environmental change.

Diaspora from Antiquity to the Middle Ages

From the Ancient Greek to Roman periods, many Greeks and Jews spread across the Mediterranean, forming the earliest forms of diaspora. In the Middle Ages, ethnic groups began to spread across Europe and Asia for reasons of trade, conquest, and religious persecution.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finding collaborative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The impact of diasporas on modern society is far-reaching, and their presence is one of the defining features of the globalization era. Their work brings positive change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helping to make the world a more connected community.

3. The Development of Diaspora and Global Networking

Diaspora commun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global networking around the world. They have become major players in facilitating global interactions, bridging diverse cultures and economic activities.

Build a Global Business Network

Diaspora communities play a central role in building business networks that connect their home countries to the rest of the world. From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small family businesses, they driv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a wid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These networks enable economic exchange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and open up new markets.

Promote Cultural Exchange

Diasporas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countries they live in and their original cultures. This fosters cultur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allowing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each other's cultures. Cultural festivals, art exhibitions, and academic exchanges are important activities that strengthen these cultural connections.

Leverag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Media

The global networking of the modern diaspora is closely tied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platforms allow diaspora communities to exchange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participate in global events. These technological means have become essential tools for diasporas to maintain and promote their cultural identity.

Advancing Multiculturalism and Inclusion Policies

The work of diaspora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advancement of multiculturalism and inclusion policies. They demonstrate that diversity and inclusion can lead to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eace and mutual respect in a global societ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Policy Influence

Diaspora commun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re influential in many areas, including immigration policy, foreig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are important referenc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ribute to finding solutions to global issues.

Improving Domestic Awareness of Overseas Koreans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Session 4

[Session 4]

Improving Domestic Awareness of Overseas Koreans

Chairman



Choi Yeon-hyeok

Discussant



Lee Jae-seung



Park Byeong-ryul



Son Jeong-jin



Yoon Kwan-ok

Chairman	Some Suggestions for Diaspora Policy Success and Diaspora U-turns Choi Yeon-hyeok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Linnaeus University
Discussant	Cultural Exchanges in the Age of Diaspora through Diaspora Film Festivals, etc. Lee Jae-Seung Secretary-General Incheon Film Commissiony Media Needs to be Different, Media Needs to be Supported Park Byung-ryul Head of Content Lab Kyunghyang News Improving Compatriot Awareness is a Matter of Survival Son Jung-jin Beyond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Incheon The Shift from Blood Nationalism to Multicultural Nationalism Yun Kwan-ok Editorial Writer of Incheon Ilbo

Some Suggestions for Diaspora Policy Success and Diaspora U-turns

Chairman **Choi Yeon-hyeok**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Linnaeus University

According to the 20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n overseas Koreans, there are 7.32 million overseas Koreans spread across 193 countries. If you include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and those who have established a home abroa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the number of Korean overseas Koreans is already over 10 million.

With Korea's status as one of the world's top five largest economies in terms of trade volume and the importance of overseas Koreans being newly recognized, the Korean Overseas Agency was established in Incheon. Incheon is the first port city in Korea to experience globalization and is home to an international airport that connects global cities like a spider web, so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Overseas Korean Association is significant. A policy that can actively cope with the current crisis of low birth rate is to connect the capabilities of our overseas Koreans who are active in the world with Korea, and to induce and connect the U-turn of Korean talent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role should the Overseas Koreans Agency, Incheon, and media organizations play in the future? We break it down into a few key areas.

Key Areas 1. The Overseas Koreans Agency should have the capabilities of policy and research, big data construction, education, and exchange and communication.

Key Area 2. Incheon should develop a new blueprint for urban development in line with its status as a national gateway and the Overseas Koreans Agency, and establish a diaspora hub.

Key Area 3. The media should strive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creation and participation of public opinion and go abroad to produce various contents

for social convergence and harmony.

Key Area 4. Build the capacity of diaspora-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and lead various private initiatives.

In the following, we'll focus on the challenges and suggestions for fulfilling your role in each of these key areas.

Core Area 1. The Role of the Overseas Korean Service

The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needs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Koreans spread around the world, how they are distributed in each region, what professions and occupations they are engaged in, and what historical pain, sorrow, and adversity they have endured to settle in Korea.

1. The first step i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Diaspora Institute. The institute should have the capacity to collect statistics, identify the capabilities and needs of the Korean diaspora, collect statistical data on local activities, and conduct local public opinion surveys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Embassy.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e are essential for the future direction and policy formu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2. Diaspora means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If the diaspora is able to make a U-turn, Korea can lead the global values of convergence and coexistence with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As Korea becomes a country with diverse linguistic abilities, we should prepare multicultural programs to actively preserve the languages they bring with them and create a place for them to participate.

3.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educational hubs for overseas Koreans to actively consider

a U-turn.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domestic universities, such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identity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ir own schools.

4.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expatriate accommodation facilities so that expatriates can experience the country a few times and gradually settle in, so that long-term planning can encourage U-turns.

5. Even if overseas Koreans want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they may not be able to give up their nationality because they have already established businesses, jobs, property, children's education, etc. in their home country, so they should realistically consider multiple citizenship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U-turn.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much they want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they will never venture out if they give up the possibility of returning if they fail.

6. The Overseas Koreans Agency should organize an annual event tentatively titled "Korean Diaspora Day" in cooperation with Incheon, which should include international conferences, cultural experiences, homestays, and tours.

7. The next step is to open overseas headquarters office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 America. Through these offices, a traveling service team should be created to travel to each region to provide overseas Koreans with various information for support and U-turns, and to actively support them in connecting with domestic organizations.

8. Develop a Fund with KOICA to support volunteers from private organizations to run programs to connect with overseas Koreans in developing countries. KOICA could co-fund the program through matching funds.

Core Area 2. Incheon's Role Incheon is a diaspora hub city and can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es.

1. Establishment of the Diaspora History Museum - The museum will display materials that provide a panoramic view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diaspora and install various experiential facilities to serve as a place to identify identity and revisit the hardships

and adversities of the Korean diaspora.

2. Creating a Hub for International Schools - Since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U-turn for overseas Koreans is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cultural identity anxi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ttract international schools that meet various needs. By making Incheon a hub for international education, we can create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international schools can come and open. Incheon can grow into a global education hub if it creates the conditions to attract international schools from daycare centers, pre-schools, kindergarten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o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3. Create Resettlement Villages -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resettlement villages where expatriates can settle down when they return. Like the German village in the South Seas, this could be an incentive for people to seriously consider a U-turn.

4. Establish a One-touch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one-touch administrative service that can provide counseling and related services to overseas Koreans when they want to settle down. Such a service is considered essential because overseas Koreans who are unfamiliar with domestic administration have the most difficulty accessing government offices, banking services, medical information, etc. due to language barriers.

5. Support Incheon to host an annual Korean Chamber of Commerce conference in conjunction with successful businessmen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6. Create a Diaspora Town - Before promoting Incheon's Chinatown, a diaspora town, a commercial district run by expatriates who have made a U-turn and returned from around the world, can grow into a global tourism and shopping center. The Skärholmen shopping mall in southern Stockholm, Sweden, is an internationally diverse shopping center that, combined with the surrounding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waterfront, is considered an important commercial center in Northern Europe. Benchmarking is recommended.

Core Area 3. The Role of Media

1. Multicultural Competence - It is important for journalists to have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diaspora. Journalists need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various diaspora situation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journalists can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overseas Koreans in Korea through their writings, and the Korean public opinion is also an important place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when they introduce the lives, history, and struggles of overseas Koreans to the Korean public.

2. Open-mindedness and Attitude - It is worth recalling that overseas Koreans can never be reconciled with the view that they are "a burden to the country" or that they leave their homeland when it is difficult and return when they are well-off. Approaching them as patriots who left when the country was weak, and despite the hardships they faced, became successful, remitted money back to their homeland, and proudly represented Korea in their respective fields can help alleviate their feelings of bitterness toward their homeland.

3. Content Creation - If the media creates and airs documentaries about Koreans who have traveled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honored their country, or documentaries about the efforts of the first generation who have been running Korean language schools and cultural classes to sprea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face of adversity (the first generation is already 8-90 years old, so they should hurry up with the production), it will help Koreans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will help foster convergence and unity.

4. Diaspora Media Day -

5. It would be beneficial to create a "Diaspora Correspondent" program with the Korea Press Foundation to allow journalists to experience the realities of the world where Koreans have settled and return to Korea.

Core Area 4. Civil Society Capacity

1. Identify and implement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Various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s can be implemented. For example, startup activities of overseas Korean talents and connections with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can provide a forum for mutual understanding. Organizations such as the K-Diaspora Foundation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support various programs to educate children and youth talents in their home countries. The Korean Overseas Korean Administration should provide funding and support for outstanding private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ir work.

2. Various NGOs should build the capacity to send small teams to operate on the ground. Developing and sending programs that engage local youth and parents with long-term attention and investment, rather than immediate results, can serve as a source of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for U-turns back home.

3. Civilians working in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utilize both employed staff and locally available volunteers such as university students, cadets, and office workers. Funds for these volunteers should be available from the Overseas Korean Affairs Office or,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KOICA.

4. NGOs should develop programs to connect domestic organizations with U-turners, i.e., if they can play a matching role to tap into the resources of expatriates, they can develop programs that allow retirees with different languages, skills, disciplines, etc. to volunteer in after-school programs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Such a matching program could create countless connections.

Diaspora policy is like Millet's harvest. It is the task of picking up our scattered compatriots one by one and integrating them with the Korean people. It can be successful if Incheon, centered on the Korean Overseas Korean Administration, acts as a hub, the media plays a catalytic role through public opinion polls that reunite the Korean people, and private organizations can digest it into various programs.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is process is a comprehensive art that can be orchestrated and refined by the best players to create harmony, just like the performance of an orchestra.

Cultural Exchanges in the Age of Diaspora, Diaspora Film Festivals, etc.

Discussant **Lee Jae-seung**
Secretary-General Incheon Film Commission

The Age of Diaspora

Diaspora used to refer to the Jewish people who liv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maintained their culture while scattered around the world, so the word has come to mean dispersion, separation, or the scattering of the same thing. However, in today's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we are experiencing various forms of migration, such as refugees, deportations, displacement, and immigration, and we are also facing the phenomenon of conflicts, solidarity, and encounters with different identities.

The phenomenon of diaspora is no stranger to Korean society. It is closely linked to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from Incheon to Hawaii, to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s leaving colonial Korea, to displaced persons and separated families during the Korean War, to Korean nurses and miners leaving for Germany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Now that Korean society has entered the era of depopulation, intermarriage is no longer a foreign concept, with migrant women and migrant workers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ve arisen in the process. Songdo International City, where the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will be held, is a new city built by reclaiming the sea, and it is also a city that has been populated by the relocation of various global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nd their employees and families.

Yemeni refugees fleeing the devastation of civil war, Lai Dai Hanh and Kofino born during the Vietnam War and economic hierarchy, and many other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urrent era is the era of diaspora. The unfortunate reality is that hatred, discrimination, and conflicts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majorities and minorities are very serious. It is clear that overseas Koreans, a large part of the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have also struggled with being categorized as migrants somewhere, minorities in some situations, and being perceived as 'outside' and hated by the societies they belong to.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diaspora no longer refers only to exoticism, but also to the ever-changing diversity of the world and the possibilities for coexistence in this context.

The Diaspora Film Festival celebrates diversity, unity, coexistence, and respect.

Incheon has been a center of migration and immigration since it opened its doors. In 1902, Korea's first immigrant ship left Incheon Harbor for Hawaii, and more than 100 years later, people still arrive and depart through the port and airport. Through the memories of a century, Incheon is a city that holds the excitement and sadness of many people leaving and arriving, and their cultures, including Chinatown, Korean Village, and International City. Incheon is a city of hospitality and coexistence, a city that lives with various identities that come in through the sky and sea.

Since 2013, Incheon has been hosting the Diaspora Film Festival with the motto of 'values of diversity and tolerance' based on the geo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Incheon. Each year, the festival holds an academy program centered on the screening of 80 diaspora-themed films from more than 20 countries, and experiential programs such as food, games, and performances from various countries are held around the port.

The first Diaspora Film Festival started with the screening of problematic works on the theme of diaspora and was centered on direct stakeholders. It did not take long to realize that although it was possible to think and discuss the topic in depth, it was limited in term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awareness. Since then, the festival has become a 'comprehensive cultural arts festival' that allows people to experience films and other genres of culture and arts, while also experiencing play culture from around the world, sharing food together, and swapping objects to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through programs. It was an attempt to engage the public through play and experience rather than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through writing and discussion.

Diversity is now a global trend

In the 10 years of organizing the Diaspora Film Festival, we have witnessed many changes. Perhaps the first publicly recognized sign was Bong Joon-ho's *Parasite*. It was the first Korean film to win both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the American Academy Awards. It was a strange thing that a Korean movie, which was considered a fringe movie, took over the world. But it didn't end there, as Netflix's "The Squid Game" hit the global TOP1, people around the world began to show great interest and enthusiasm for K-culture. Just when we were wondering when Korean films, which were treated as fringe films,

became the center of the world, Hollywood, the center of the world's film industry, released diaspora-themed films such as *Minari* (directed by : (Director: Jung Isaacs/ 2021), *Pachinko* (Director: Justin Jeon/ 2022), *Adult Men* (Director: Lee Sung-jin/ 2023), and *Fastlives* (Director: Selin Song/ 2024) are being produced one after another and are receiving good responses. This phenomenon indicates that overseas Koreans have overcome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their societies and are being recognized globally and utilized as key members of the world.

If for a while, American-centered films were the mainstream, it is now the time to communicate with various people around the world through unfamiliar eyes, such as those of strangers and minorities. In other words,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and diversity should be accepted as a global trend. In that sense, the 13th Diaspora Film Festival, which is scheduled to be held in 2025, will establish the '(Tentative) Diaspora Filmmaker Award' for diaspora filmmakers who have overcome adversity and shone in their homeland, and invite diaspora filmmakers to the festival every year to exchange and collaborate with Korean filmmakers.

How will the descendants of ancestors who left more than 100 years ago feel when they return gold to their homeland? We look forward to a new era, new exchanges, and new beginnings through culture and art.

Media Needs to be Different, Media Needs to be Supported

Discussant **Park Byeong-ryul**
Head of Content Lab Kyunghyang News

Centered on reflection and suggestions

"Awareness gap comes from biased/biased information and lack of communication" (India)

"Right now, there is a complet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the outside world, and the media is not doing its job" (United States)

"Interest skewed toward diaspora in politics, law" (U.S.)

I was asked to discuss the topic 'How to bridge the perception gap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through media' and asked several overseas Koreans for their opinions. The stories I received via KakaoTalk were different, but the common thread was that the domestic media is not doing its job, and there were many concerns that it is not just not doing its job, but actually making the situation worse. As a working journalist, I was unable to rebut their criticisms, as I had the same concerns about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Korean media and the way the Korean media covers overseas news, including overseas Koreans.

It's a fact that South Korean media is losing credibility. According to the Korea Press Foundation's annual 'Media Reception Survey (2023)' report, trust in the news as a whole dropped from 3.32 points in 2021 to 3.27 points in 2023. The decline in trust in the media has been steady as partisanship has become more pronounced and partisan, and the flood of online news has resulted in a flood of unverified stories. The public airwaves have also been hit by the winds of regime change, and I realize every time I go abroad that trust is not what it used to be. I've even heard overseas Koreans sigh that they wish they could do as much as the BBC or NHK.

The problem is where the media is missing. Expats are getting their information from somewhere else, and that's YouTube. By their very nature, YouTube

videos are often sensationalized, unverified news, and more often than not, they incite conflict and antagonize rather than promote unity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get likes and star bubbles from readers, the content has to be more sensationalized and the partisanship more extreme.

If you look at YouTube videos, there are many so-called 'patriotic' videos about Korea and 'hate' videos about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hateful videos about a particular country are harmful in that they can indirectly create a bad image of that country and eventually instill a negative image of the Korean diaspora living in that country. Excessive "country bashing" videos can also lead to disrespect for those who are working hard and engaging in private diplomacy. Media creates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drives politics, which drives laws.

"Overseas Koreans feel that they have worked hard in other countries and have made Korea shine, but the perception of politics, law, media, and the public at home is often very offensive because they feel that they are trying to get a free ride on the country's rapid growth over the past few decades," said Mr. Gyopo.

It's true that expatriates are not covered much in the domestic media. Even when they do, they tend to focus on those in positions of power, such as politics and law. For example, second-generation Koreans who are part of presidential campaigns or running for local elections. There are relatively few articles about small business owners, artists, educators, literary figures, etc. The reason for the media's lack of attention to overseas Koreans is that they are not the focus of international news, nor are they the kind of content that attracts readers'

attention. Especially in today's internet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produce content without so-called PV. Legacy media outlets are also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provide public interest reporting, as competition among media outlets is rapidly eroding their profitability.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write articles with a sense of mission if there is no revenue from advertising, PV, etc.

The media environment is likely to get worse, not better, in the future. In such a situation, it is unlikely that the media will voluntarily play a meaningful role in bridging the perception gap and connecting expatriates and Koreans.

But we can't let that happen either. With a declining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Korea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rconnected with the outside world. In order for the media to play a positive role, it will require both internal and external efforts.

First, essentially, the media needs to rebuild trust. It has no role to play if it continues to lose credibility with expatriates and nationals alike. At the very least, legacy media must be trusted to be public and reliable. Only then will people, both local and foreign, turn to the media instead of YouTube.

Next, social support is needed for media change. First, it seems necessary to invest financial resources to induce reportage. Funding can come from media-related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Press Foundation, local governments such as Incheon, and administrative budgets such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lternatively, companies can raise funds through advertising. Funding can come in the form of direct coverage, but it can also come in the form of indirect support through related advertisements.

It's not easy for the media to cover a story at their own expense when public opinion is low. Especially overseas coverage involves significant expenditures. Since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the media to receive support from outside organizations after the Kim Young-ran Ac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move with determination.

Assuming funding is available, the following programs could be restricted by the press.

1. Strengthen Our Expatriate Media Program

Programs such as KBS's Global Compatriots Report, which introduces the stories of overseas Koreans to Koreans, have contributed to building empathy. These programs help Koreans understand the lives of overseas Koreans and make them feel connected to Korean society.

2. Expand Multicultural Content and Exchange Programs

You can create a variety of dramas or documentaries that tell the stor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migrants. This can help expatriates understand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help people in the country understand them better.

3. Utilize Social Media/YouTube for Media

Each media organization has a social media/YouTube account. They can use them to run various programs. They can organize online discussions or cultural exchange programs that bring together expatriates and locals. There are also ways to produce and disseminate various contents using YouTube videos and shorts produced by the media themselves.

4. Public Media Campaigns

Governments and the media can work together to promote programs that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xpatriates and their contributions through public campaigns. This could be a year-round or long-term campaign, not limited to a specific day such as World Expatriates Day. For the media, it could be linked to their revenue streams, which could encourage them to produce more programs.

5. Co-created Projects with Expatriates

There are many talented Korean content creators abroad. Collaborative documentaries, entertainment programs, etc. between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can help improve mutual understanding. This can also be facilitated if part of the production

costs are supported through fund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print media to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of excluded Koreans by establishing a section where they can talk about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etc. In the past, the Weekly Gyeonghwa has had columns on Vietnam, India, and ASEAN as regular columns. They were highly readable because they delivered the latest news from a Korean perspective. Some of the

writers are active now.

Legacy media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sometimes 100 years. There are many problems, but there are also many human and technological networks that have been accumulated. We definitely have something to contribute to bridging the gap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in Korea. I hope that today's event will lead to many discussions that will lead to productive results.

Improving Compatriot Awareness is a Matter of Survival

Discussant **Son Jeong-jin**

Beyond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Incheon

Raising Citizens' Awareness of Migrants: The First Step in Addressing Diaspora Issues

As South Korea prepares to move beyond the era of 2.6 million foreigners (June 2024, Ministry of Justice) and enters the era of 3 million, 'diaspora' has now become a top national priority. In particular, discussions around the population cliff often cite immigration as a potential solution to the crisis of "securing consumers, taxpayers," and labor providers. Some analysts estimate that South Korea needs at least 1 million to 1.5 million more migrants to address these concerns.

However, as the experience of countries like Germany and other European nations shows, increased immigration doesn't always lead to higher birth rates or a significant addition of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who contribute to societal value. In fact, attempting to solve population problems through immigration alone is far more complex. The European experience reveals that when migrants fail to integrate into a healthy society, they may face poverty, which can lead to increased welfare costs or contribute to social tensions, such as crime and riots.

In South Korea, if migrants are subjected to the same social pressures that deter larger families—such as housing costs and the high cost of private education—they will likely face similar challenges in having children. This could accelerate the risk of an aging population similar to that of Germany.

Many European countries now bear substantial social costs as a side effect of mass immigration. Sweden, for example, is facing a national crisis, as acknowledged by the country's prime minister. The only way to avoid repeating these mistakes is to "ensure stable economic settlement and healthy cultural integration of migrants into society." Thi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wo key factors: "active efforts to integrate migrants into the host country"

and "enhancing citizen awareness and perceptions of migrants in the host country."

In other words, fostering respect for diversity and the inclusion of migrants starts with cultivating the right perception of them. In a country like Korea, where returnees make up about half of long-term resettled migrant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diaspora, particularly the Chinese-Korean diaspora, who have faced considerable hardships.

Improving Citizen Awareness of Diaspora Compatriots

The Chinese-Korean community has suffered the most from negative public perceptions. Many work in 3D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industries or as support staff, such as domestic helpers, caregivers, and restaurant workers. Since the early days of migration, they have often been associated with the social underclass, referred to colloquially as "Joseonjok" (ethnic Koreans from China). Media portrayals in films like Young Police and Crime City have further stigmatized the Daerim-dong area, where many Chinese-Koreans live, as a hub of organized crime, reinforcing these negative stereotypes.

Such perceptions have led to low self-esteem and identity confusion within the Chinese-Korean community, particularly among younger generations. These stereotypes also pose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i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While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situation, deeply ingraine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ersist. Kim Yong-sun, chairman of the Hanmom Association, a youth organization for the Chinese-Korean diaspora, lamented in 2022, "If we had established a healthy civic organization to support the Chinese diaspora and raise awareness early on, we could have made positive changes before the situation worsened."

In the case of the Korean diaspora in South Korea, starting in the 2010s, suppor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ried to create a different environment by using the experience of the Chinese-Korean community as a cautionary example. They emphasiz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Korean diaspora, particularly their descent from Koreans who were central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ir resilience in overcoming the hardships of Stalin's forced migrations. This message has since spread throug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cholars, religious groups, media, and political leaders, including the president, who have frequently highlighted these points.

Success in Raising Awareness

Beyond, a civic organization supporting the Korean diaspora, began its activities 12 years ago in Ansan, Gyeonggi-do, a region known for its large diaspora population. Since its inception, the organization has made raising awareness about the Korean diaspora one of its core missions, working consistently on this front.

One pivotal moment occurred in 2017, when Beyond ran a campaign advocating for the recognition of fourth-generation Koreans as compatriots rather than foreigners. In 2018, with support from the Gyeonggi-do and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s, Beyond conducted projects aimed at improving diaspora awareness in these regions. These initiatives included lectures on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for students,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the publication of booklets on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and independence heroes, and cultural events and exhibitions. A particularly successful program involved the village chiefs of Tatgol Village in Ansan, who took courses on Korean migration history and Russian language, volunteered with the local diaspora community, and became proactive in fostering engagement. One village chief, after retiring from civil service, continues to work as a community administrator and volunteer.

Ongoing Policy Support and the Role of the Media

Despite these positive developments, negative perceptions of the Korean diaspora persist in more than a dozen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2020, residents of Hambak Village, an area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Korean diaspora residents, expressed mixed opinions, ranging from "neutral (30%) to positive (43.5%)," with 26.5% holding negative views. Common complaints included a "lack of respect for basic social order, such as separating garbage (34%)" and "rejection due to differences in living cultures (34%)." (Incheon Women's Foundation Survey, 2020)

This is a pattern seen in societies with limited experience in living alongside diverse cultures. Despite the macroeconomic contributions of migrants—such as increased labor, consumer demand, and tax revenue—negative perceptions are often shaped by individual discomfort or minor inconveniences in daily life.

Thus, it is critical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expand and sustain compatriot awareness projects. Regular cultural events should be organize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local residents and diaspora communities, fostering healthier relationships. The media also plays a vital role in shaping public perception, and its influence on this issue cannot be overstated.

Incheon: South Korea's Representative Global Diaspora City

Incheon is unique in that it represents both a high-tech cosmopolitan city like Songdo and a community of hardship, like Hambak Village. More than anywhere else, Incheon must realize the concept of an "inclusive city" as proposed by the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 during its 3rd General Assembly. The successful resettlement and integration of the Korean diaspora are essential to this vision.

Incheon should strive to become a model city where diversity and inclusion are harmoniously realized, providing a vision for the future of South Korea as a whole. To achieve this, it is crucial to build Incheon's identity as a city where diaspora diversity is a source of prosperity and development. We hope that local governments, media, and civil society will take the lead in this new era of global diaspora.

The Shift from Blood Nationalism to "Multicultural Nationalism"

Discussant Yun Kwan-ok
Editorial Writer of Incheon Ilbo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overseas Koreans were granted the right to vote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pril 11, 2012). Although limited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verseas voters and overseas absentee voters over the age of 18 with Korean citizenship were able to exercise their sovereign rights at 158 overseas polling stations in 107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was a historic milestone, marking the return of overseas Korean voting rights 40 years after they were suspended during the October 1972 military coup.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was enacted on May 9, 2023, and implemented on November 10, 2023. The government agency, the Korea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opened its headquarters in the Songdo Buyoung Tower in Incheon on June 5 of the same year, giving Korea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 unified and consistent overseas Korean policy.

In line with the national system overhaul, the overseas Korean policy has also changed. In addition to the more than 800,000 ethnic Koreans living in Korea, various overseas Korean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included in the overseas Korean policy.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defines the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as: (1) those who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are living abroad for a long period of time or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2) those who have Korean citizenship by birth (including those who moved abroa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or (3) those who do not have Korean citizenship as a direct relative. Based on

these criteria, the overseas Korean population in 193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estimated to total 7.08 million (as of the end of 2022), including 4.61 million foreign nationals (citizens) and 2.46 million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include (1)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 their bonds with Korea; (2)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overseas Korea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country where overseas Koreans live, as well as various conditions such as generation and age; (3) not discriminating against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ir country of residence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overseas Korean policies; (4) creating conditions such as securing personnel and organizations and providing budgetary support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overseas Korean policies; and (5) harmonizing overseas Korean policies with policies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owever, the awareness and favorable perceptions of overseas Koreans among Koreans are still not high, or they are still characterized by preconceived notions, distorted perceptions, and negative perceptions.

In fact, the results of the Korean Foundation for Overseas Koreans (*dissolved on June 1, 2023)'s 'Korean Perceptions of Overseas Koreans' survey reflect this reality.

In a 2007 survey of 708 South Koreans (adults), 66.3 percent of respondents rated their closeness to overseas Koreans as strong, 25.7 percent as moderate, and 7.9 percent as not sure. In terms of

what it takes to be a true Korean, 56.9 percent said they were proud and conscious of being Korean, 17.2 percent said they had Korean nationality, 15.0 percent said they had Korean ancestry, 7.6 percent said they spoke Korean, and 3.2 percent said they had lived in Korea for most of their lives.

A 2013 survey of more than 800 Koreans (adults) found that 54.7% of Koreans felt close to overseas Koreans, 40.5% felt fairly close, and 4.9% felt unsure. When asked if they identify with overseas Koreans, 67.2% said yes, and when asked if they recognize overseas Koreans as an ethnic group, 65.6% said yes.

According to the 2022 National Perceptions of Overseas Koreans Survey, the favorability of overseas Koreans was 29.4% positive, 57.8% fair, and 12.8% unfavorable. The favorability ratings were 33.5% positive, 50.5% neutral, and 16.0% negative. Regarding the contribution of overseas Korea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 32.0% of the respondents were positive, 44.6% were neutral, and 23.4% were negative.

Over the past 15 years, from 2007 to 2022, Koreans' closeness to overseas Koreans has been on a downward trend, with less positive perceptions. This change in perceptions was attributed to the weakening of Korean identity due to generational changes in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living in Korea,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who have lived in different culture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nd conflicts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in the process of settling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negative perceptions of Koreans toward overseas Koreans and to achieve the national policy goal of having overseas Koreans

stand as partners in Korea's development as a global backbone, it is urgent to set policy directions that can secure homogeneity and identity by soberly capturing the ambivalent attitudes of Koreans toward overseas Koreans, such as acceptance and exclusion, prejudice and tolerance, and complex socio-psychological and cognitive situations.

In order to build a coexisting and co-prosperous Korean community, a new principle of social integration must be proposed that is inclusive of overseas Koreans of various cultures, classes, and identities, while at the same time appealing to Koreans. In other words, we are now faced with the task of shifting and expanding our perception from 'blood nationalism' to 'multicultural nationalism'.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Incheon region needs to unite the capabilities of actors in each area to promote priority measures, and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Incheon Metropolitan City should seek to expand its budget along with the actualization of 17 projects in the area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Basic Plan for Creating the First Foreigner-Friendly City of Incheon" (2024-2028).

The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hould shift from ethnic homogeneity (white ethnicity, pure bloodedness) education to 'ethnic commonality' education and promote comparative culture (bilingualism, bicultural knowledge)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black and recognized textbooks to improve overseas Korean awareness in the next gener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Incheon local media should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civic consciousness through coverage and reporting that leads to awareness-raising so that people can establish their identity as Korean citizens while recognizing diversity and differences.

Collaborating with Incheon to Become a Global Top 10 City

2024 Incheon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Session 5

[Session 5]

Collaborating with Incheon to Become a Global Top 10 City

Chairman



Kim Ju-hoon

Discussant



Nam Kyeong-seon



Lee Hee-yong



Jung Young-sun

Chairman	Kim Joo-hoon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Discussant	<p>Creating an Incheon-style Expatriate Hub City</p> <p>Nam Kyeong-seon Director of the Overseas Korean Cooperation Planning Divi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p> <p>Make Incheon a Pro-compatriot and Multicultural International City</p> <p>Lee Hee-yong Columnist Specializing in Overseas Koreans</p> <p>Incheon's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CIS Countries</p> <p>Jung Yeong-sun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p>

Creating an Incheon-style Expatriate Hub City

Discussant **Nam Kyeong-seon**

Director of the Overseas Korean Cooperation Planning Divi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Laying the groundwork for Incheon as a friendly city for 7 million overseas Koreans

Since winning the bid to host the Overseas Korean Administration last year, Incheon has been racing to become the capital of the world's Korean Americans and a hub for their activities. It was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the count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overseas Korean support and expanded it to a bureau this year (24.1.8., Global Business Cooperation Center), and enacted the "Ordinance on Cooperation for Overseas Korean Support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23.12.29.), laying the institutional groundwork for overseas Korean support, exchange, and coope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above ordinance,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Overseas Korean Support Cooperation Committee' was formed (24.6.28.) with the Mayor of Global City Government as the chairperson and representatives from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Overseas Residents Administration and major Korean organizations.

Expatriate Exchange-Networking and Setting the Tone

Based on this, Incheon is strengthening its Korean-American network by increasing contacts with Korean-American organizations in Korea and abroad with whom it has had relatively little cooperation.

By signing a "Business Agreement for Economic Exchange Cooperation" with the General Federation of Korean American Chambers of Commerce in the United States (78 regional chambers of commerce, about 300,000 Korean Americ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largest Korean American business organization in the U.S., on October 10, 23.10.10, the two organizations agreed to cooperate in promoting exchang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investment promotion and export expansion among companies in the jurisdiction, support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and networking between Incheon City and Korean American companies.

In addition, the city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World Korean Trade Association (71 countries, 150 branches), the largest overseas Korean business community organization, on 24.5.14. to foster a Korean business hub and cooperate in economic exchanges, and promised to ▲ support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ment attraction activities such as sharing domestic and overseas company information ▲ promote economic exchanges such as expanding overseas exports of companies in Incheon ▲ establish partnerships to attract Korean business-related events to Incheon ▲ and build a network of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Build networks and attract investment through expatriate exchange programs

In addition, the city has made efforts to promote Incheon to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1.5 to 4 generations), who have relatively little contact with Korea.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Overseas Koreans Agency, the "Overseas Korean Youth Home Country Training Program" (July 24-August 24) is an event that invites overseas Korean youth from around the world to Korea to foster the identity of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build a network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youth, and this year, 1,200 overseas Korean youth spent two days and three nights of the total schedule (seven days) in Incheon with 600 local youth.

Together with the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city supported the OT and opening ceremony, visits and exchanges with schools in Incheon, tours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tours of the port, allowing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 youth from around the world to experience and see Incheon's history, culture, high technology,

and industry firsthand. In addition, Incheon hosted the "22nd Next Generation Global Entrepreneurship Trade School Home Country Visit Training" (24.7.1-6.), hosted by the World Korean Trade Association, where 117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business leaders under the age of 39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future indust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network with local startup companies, and experience Incheon's history and culture. In addition, Incheon is continuously striving to build networks with overseas Korean businessmen and women and attract investment in order to become a global business hub.

Incheon City co-hosted the "2024 World Korean Business Forum and Export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24.8.29.) under the theme of "K-Beauty Proliferation and Korean Business Growth Strategies" to provide a forum for discussing win-win cooperation between overseas Korean businessmen and companies in their home countries and to build a network. In particular, the "K-Beauty Expert Consultation" was a one-on-one business pre-matching event that was well-received by the participating companies, with 19 overseas buyers from 13 countries and 45 domestic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event, resulting in 113 consultations and KRW 18.4 billion in sales. In October, Incheon will participate in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gress 2014" (Jeonju, Jeollabuk-do), organized by the Korean Overseas Korean Association, and the "28th World Korean Businessmen's Congress" (Vienna, Austria), organized by the World Korean Trade Association, to attract investment, network with overseas Korean businessmen, and promote linkages with exporters in the region.

Promoting the Creation of Overseas Korean hub cities in earnest

Having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cheon-style overseas Korean policy, from 2025, the city plans to further revitalize exchanges, cooperation, and business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Incheon to create an overseas Korean base city that touches the skin of Incheon citizens. To this end, the Overseas Korean Welcome Center, which provides integrated information about Incheon for overseas Koreans, and the Korean Business Center, which supports business activities and investment, will open in the building where the

Overseas Koreans Agency is located (24.10.18).

The Overseas Korean Welcome Center plans to build and operate a website that can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on housing, medical care, tourism, education, and more, and utilize various facilities within the center to serve as a communication and exchange space for overseas Koreans visiting and living in Incheon. In addition, the Korean Business Center will be established within the Overseas Korean Welcome Center to provide business information, investment counseling and consulting support for overseas Korean businessmen and companies, and free business office space to actively support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by creating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for overseas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the city will declare the two-year period from 2025 to 2026 as the "Overseas Korean Incheon Exchange and Visit Years" (24.10.18.). This will create a pan-citizen overseas Korean-friendly atmosphere to encourage overseas Koreans from around the world to visit Incheon and promote and brand Incheon as a top 10 global city to its 7 million overseas Koreans. Incheon was also successful in bidding to host the 29th World Economic Forum (October 2025). Organized by the World Korean Trade Association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Ministry of Overseas Korean Affairs, the convention is the large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s convention in Korea, with about 3,000 Korean businessmen from around the world.

Incheon City expects the competition to help domestic companies expand overseas, increase the city's brand value, and grow tourism and the local economy, and will use it as a lever to further promote Incheon as a business hub for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the city will promote the Incheon-style overseas Korean policy through diaspora film festivals, Korean American media organizations, and various new media outlets, and collaborate on related programs so that it can permeate the 7 million overseas Korean community.

As such, Incheon has been working hard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establish relevant systems, and sign business agreements with influential Korean-American organizations, but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realize a systematic and detailed Incheon-style overseas Korean policy so that Incheon can grow into a top 10 global city.

Make Incheon a Pro-Compatriot and Multicultural International City

Discussant **Lee Hee-yong**
Columnist Specializing in Overseas Koreans

The city of Incheon recently declared, "Following the opening of Jemulpo (1.0) and the opening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0), we will usher in the Incheon Port 3.0 era with a new leap toward becoming a global top 10 city." This is a timely and resonant declaration.

Becoming a global city requires fulfilling several conditions, including accessibility, transportation, tourism infrastructure, openness, job opportunities, education culture, healthcare quality, housing, and political stability. Incheon is one of the few Korean cities that has a good combination of these attributes. It also has a relatively low level of localism and exclusivit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most of which are common to major cities in South Korea: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diaspora, exclusionary attitudes toward foreigners, stagnant economic growth, an unstable security situation, a high cost of living, fragmented policies regarding the diaspora and multiculturalism across ministries, and the absence of a medium- to long-term integrated immigration policy.

Another issue is that infrastructure related to tourism and high-quality jobs is concentrated in Seoul. Incheon's proximity to Seoul gives it advantages compared to other cities in Korea, but it also places Incheon in the position of being a satellite city of Seoul. There are, however, several initiatives that Incheon can pursue, either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or independently.

1. Attr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currently based in Incheon,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sia-Pacific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NAPCICT),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Regional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the Green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among others. Hosting such organizations enhances the global image of a city and promotes a sense of internationalization among its citizens. It can also help create jobs.

While it may not be easy for Incheon to attract the headquarters or secretaria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is believed that it is possible to host Korean representative offices or regional offices. For example, the IOM Institute for Immigration Policy Research, established under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was originally located in Goyang but has since relocated to Seoul. It is worth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ttracting similar offices to Incheon.

Additionally, the city could consider ho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Korean representative office.

2. Host International, Compatriot, and Multicultural Events

Incheon has already made active efforts, such as enacting the "Ordinance for Cooperation in Support of Overseas Koreans" and signing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World Korean Trade Association. In addition to these efforts, Incheon should actively attract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events to enhance its image as an international city.

3. Establish an Expatriate Education and Cultural Center

The Korea Foundation for Overseas Koreans, in cooperati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d previously attempted to build an overseas Korean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in Magok-dong, Gangseo-gu. Now, the project

has shif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s Siheung Campus, with a goal of completion in the first half of 2026. However, if such a center were established in Incheon,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immigration, it could enhance awareness of overseas Koreans by connecting with the Korean Immigration History Museum in Wolmido, Incheon.

4. Advocate for a Unified USCIS

The Ministry of Justice's plan to establish an immigration agency has stalled. Experts are suggesting a unified agency combining immigration and compatriot affairs. Incheon could take the lead in advocating for this unified ministry and promote itself as the ideal location for the agency, collaborating with the Korea Compatriots Agency already based there.

5. Build a Reverse Immigrant Town

Reverse migration is occurring among people in the Americas who have long histories of immigration. These people, separated from neighbors and relatives for a long time, often prefer to live in groups with similar experiences. It could be interesting to position Incheon as a destination for reverse migration, enhancing its image as a welcoming city for returnees.

6. Lower the Age for Obtaining Multiple Citizenship

Currently, dual citizenship can only be obtained at the age of 65 or older. Lowering the age to 40 or 50, considering military service issues, could attract expatriates to return, do business, invest, and live in their home country. The case of Tesla founder Elon Musk, who holds triple citizenship, shows that this is not an unusual arrangement. Thinking outside the box on this issue could yield significant benefits for Incheon and Korea.

7. Establish a Standing Council with Relevant Ministries

A permanent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with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Overseas Koreans Agenc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council would ensure close cooperation and gather input from both Korean and

foreign organizations.

8. Actively Support Civic, Compatriot, Multicultural, and Foreign Communities

Incheon should actively support civic organizations, compatriot and multicultural groups, and foreign communities like the Vietnamese and Mongolian Associations in Korea. Encouraging these organizations to relocate their offices to Incheon could strengthen the city's role as a multicultural hub.

9. Enhance Training o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Expatriates

Education of overseas Korean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global citizenship should be strengthened at all levels of schooling, from kindergarten through university. Civic lectures and programs at museums and libraries should also be increased.

10. Improve Education for Migrant Youth and Multicultural Children

Efforts must be made to provide educational and career support, as well as counseling, to help immigrant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grate and thrive in Korean society.

11. Expand Counseling Centers for Foreigners and Migrants

The social support system should be improved, with more support centers for foreign workers, students, and marriage migrants to help them settle in Incheon without facing inconvenience.

12. Promote International Tourism

While many foreign tourists know Incheon as the location of its international airport, they are often unaware of the city's tourism potential. Even visitors entering through Incheon Port often head straight to Seoul. Incheon must promote itself as an attractive city for tourists, expand tourist amenities, and improve language services. Utilizing social media influencers, bloggers, and YouTubers could be a great way to create awareness of the city's offerings.

Incheon's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CIS Countries

Discussant **Jung Young-sun**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irst of all, I am deeply honored to speak at this important conference today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Koreans, representing 120,000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Over 10,000 Koreans reside in Incheon, and our association is committed to supporting their smooth settlement and healthy integration.

Today, I'd like to discuss how we can contribute to Incheon's growth as a global city and its transformation into a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hub. I will divide this discussion into two directions: internal and external.

The first externally-focused goal is to transform Incheon into an international hub.

Incheon is a city with a rich history and vast potential. However, it requires more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to become a truly global city. In this process, Korean-Americans living in Incheon, as well as those residing in the CIS countries, can serve as valuable resources from a diaspora perspective.

1. Building Bridges between Incheon and CIS Countries

Korean-Koryo living in Incheon maintain strong cultural, historical, and familial ties with the Korean diaspora in the CIS countries. They are not only language bearers but also carriers of cultural traditions from Kazakhstan, Uzbekistan, Russia, and other CIS nations, making them ideal intermediaries for building robust economic and cultural ties between Incheon and these regions.

2. Connecting with the Diaspora to Attract Investment

Korean-Koryo in the CIS and other countries hold

economically significant positions locally. Among them are senators, congressmen, Forbes-listed entrepreneurs, and world-renowned scholars and artists. Their networks and cultural expertise make Incheon an attractive platform for international projects. We propose organizing a business forum in Incheon with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CIS to discuss cooperative ventures in technology, logistics, and manufacturing. This could serve as a crucial opportunity to promote mutual investment and job creation. Koreans, with thei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IS countries, can play an essential role as mediator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rojects.

3.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 Leveraging Cultural Diversity to Attract Tourism

Korean-Koryo in the CIS countries have preserved their unique cultural heritage while incorporating elements from their respective host cultures. This colorful cultural blend can be utilized as a resource to attract tourists to Incheon. Cultural festivals, exhibitions, and events can showcase the cultures of Koreans and CIS countries, positioning Incheon as an international center for cultural exchange.

Now, turning inward, we must focus on Transforming Incheon into a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City.

In addition to external growth, it is crucial to transform Incheon's identity into one where multicultural diversity becomes a source of prosperity and development. Korean-Americans ca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is transforma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city's social, educational,

and cultural life.

Incheon features diverse elements, from a cutting-edge global city like Songdo to the struggling diaspora community of Hambak Village. I believe it can serve as a successful model for harmonizing the principl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particularly if the Korean diaspora can successfully integrate and contribute as healthy, productive citizens.

To achieve these goals, we must address the following real-world challenges:

1. Create Jobs and Build Infrastructure for Koreans

Korean-Koryo needs support to successfully integrate into the labor market. Establishing infrastructure, such as support centers offering employment and legal counseling in multiple languages, is essential. This will not only assist Koreans but also help other foreigners adapt to life in Incheon and secure quality employment.

2. Develop a Bilingual Training Program

Education plays a key role in successful integration. We propose developing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that allow children of Korean descent to learn in both Korean and Russian. Such programs would help them adapt to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while preserving their cultural heritage. For example, introducing bilingual classes in school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migrants in Incheon would be highly beneficial in fostering confident and well-adjusted members of the community.

3. Strengthen Ties Between Koreans and Local Residents

Interaction with local residents is crucial for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Korean-Americans into the Incheon community. Regular cultural and sporting events should be organize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foster healthy relationships between locals and Koreans. This will encourage mutual respect and strengthen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city.

4. Promote Active Participation in City Life

To become fully integrated into Incheon, Koreans need opportunities to engage in local councils and public initiatives. This will allow the Korean diaspora to contribute to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ity and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Koreans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diversity in Incheon's societ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cheon is ready to contribute to both the international and internal development of the city. To reiterate, we propose utilizing Koreans as a bridge between Incheon and the CIS countries to attract investment and develop tourism and cultural projects. Additionally,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make Incheon a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city by promoting bilingual education, creating jobs, and strengthening intercultural ties.

We hope to see Incheon grow into a true global hub and a city where all cultures are respecte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